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삶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 없으면 오만해 지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7월 21일)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유례없는 韓日갈등에 불교계도 'No Japan'

지역사암연합회 차원서 번지는 불매운동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계도 지역사암연합회들이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사찰에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광복절인 8월 15일 창원 메가박스에서 '일본 불매운동 동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국민적인 불매운동에 불교계도 동참코자 마련됐다.

이날 창원불교연합회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베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창원불교연합회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행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정부에 △역사왜곡 중단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은 "임진왜란과 국권피탈 위기에서 국가를 위해 노력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중대한 시기에 불교계가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자 결의대회를 기획했다"며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애국불교로의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암연합회 차원의 불매운동은 창원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8월 9일 회의에서 '무역보복 경제전쟁! 반성 없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광주 주요사찰에 설치키로 했다. 회의서는 연합회의 성명 발표와 일본정부 규탄 법회도 논의됐지만, 이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지역사암연합회가 아닌 개별 사찰이 직접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불자들에게 이를 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대학생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 이하 대불련)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련은 8월 13일 "아베정권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약에 대해 위반이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나, 이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인지 못한 몰지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에 근간해 한일정부간 청구권 협약과 별개로 당시 일제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 또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불련은 〈법구경〉에서 번뇌를 늘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아베정권의 태도가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법구경〉에서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교만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번뇌는 늘어만 간다'고 설한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무조건적인 반일적 태

日아베 경제보복 조치에
주요사찰 현수막 내걸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

대불청 · 대불련 청년불자
아베정부 강력규탄 성명
과거사 사과 · 배상 촉구

도를 경계하며 아베정권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비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같은 날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는 청년단체들과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로 구성된 '항일자주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지켜온 청년단체 일동'은 시국선언을 통해 △혐한 선동 중단 △양국 협력관계 해하는 만행 중단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 이행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청년들은 아베정권의 망동에 격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베정권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고자 현 사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새 시대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관련 특별인터뷰 A3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정 교시를 대독하는 모습.

"韓日갈등, 3국불교 교류로 극복하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8월 13일 국난극복 교시 발표

한중일대회 3국 공동 선언문 등
종단차원 후속조치 계획 추진해

대북관계 악화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등 국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조계종 법통의 상징인 종정 진제 스님이 국난극복을 위한 교시를 발표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종단에 한중일 3국 불교협의회를 통한 교류를, 정치인들에게는 중도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국민과 함께해왔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에 국민의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면서 국난을 극복했고, 임진왜란 때는 서산 · 사명 · 처영 대사께서 일본과 화친을 맺어 구국호국하셨다"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이어 "총무원장께서는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은 상대적 대립의 양변을 여의고 원융무애한 중도의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제 스님은 "우리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구분 없이 동체대비의 자비실현과 사바세계 생명평화를 영구히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한중일 삼국불교는 한일 양국의 존엄한 안보와 경제를 위해 조석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축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단의 신성을 의미하는 종정스님의 이 같은 교시에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0월 중국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에서 동북아평화에 대한 3국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정예하의 이례적인 교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뜻을 모아 극복하자는 당부"라며 "종단은 우선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확대, 국난극복을 위한 축원으로 1천만 불자의 정성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전국 주요사찰에 현수막을 게재해 불자와 사찰방문객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29~30일 중국 광동성 주해시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서 동북아평화에 대한 3국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하안거 해제… 만행 나선 운수납자

조계종 98개 선원서 2000여 수좌 정진

불기2563년 기해년 하안거가 8월 15일 해제했다. 전국 선원에 방부를 들였던 2000여 수좌들은 걸망을 메고 만행에 나섰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 대중현황을 정리한 '기해년 하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에는 전국 98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4 · 비구니선원36)에서 총 1991명(총림270 · 비구1058 · 비구니663)의 수좌들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어를 통해 "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화두 없이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태하거나 방일해서는 안 된다"며 "항상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하면서 자신의 공부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퇴굴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될 것이니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한 "부처님 진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이로부터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고 여일한 정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A4면〉

2019년 제3회 합동캠페인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 위령대재
(영가 천도 무료접수)
일 시 : 2019년 8월 25일(일) 오후3시
장 소 :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 광장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참여단체 화엄승가회 소속 24개 사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TBN 부산교통방송,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녹색 · 의경어머니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 부산동문회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BBS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 법보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사 부산여성신문

38년 전통 승려 100 · 조계종 포교사 1,200 · 졸업생 1만6천여명 배출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의 새 지평을 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유식30송 / 이만 교수 / 9/30(월)~10/4(금) / 13:30~16:30
■ 최봉수 교수 특강(무료) 번뇌의 조복과 신경가소성 8/12, 19, 26(월, 오후7시~9시)
하반기 입학식 : 2019년 9월 5일(목) 오후7시
기초교리학과 (6개월, 목)
기초 핵심교리 중심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강의
불교문화학과 (6개월, 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 불교문화전문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2018-000629)
경전대학원 (6개월, 화)
마성스님「아함경」
장생아카데미 (6개월, 화)
120세 건강장생법 한의사 각계 전문의 초빙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 051) 711-0700
서면 롯데 맞은편 신동아빌딩

조계종 기획실장에 삼혜 스님 임명

8월 14일, 사서실장 송하 · 박물관장 탄문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사서실장 송하 스님


박물관장 탄문 스님

조계종 신임 기획실장에 前사서실장 삼혜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4일 기획실장에 삼혜 스님, 사서실장에 前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박물관장에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탄문 스님이 승진했으며, 박물관 사무국장에는 도헌 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부실장스님들이 화합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소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탄허 택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삼장사와 금당사 주지를 비롯해 제 15~16대 중앙종회의원, 사서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서실장 송하 스님은 능엄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덕숭총림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리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문 스님은 자승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용덕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 광주 백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사무국장 도헌 스님은 지광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보광사 보광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장 육문 · 본각 스님 2파전

8월 15~30일 후보 등록… 9월 18일 임시총회 선출

조계종 6000여 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현 회장 육문 스님과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현 회장 육문 스님의 임기는 11월 12일 만료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8월 8일자로 제12대 회장 입후보 등록과 선거관련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15일부터 30일까지며, 후보는 승랍 40년 이상(연령 65~74세)과 법계 명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차기 비구니회장 선출을 앞두고 현재 비구니계 안팎에서는 후보로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본각 스님은 최근 부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사실상 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으며, 현 회장 육문 스님은 차기 회장 출마를 고사해왔지만 노스님들의 지지를 받으며 재임에 도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임기동안 공약으로 발표했던 비구니 노후복지 증진과 11년만에 비구니 명사법계를 배출한 공적이 밑바탕 됐다. 이에 장고를 거듭하던 육


육문 스님


본각 스님

문 스님은 8월 12일 종무회의에서 출마의사를 집행부에 밝혔다.

한 비구니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의 출마 소식에 2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어느 스님이 유력한지는 알 수 없다.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비구니스님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차기회장 후보들은 입후보 후 선거관리위원을 5인씩 구성해 9월 3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는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임시총회 당일 전국비구니회관에 도착해 점명부에 접수한 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윤호섭 기자

불자 성원에 '탄자니아 농부' 배출

조계종 보리가람 농대, 3년 만에 57명 졸업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지역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학교를 건립한지 3년만이다.

조계종은 최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꾸려 9월 6일 현지 학교에서 1회 졸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농업중심 국가인 탄자니아의 빈민 구제를 위해 조계종이 세웠다. 탄자니아는 인구의 80%인 4000여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정작 농지는 전체 토지 중 24%에 불과하다. 소규모 경작으로 농가 51%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문제는 탄자니아 농민들의 농업기술 부재로 생산성이 낮고, 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도 탄자니아에는 기후조건이 좋은 일부지역에만 농업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2013년부터 현지조사를 거쳐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 내 농업기술대학이 필요하다는 탄자니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 2016년 9월 대학을 설립했다.

그동안 보리가람 농업대학에서는 3년 과정,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원예 농업 교육을 실시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수업료, 기숙사비 및 급식비 전액을 아름다운동행이 부담하고, 학생들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만 부담했다. 그 결과 이번에 1회 졸업생 57명 모두 원예농업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들 학생 상당수가 4년제 대학 편입을 통해 농업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9월 6일 탄자니아서 첫 졸업식

원예 · 농업교육에 한국문화 교육

10여명 불자 수계, 연등회 참가

농업전문가 삶 설계, 감사 표해

또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을 함께 받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매주 화요일 학교에서는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원을 교사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됐다.

또 5월 중간고사 시험 전에는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연등을 만들고 팔상도 전시전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불교전통 체험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런 관심으로 실제 2017년 연등회를 앞두고 탄자니아 학생과 교사 등 10여명은 한국을 방문해 불자가 되는 수계의


보리가람대학을 졸업하는 탄자니아 청년들이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식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연등회와 봉축법요식 등에도 참여해 신심을 키웠다. 여기에 '탄자니아에서 온 편지' 등 웹소식으로 활동모습을 알린데 이어 2019년 1월에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한국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소식지 '보리가람'을 펴내기도 했다.

조용진 탄자니아 지부장은 "탄자니아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 규모가 작아 전공을 살려 직업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종합대학을 진학하면 농업관련 공무원 기회가 많고 교사도 할 수 있어 80%가 진학을 꿈꾸고 있다. 여기에 20%는 고향에서 농장경영을 꿈꾸고 있다"며 "몇몇은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혹은 탄자니아에 농업투자자를 연결할 수 없냐는 얘기를 한다. 이들에게 불자로서 해줄 말은 성실히 살며 정진하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그동안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특히 한국불자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은 향후 동창회를 만들어 졸업생들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공 스님은 "많은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 같은 인재불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 한국불교의 저력을 알리고, 세계에 부처님 자비광명을 펼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탄자니아에 머물며 보리가람 대학 1회 졸업식과 함께 자비나눔행을 펼친다.

중앙종회의원 보궐, 무투표 당선 유력

공석 5석에 5명 입후보… 자격심사 통과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4명의 직선직 스님들이 투표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8월 13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5인의 자격을 심사,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차석부의장 주경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7교구본사 수덕사 종회의원에는 서울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 종민 스님 입적에 따른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종회의원에는 불국사 부주지 정문 스님이 입후보했다. 또한 일원스님의 사직으로 인한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종회의원에는 완주 송광사 법진 스님, 법상 스님의 대흥사 주지 임명에 따른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종회의원에는 서울 용덕사 주지 향문 스님이 후보로 등록했다. 초격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선직 29일, 직능 26일 확정

216회 임시회 9월 19일 개원

종헌개정안 · 종정감사 등 다뤄

직능대표 법제분과에는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8월 29일 각 교구본사에서 열리지만 단독 입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직선직 4명의 스님은 당일 당선증을 받게 된다. 직능대표에 입후보한 환풍 스님은 8월 26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당선여부가 정해진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8월 12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216회 임시회를 9월 19일부터 5일간 회기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16회 임시회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교구본사특별분담사찰 설치와 관련된 종헌 · 종법개정안을 비롯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성안 중인 종법개정안, 종책질의, 종무보고,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 재심호계위원 · 법규위원 선출과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다뤄진다. 안건접수는 9월 12일 마감하며, 종책질의는 14일 마감한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이번 임시회서는 기존에 대부분 문건 대체로 처리했던 특위활동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종단의 입법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화재정책 개선 불교계 의견 반영"

정재숙 청장, 13일 원행 스님 예방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된 문화재위원 위촉 등 불교계 요청 사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 ·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정 청장은 "논란이 된 결원 문화재위원 5명을 종단에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위촉하겠다. 2년 뒤 차기 위원 위촉에서는 전 분과에 문호를 열겠다"면서 "5년마다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오는 2022~2026년 계획 마련에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문화재청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불교와 사찰 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 많은 예산 반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국난극복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宗正教示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국민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으로 국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국민의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각자 조성하면서
국난을 극복하였고,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서산 · 사명 · 처영 대사께서 일본과 화친을 맺어 구국호국하신 정신을 이어받아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은 상대적 대립의 양변을 여의고
원융무애한 중도의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구분 없이
동체대비의 자비실현과 사바세계 생명평화를 영구히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 · 중 · 일 삼국불교는 한일 양국의 존엄한 안보와 경제를 위하여
조석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축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3년 8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역사 지우는 아베, 한일 갈등 야기”

특별인터뷰 **이치노헤 쇼고 스님**(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韓 불매운동에 日 놀란 상황
아베 정부 한일협정 거론하며
“개인청구” 불인정 잘못된 행동
지난 1992년 야나이 정부위원
“韓 개인청구권 남아” 밝히기도

“일본, 한국 입장서 사과했나”
상대방 이해, ‘자비희사’ 발로
韓日불교 ‘자비’로 해결 나서야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은 … 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青森縣) 운쇼지(雲祥寺) 주지이자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 회장이다. 이밖에도 원죄 ‘사야마(狭山) 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실행위원, ‘인권 · 평화 · 환경’ 운동단체 ‘촉광(燭光)’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 등이 있다.

“‘미래 지향’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 지우기’ 작업에 매몰된 아베 정부가 현재의 한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절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E-메일을 통해 전해지는 이치노헤 쇼고 스님(一戸彰晃 · 일본 운쇼지 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결연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서면 인터뷰 당시 “일본은 과거 한국과 주변국가에 많은 잘못을 했고, 이를 참회해야한다”고 강조했던 입장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일본 조동종 소속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에는 〈조선침략참회기-일본 조동동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군산 동국사 참회비를 세운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을 이끄는 친한파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이치노헤 스님은 유례없는 갈등 상황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 일본이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한국에서는 시민운동 형태로 다양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류 붐 세대는 정치와 민간 교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NO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는 일본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현재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가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 청구는 끝났지만, 개인 간의 배상 청구는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협정은 유효하며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청구 인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한국 법원의 손을 들었다. 이는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이치노헤 스님에 따르면 1992년 2월 26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도이(土井)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야나이(柳井) 정부위원은 “한국의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인정했던 사실을 지금의 아베 정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을 거론하며 ‘개인청구권’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은 남아있고,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이 같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이 남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일본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는 경제 전쟁으로 확전됐다. 한일갈등 요소 중 하나인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치노헤 스님은 명확하다.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몇 번을 더 사과해야 하는가’라고 하고, 한국은 반대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에도시대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는 ‘타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정과 인정(人精)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 반성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일본은 한국의 사정과 인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한일갈등에서 양국 불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치노헤 스님은 강조했다. 특히 ‘자비희사’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양국 불교계에 주문했다.

“불교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진실한 불자는 모든 일을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마음의 근본은 사무량심 즉, ‘자비’와 ‘희사’에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두 이 정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일 불교는 ‘자비희사’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치노헤 스님은 “이번 소동은 오직 아베 정권의 보복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일본인이자 불자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나라 시대 선사인 석두희천(石頭希遷)의 ‘참동계(參同契)’ 한 구절을 소개했다. ‘참동계’는 조동종의 요점을 5언 44구 220자로 드러낸 짧은 글로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만물은 애초부터 공능이 있어 본래작용과 용처가 있으니(萬物自有功當言用及處) 상자와 뚜껑이 들어맞고 화살과 칼끝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것과 같네.(事存函蓋合 理應箭鋒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번역도움=종걸 스님(군산 동국사 주지)

전국 천태불자들 재가 하안거 결제

8월 10일 천태종 구인사서 1500여 불자 동참

전국 천태불자들이 천태종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하고자 여름 한 달 안거에 들어갔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8월 1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재가불자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회 기해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정 도용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부처님 법이 필요한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대승의 진리와 마음자리를 잘 닦아야 한다”면서 “첫 발심도 중요하지만 중간과 끝도 중요하다. 법을 닦지 않으면 미혹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용 스님은 이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관음정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불국정토요, 극락이요, 부처님 세계”라며 “안거 기간 중 기도 정진 열심히 하길 바라고, 각자의 지혜를 맑게 해 성불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결제사에서 “종단의 수행풍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도 안거제도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 일심청정을 이루고, 처처연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거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고요한 산사에서 내면을 되돌아보는 수행과 통찰의 시간을 보낸다. 이는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업을 바꾸는 것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덕 스님은 또 “안거 수행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보람은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리라 확신한다”며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안거 수행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인생의 나침반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해년 구인사 하안거에는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경험한 작가들 반응은?

만화로 표현한 포교원
작가템플스테이 후기 눈길



“저의 첫 템플스테이는 일상의 고민을 잊고 편안히 하루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경험과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짧은시간이지만 큰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어요. 한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2018년 문화콘텐츠 분야 종사자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 홍보에 나선 조계종 포교원의 활동이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 만화 후기부터 그림 후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후기가 눈길을 끈다.

올해 7월 6~7일 조계종 포교원이 일러스트 및 동화작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허안나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화로 된 후기를 올렸다. ‘절 굿즈 난생처음 받아본다’ ‘템플스테이 스님들의 존재만으로 자비로움이 온 세계에 넘쳐 흐를 것 같다. 머..멋져..’ 등 재치있는 그림으로 SNS상에서 템플스테이 체험 후기를 남겼다.

이와 함께 박수민 작가도 최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그린 연꽃 그림과 함께 ‘1박 2일간 짧은 인연이고 경험이지만 얻어간게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불교와 한국문화 소재로 종종 그림을 그려보이겠다’고 각오를 남겼다.

SNS상 후기인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허안나 작가의 인스타그램만 해도 yujh0075 등 네티즌들이 ‘나도 한번 가고푸다’와 같은 댓글을 남겼고, 82명이 ‘좋아합니다’를 눌러 호감을 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웹툰, 동화 작가 및 일러스트 작가, 소설가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교문화 기반을 알리기 위함이다.

7월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이어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는 ‘얼-차려! 꿈-깨라’를 주제로 웹툰 · 만화작가들과 함께 강화 전등사에서 작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 내용은 작가만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 담겨있다. 사찰문화 체험, 차담, 명상 등 기본 프로그램과 함께 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강연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 측은 “미디어 발달에 따라 불교콘텐츠 확대가 중요한 시기”라며 “작가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소양자료 제공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의 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올해의 포교사에 ‘심재덕 포교사’

조계종 포교사단은 8월 2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7회 팔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단기입장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포교사의노래 합창과 포상 및 축가 공연이 진행되며 제13기 전문포교사 및 제24기 일반포교사 품수식도 진행된다. 또 연수특강도 이어진다.

식전행사로는 박은주 포교사의 진행 하에 광주전남지역단의 찬불가 및 플룻연주, 대구지역단의 고전무용 ‘포교사 연꽃이 피다’, 충북지역단의 기타연주, 대전충남지역단의 국악공연, 전북지역단의 ‘운수대통’ 춤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이번 팔재계수계법회 포상자로는 총무원장상에 부산지역단 일행 심재덕 포교사, 포교원장상에 대구 혜림 장건환 포교사, 대전 지혜지 황경옥 포교사, 충북 무주 심재훈 포교사, 인천 일심화 곽순선 포교사 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 불교한문 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

2019년도 2학기 강의 안내

탄허강숙(呑虛講塾)은 탄허(呑虛) 큰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하기 위하여 오대산 월정사에서 설립한 불교 한문 학당입니다. 2019년 2학기(9월~12월, 4개월 약 16주) 탄허강숙에서는 4개 과목이 강의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신 정성본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강의하며, 화요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하 교수님이 [선문촬요]를 강의하며, 수요일에는 동국대 박사인 선암 스님이 [능엄경]을 강의하며, 목요일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인 문광 스님이 [선문염송]을 강의합니다.

학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무지해 지고 허영, 사치, 교만, 금전만능주의 등 천박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께서는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불방일은 불사(不死)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탄허큰스님 께서는 “법당 10채 짓는 것보다 인재 한 명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허강숙은 사회적, 불교적 인격을 완성하는 수행과 지성(知性)의 공간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2학기 강의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9월 2일(월) ~ 12월 19일(목) • 저녁 7시 ~ 9시
- **방 식** 원전 중심 강의 (초심자도 누구나 수강 가능)
- **장 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 지하철 ❶호선 종각역, ❸호선 안국역, ❺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 **문 의**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010-5226-2149

2019년 2학기 개설 강좌

요일	강좌 및 원전명	강사	강사소개
월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정성본 스님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임제록(역주)〉 〈무문관(역주)〉 〈벽암록(역주)〉 〈돈황본 육조단경(역주)〉 등
화	선문촬요 (禪門撮要)	이상하 교수	고려대학교 박사. 현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 〈십지경론〉 〈십송률〉 〈경허집〉 〈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수	능엄경 (楞嚴經)	선 암 스님	능엄학림 졸업(월운스님 전강제자). 동국대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동국대 대학원 불교융합학과 박사(한문불전 번역 전공). 불교한문학 박사.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강사
목	선문염송 (禪門拈頌)	문 광 스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 박사. (현)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

2학기는 1학기와 같으며, 교재도 같은 교재입니다.
수료증은 1, 2학기 통산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자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방법** • 이메일 : tanheogangsuk@naver.com • 전화 :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 **수강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5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윤재승 • 수강료 입금시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 교재는 개강일 배포

“쉽게 정진해서는 견성성불 어렵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佛祖場中不展戈(불조장중부전과)어늘 後人剛地起諒訛(후인강지기효와)라. 道泰不傳天子令(도태부전천자령)이요 時淸休唱太平歌(시청휴창태평가)로다.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뒷사람들이 공연히 옳고 그름을 논함이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영을 전할 것도 없음이요, 세상이 맑은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를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금일은 어느 듯 석 달의 안거(安居)를 마치는 해제일이라. 세월의 흐름이란 주야(晝夜)가 따로 없고 춘하추동의 계절(季節)에 관계없이 쉼 없이 흐르고 있음이라. 생사(生死)도 이와 같이 신속(迅速)하니 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화두(話頭)없이 행각(行脚)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태(懶怠)하거나 방일(放逸)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부처님의 진리(眞理)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 환경에 구애(拘礙)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은혜(恩惠)와 시주(施主)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이로부터 신심(信心)과 발심(發心)이 생겨나고 여일(如一)한 정진을 할 수 있음이라.

이 공부는 요행(僥倖)으로 우연히 의심이 돈발(頓發)하고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조석(朝夕)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發願)하면서 자신의 공부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하여야 퇴굴(退屈)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될 것이니 명심(銘心)하고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

수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기만 할 뿐이지, 알려주면 따르지 않는 이가 대다수(大多數)이다. 편하고 쉽게 정진해서 견성성불(見性成佛)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면서 몸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음이라.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정진하고도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고 득력(得力)을 하지 못하는지 각자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어짐이 없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이라. **〈중략〉**

조주 선사 회상(會上)에서, 한 수좌(首座)가 석 달 동안 공부를 잘 해오다가 해제일(解制日)에 이르러 하직인사를 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이르셨다.

“부처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달아나라. 만약 삼천 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들어 말하지 말라.”

이에 그 수좌가, “스님,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조주 선사께서는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摘楊花摘楊花]”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어째서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딴다.”고 하는가?

이러한 법문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만일 누구라도 각고정진(刻苦精進)하여 이 법문의 뜻을 알아낸다면, 백천삼매(百千三昧)와 무량묘의(無量妙意)를 한꺼번에 다 알아서 하늘과 땅에 홀로 걸음하리라.

조주 선사의 ‘摘楊花摘楊花(적양화적양화)’를 알겠는가? 千里烏騅追不得(천리오추추부득)이라. 천 리를 달리는 오추마라도 따라잡기 어렵느니라.



약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만공(滿空)선사라는 도인스님이 계셨는데, 수십 명 대중에게 항시 바른 수행을 지도하고 계셨음이라. 하루는 몇몇 수좌들과 마루에 앉아 한담(閑談)을 하고 있는 차제(此際)에 처마 끝에 새가 푸우울 날아가니 만공선사께서 물으셨다.

“저 새가 하루에 몇 리나 날아가는고?”

이 물음에 다른 수좌들은 답이 없었는데 보월(寶月)선사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명답을 했다. “촌보(寸步)도 처마를 여의지 아니했습니다.”

훗날 만공선사께서 열반에 드시니 산중회의에서 고봉(高峯)선사를 진리의 지도자인 조실(祖室)로 모시기로 하였다. 어느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중이 고봉선사께 법문을 청하니, 고봉선사가 법문을 위해 일어나서 법상에 오르려 하였다. 바로 그때 금오(金烏)선사가 뒤를 따라가서 고봉선사의 장삼자락을 잡으면서 말했다.

“선사님,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장삼자락 놔라!”

고봉선사가 이렇게 말하니, 금오선사가 재차 물었다.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장삼자락 놔라!”

그 후로 40년 세월이 흘러 하루는 산승의 스승이신 향곡선사께서 산승에게 이 대문을 들어서 물으셨다. “네가 만약 당시에 고봉선사였다면 금오선사가 장삼자락을 붙잡고 한마디 이르고 오르라 할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향곡선사의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산승은 벽력같이 ‘할(喝)’을 했다. “억!” 하고 할을 하니, 향곡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할을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여가리라.” 할이 틀렸다는 말이다. 향곡선사의 이 같은 말씀에 산승이 바로 말씀 드렸다. “소승(小僧)의 허물입니다.”

그러자 향곡선사께서 멋지게 회향하셨다. “노승(老僧)의 허물이니라.” 자고(自古)로 법담(法談)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장삼자락을 붙잡고 ‘이르라’ 할 때에는 한 마디 척 해야 되는데, 산승이 즉시 ‘할’을 한 것은 묻는 상대의 안목(眼目)을 한 번 흔들어 놓는 것이다. 즉 묻는 사람이 알고 묻느냐 알지 못하고 묻느냐, 상대의 안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향곡선사께서는 바로 낙처(落處)를 아시고는 ‘네가 만약 그렇게 후학을 지도한다면 앞으로 만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간다’ 고 바르게 점검하신 것이다.

이렇게 흑백을 척척 가릴 수 있어야 선지식이 되고 만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눈이 없다면 태산(太山)이 가리고 있어서 선지식 노릇을 할 수 없는 법이다.

향곡선사의 말씀에 산승이 ‘소승의 허물입니다.’ 하고 바로 잘못을 거두니, 향곡선사께서도 ‘노승의 허물이니라.’ 하고 바로 거두셨으니, 이 얼마나 멋지게 주고받은 진리의 문답인가! 이처럼 남방의 불법과 북방의 불법의 심천(深淺)이 크게 있는 것이라.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대문(大文)을 바로 보시오!

취모리 일으켜 본성을 알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一條柱杖擊須彌(일조주장격수미)하니 霹靂聲中露全機(벽력성중로전기)로다. 誰言難破漆桶關(수언난파칠통관)가 般若利劒卽能破(반야이인즉능파)로다.

한자루의 주장자로 수미산을 격파하니 벽력의 소리 가운데 전기가 드러났도다. 누가 칠통관을 파하기 어렵다고 말하던가? 반야의 날카로운 칼로 곧 능히 파하도다.

時會大衆(시회대중)은 諦聽(제청)하라 圓覺妙旨(원각묘지)는 無始廣劫(무시광겁)에 本自不失(본자부실)이어니 云何更尋(운하경심)이리요.

亘古至今(긍고지금)히 廓然寂照(확연적조)하니 大衆(대중)은 委悉麽(위실마)아 碧眼衲僧(벽안납승)은 且道一句來(차도일구래)하라!

良久(양구)에 “一喝(일할)” 云(운) 石虎生獅子(석호생사자)하고 木人(목인)이 歌詠舞(가영무)하야사 始得(시득)다

시회대중은 자세히 들어라! 원각묘지는 비롯함이 없는 광겁에 본래 스스로 잃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찾으리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확연히 고요히 비추니 대중은 알겠는가?

눈 푸른 납승은 한마디 일러보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 번 하고 이르시되 돌호랑이가 사자새끼를 낳고 나무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비로소 옳다.

一切衆生(일체중생)이 六塵所覆(육진소부)와 五陰所使(오음소사)로 頻經生死往來(빈경생사왕래)나 其性(기성)은 不昧(불매)하야 不離暫時(불리잠시)니 各起吹毛利(각기취모리)하야 會得本性時(회득본성시)에 卽爲大自由人(즉위대자유인)하리라.

일체중생이 육진에 덮인 바와 오음의 부린 바로 자주 생사에 왕래함을 겪으나 그 성품은 매하지 아니해서 잠시도 여의지 아니했으니 각자 취모리를 일으켜서 본성을 알아 얻었을 때 곧 대자유인이 되리라.

頌曰(송왈)
게송으로 이르시되

衆生明性是名佛(중생명성시명불)이요 迷性徃還名衆生(미성왕환명중생)이니라. 心性圓明自由人(심성원명자유인)이 此時眞正解制人(차시진정해제인)이로다.

중생이 성품을 밝히면 이름이 부처님이요 성품을 미하여 왕환하면 이름이 중생이니라. 심성을 뚜렷이 밝힌 자유인이 이것이 진정 해제인이로다.

諸緣(제연)에 無所着(무소착)하라! 하고 遂下座(수하좌)하시다.

모든 반연에 집착한 바가 없이 하라! 하시고 드디어 하좌하시다.

머리에 재를, 얼굴엔 흙 묻혀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하늘과 땅이 갑자기 툭 터지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일시에 환해지며, 설령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방(捧)’을 휘두르고 천둥번개 소리처럼 벽력같은 ‘할(喝)’을 질러댄다고 해도 끝임 없이 향상(向上)하는 공부인(工夫人)을 당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향상이란 결제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는 정진력이요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지 않는 수행력입니다.

여산(廬山) 귀종사(歸宗寺) 회운(懷惲)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제 이후의 일입니까?”

“회두토면(灰頭土面)이니라. 머리는 재로 덮이고 얼굴은 흙이 묻었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동안(同安)선사가 말했습니다.

“털거나 닦아내지 않겠습니다.”

결제를 제대로 마친 향상인(向上人)이라고 한다면 세간이라는 불에 들어가도 절대로 제 몸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해제라고 하는 물에 들어가더라도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삼악도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유 있게 유원지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로울 것입니다. 설사 아귀세계나 축생세계에서 과보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제와 결제가 하나이며 수행과 만행이 둘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혜종고(大慧宗杲)선사는 유보학 언수(劉寶學 彦修)거사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하나를 마치면 온갖 것을 마치게 되고, 하나를 깨달으면 온갖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를 증득하면 온갖 것을 증득하게 됩니다. 대비심을 일으켜 역순(逆順)의 경계 가운데 타니대수(拖泥帶水), 즉 뻘을 안고서 흙탕물과 합해지더라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구업(口業)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건져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요 이것이 바야흐로 대장부가 할 일입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늘 푸른 산, 맑은 하늘 아래 살 수 있겠지만 해제를 한다면 더러운 재를 바르고 흙이 묻는 일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푸른 산, 맑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은 곧 만 길 되는 봉우리 위에 홀로 서있는 것이며 머리에 재를 바르고 얼굴에 흙이 묻는 것은 중생경계와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둘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머리에 재를 바르고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만 길 봉우리 위에 서있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만 길 봉우리에 선 것이 곧 머리에 재를 바르고 얼굴에 흙이 묻는 꼴이 되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방편을 사용한 것과 높은 봉우리에 고고하게 홀로 서있는 것은 알고 보면 서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노흉선족입전래(露胸跣足入廛來)터니 말토도회소만시(抹土塗灰笑滿腮)라.

가슴을 풀어헤치고 맨발로 시중에 들어오니 흙먼지 묻은 얼굴이지만 웃음이 가득하네.

수행자의 위의와 안목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法相非法相(법상비법상)이여 開拳復成掌(개권부성장)이로다. 浮雲散碧空(부운산벽공)하니 萬里天一樣(만리천일양)이로다.

법상과 비법상이여!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이로다.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 하늘이 한 모습이로다.

부처님 법대로 안거를 성만한 총림의 청정대중이여! 그 당당한 모습 모든 불보살님이 찬탄합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아라한보다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승가가 수승하다 하셨습니다.

안거를 성만한 대중은 지혜와 정진력이 원만해진 까닭에 법랍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머무는 곳마다 청정도량이 이루어지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감동과 존경 속에 불법과 함께하기를 발원하고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참선수행자는 지혜로운 삶을 근본으로 바라밀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원력보살입니다.

무주상보시를 통해 무아를 체득하고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활용하며, 삼취정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이 실천해 보이신 여법한 수행자의 모습과 복된 삶의 모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 바라밀을 완성하며, 쉼 없는 정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희망찬 모습과 안정된 마음에서 이루어 내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스스로 체득하고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반야지혜를 성취한 수행자의 안목으로 실천하는 바라밀은 청정한 법계와 함께하게 합니다.

무더위를 서늘하게 식혀가며 정진해온 총림대중이여! 이제 산문을 나서는 수행납자의 걸음걸음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향되어야 하고, 맞이하는 모든 인연은 각자의 수행력을 점검하는 좋은 인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걸음과 위의와 안목은 이 땅이 불국토가 되게 하는 최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得樹攀枝未足奇(득수반지미족기)라 懸崖撒手丈夫兒(현애철수장부아)니라. 水寒夜冷魚難覓(수한야냉어난멱)하니 留得空船載月歸(유득공선재월귀)로다.

벼랑에서 나뭇가지 잡는 것은 기특한 일이 아니니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장부라네. 물이 차고 밤기운 싸늘하여 고기 물지 않으니 빈 배에 달빛 싣고 돌아오도다.

無心 이룬 그대로가 부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대중들께서 반연들을 밀쳐두고 정진하던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라에도 어려운 일이 많고 사람들도 저마다 괴로울 일이 늘어난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을 대하면 마음이 불편할 일도 있을 터입니다. 하지만 지난 안거기간 정진했던 그 힘으로 능소능대(能小能大)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대기대용(大機大用)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며 무심(無心)으로 스스로 정진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심을 이룬 사람은 그대로가 부처인지라 처한 곳마다 참(眞) 아님이 없어 오탁악세의 땅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습니다(淸風匝地).

제가 몇해 전 미얀마의 큰스님들이 상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 기준이 세상에 불자들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였습니다. 수행정진을 한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친 선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펼친 강사스님등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그 분들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교오종(藉敎悟宗)을 다시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영명연수 스님 말씀처럼 실답게 깨친 것이 없어 걸음걸음마다 유에 결려있으면서 말끝마다 공도리를 논하며 업력에 끌려들어감을 책하지도 않는(全無實解步步行有 口口談空 自不責業力所牽) 그런 썩은 수행자가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절에는 정말 실다운 수행자가 절실합니다.

지난 혹서의 여름을 잘 산 우리 대중들에게 저의 헛된 염려가 중언부언(重言復言) 허물이 됩니다. 한산시 한편으로 말끝을 하겠습니다.

男兒大丈夫(남아대장부)
作事莫莽鹵(작사막망로)
출격대장부라면 일을 하되
함부로 하지말라!

勁挺鉄石心(경정철석심)
直取菩提路(직취보제로)
철석처럼 굳고 곧게
보리의 길을 바로 취하라!

邪路不用行(사로불용행)
行之枉辛苦(행지왕신고)
삿된 길을 가지말지니
가봐야 괴로울 따름이다.

不要求佛果(불요구불과)
識取心王主(식취심왕주)
불과를 구하려고도 하지 말며
다만 차별 없는 참사람이 되어라
(無爲眞人)!
咄咄(돌돌)!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8월 9일 용인 법륜사에서 생명존중교육을 통한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지도법사 혜운 스님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다도체험을 겸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전통다례체험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템플스테이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생명존중교육.

“생명 살리는 미래동량으로 자라길”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⑤ 용인 법륜사 생명존중 템플스테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꿈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가 되어 보다 많은 이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요. 윤섭 학생은 의사가 되어서 전세계 사람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도 될 거예요.”

아이들 무리 속에서 한 아이가 수줍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자 한 스님이 아이에게 박수를 치며 활짝 웃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8월 9일 용인 법륜사에서 개최한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는 청소년 생명존중교육과 함께 소중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이날 템플스테이는 구립초안산숲속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인솔교사, 생명나눔의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인 ‘따숨(따뜻한 숨결)’ 5기 활동가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양했다. 아이들은 먼저 생명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

먼저 스스로의 꿈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자신감을 키우는 꿈드림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빙 둘러 앉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옆의 아이들이 가진 꿈을 존중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낯설기만 했다. 주저하며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던 아이들도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속에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강가령 학생의 말에 주변 아이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수줍게 미소만 보이던 초등학교 2학년 임연우 학생도 친구들이 모두 꿈에 대해 말하자 마지막에 작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다도예절 등을 지도한 지도법사 혜운 스님은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꿈을 이룰 수 있다며 격려했다. 여행가가 되고 싶다는

20여 초등학생 꿈 · 목표 공유

서로 박수치며 미래 응원해

자존감, 자신감 중요성 체험

생명존중 교육으로 자살예방

황윤섭 학생에게는 “스님의 친구를 보면 돈이 없어도 전세계를 여행한다”며 “친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어보니, 친절이 큰 재산이라고 했다. 어디를 가도 항상 주변에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전해주다 보니 친구가 되어 여행에 도움을 받는다. 윤섭학생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전해주다 보면 훌륭한 여행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꿈드림 프로그램에 이어서 나에 대해 알아보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심히 한다’ ‘화를 잘낸다’ 등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찾은 단어를 옆에 있는 친구의 단어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날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의대생 봉사단 따숨의 홍지영 대표는 “주변 친구들과 단어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우리의 얼굴과 성격이 다 다르듯 주변 친구들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2인 1조씩 짝을 지어 칭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시간도 진행됐다.

초등학교 4학년인 진보영 학생은 “사찰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칭찬하고 간식도 나눠먹으며 즐거웠다”며 “스님과 함께 사찰 예절도 함께 익히고 스님이 꿈에 대해 좋게 얘기해줘 감사했다”고 전했다.

따숨 봉사단원으로 참여한 한양대 의대 본과 2학년 김기륜 학생은 “아이들은 마냥 맑아야 할 나이인데, 최근 인간관계나 학업경쟁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키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도 템플스테이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생명존중교육에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 자신감”이라며 “생명존중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사찰에서 함께 생명존중 문화 활동을 진행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템플라이프 형식으로 총 4회 진행되며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아동 가정 기능 보완과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인 법륜사=노덕현 기자

한눈에 살펴보는 생명나눔 9월 소식

환자치료비 지원 심의회의 및 환자치료비 전달식
- 날짜: 9월 5일(목)
- 장소: 법인 회의실

부산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문화제 ‘허들링’ 참석
- 날짜: 9월 7일(토)
- 장소: 해운대 구남로 일대

안양시 걷기대회
- 날짜: 9월 8일(일)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프로그램
- 날짜: 9월 9일(월) · 장소: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 날짜: 9월 11일(수) · 장소: 서연중학교
- 날짜: 9월 19일(목) · 장소: 은성중학교

육군훈련소 군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교육
- 날짜: 9월 29일(일)
- 장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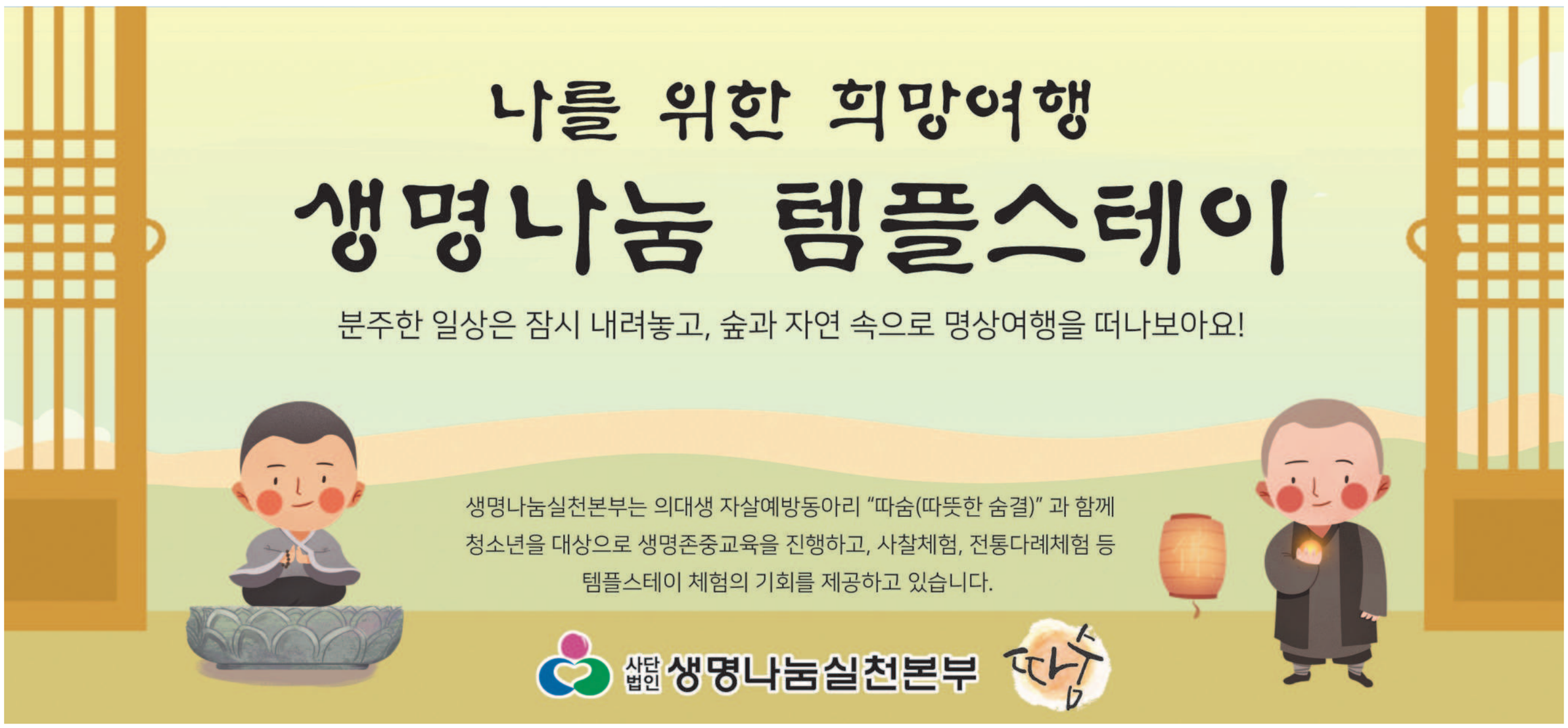
동국대일산병원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장소: 동국대일산병원 로비

도봉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 장소: 도봉면허시험장 로비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일제 만행 끝까지 기억하자”

군산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 추념식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군산 동국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가 열렸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념사업회(공동대표 이승우)와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8월 14일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을 맞아 추념식과 추모공연을 열었다.〈사진〉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윤동욱 군산부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을 비롯한 각급기관장들과 군산여성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묵념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과보고, 헌공다례, 헌화, 추념사, 헌시 낭독, 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우 이사장은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그동안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기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 역사를 통해 미래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동국사 소녀상은 다른 곳의 소녀상과 달리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 조동종의 참사비를 배경으로 서 있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의 성원으로 세워지게 된 만큼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인재불사 후원금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생에 300만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청년회는 8월 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 불교학부 학생 3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미소원 청년회는 2017년 11월 11일에 창립돼 활발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창립 후 조손가정 장애 아동 후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손가정 청소년 후원 등을 펼쳐왔다.

장유정 이사장은 “불교 미래를 위해 청년 후원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불교관련 학과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장학금도 계속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더위 식히는 산사 재즈음악회

통도사, 8월 25일 재즈가수 웅산 초청공연

영축총림 통도사가 시원한 산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재즈 공연을 마련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5일 오후 1시 삼성반월교 옆 특설무대에서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의 특별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불자 가수로 알려진 웅산은 재즈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 라이터,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제적 활동을 통해 한국 대표 재즈 디바로 알려져 있다.

웅산은 23년 동안 재즈보컬리스트로 활동하며 2011년 일본 ‘재즈비평’에서 베스트 앨범상과 보컬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일본 최고 전문잡지인 ‘스윙저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디스크 상을 수상했다.

한편, 통도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작은 음악회’를 주최하며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시민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살예방운동, 불교가 구심점”

부산불교교육대학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나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거리 행진 모습.

2016년 행정안전부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부산시는 인구 1만 명당 2.66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전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식을 접한 부산 스님들과 불자들은 생명 사랑을 강조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매달 거리 행진을 펼치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자살자와 교통사고 희생자 위령대재 및 자살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대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주축으로 부산불자들이 생명존중을 강조하며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는 8월 25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광장에서 ‘제3회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은 1부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가 열리며, 2부 법요식과 3부 거리 캠페인 순으로 진행된다.

위령대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수자 스님들이 전통방식으로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 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특히 자살영가를 위로하는 위령대재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자살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학장 범혜 스님은 “자살 예방센터를 방문해 유가족을 만났는데 폐쇄적이며 밝히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며 아픈 마음이 깊이 전달됐다”며 “사회 편견의 눈빛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인데 제대로 재를 올리지 못한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기도 동참자를 위한 위패를 만들어 재를 올릴 예정이며 현재 접수 중이다. 위령재는 무료이며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생명존중 위한 합동 캠페인
자살자 유가족 위한 위령재
8월 25일 서면 일대서 봉행
생명사람지킴이 지속 배출해

캠페인은 동참자들이 생명 존중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부산 중심가인 서면 일대를 행진한다. 행진은 서면영광도서 앞 분수광장을 출발해 서면지하도, 서면대로변, 교보생명지하도, 쥬디스 태화를 돌아 전포동카페거리, 롯데백화점,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회향한다. 아울러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기획한 전단지 7000여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전단지에는 ‘자살예견 신호와 대처방법’ 및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0선’이 담겼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기존 전단지에 구체적인 자살 예방법을 추가해 담았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수칙을 소개해 두었다.

범혜 스님은 “한 번 보면 정리하고 머릿속에 익힐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두었다”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생명 지킴이로 성장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도 이수 했다.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를 통해 생명사랑 지킴이로 교육, 성장할 것을 다짐한바 있다. 교육은 화엄승가회 스님 21명을 비롯해 불자 등 총 118명이 보건복지부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뿐 아니라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나눔 승가 단체인 화엄승가회 스님 및 소속 24개 사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등 부산 불교계와 부산진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의경어머니회 지역단체 등 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범혜 스님은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과 교통사고 사건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식 고취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저희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살률이 높은 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통 사고율이 높은 것은 양보와 배려의 습관이 부족한 탓이기에 반드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말했다.

1 · 3세대 잇는 문화축제 대구서 열린다

마음이아름다운재단, 8월 24~25일 망우공원 일원서

K-Pop과 국악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1 · 3세대를 잇는 축제가 대구에서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마음이아름다운재단(대표 혜강)은 8월 24~25일 대구 망우공원 영남제일관 일원에서 ‘제1회 빅피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빅피플(Big people)은 대인(大人)의 의미로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에서 따왔다. 인간성 회복 · 사람이 보배 · 수신제가평천하라는 주제 아래 전통문화와 한류의 중심인 K-Pop, 사찰음식 등 불교 내외의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다.

첫날은 오전 11시 효(孝) 백일장으로 행사의 문을 연다. 대구경북 초 · 중 · 고교생과 동등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뉜다. 부문 통합 대상과 금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우수상을 선정,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자연건강음식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경연대회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국회의원상과 구청장상 등 시상도 이뤄진다. 메인행사인 개막식은 오후 7시 별도 무대에서 선보인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K-Pop공연과 국악공연이 대구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둘째 날에는 행사의 백미인 K-Pop 경연과 국악경연이 펼쳐진다. K-Pop 경연은 동영상 예선을 거쳐 15팀을 선발하며, 초 · 중 · 고교생이 참여 가능하다. K-Pop을 소재로 커버 · 창장댄스를 선보여야 한다. 대상 1팀 상금 70만원을 비롯해 각각 수상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국악경연은 세대소통부(종합부)와 학생부로 나눠 경연한다. 5인 이상 20인 내외 단체로서 예선을 거쳐 현장 무대에 오른다. 세대소통부는 3세대로 구성된 팀,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 또는 동호인 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국악경 연 역시 수상자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축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망우공원 효 걷기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며, 바자회, K-뷰티체험관, 다도교육체험관, 각종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에 맞춰 24일 오후 4시 동촌유원지에서는 수성구사암연합회 주최로 제1회 금호강 무차수륙방생대재가 봉행된다. 무엇보다 유치원생들의 방생체험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혜강 스님은 “우리사회에 효(孝)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진부한 것처럼 여겨진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행사로 효의 가치를 부각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비종교인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색을 최소화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053)568-7004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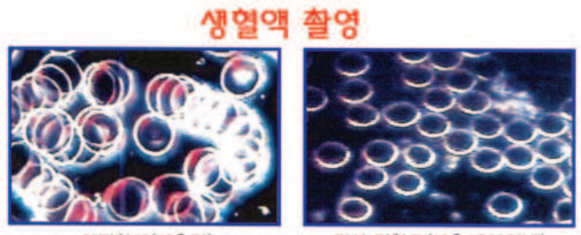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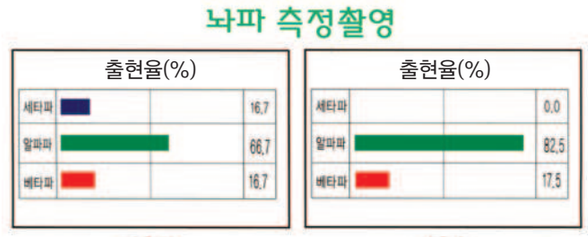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백담사 경내에서 바라본 수심교의 모습. 안거를 해제한 운수납자들은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다리를 건너 만행에 오른다. 산하가 팔만 사천 법문이고, 바람이 격외도림임을 알아야 한다.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④



“천룡의 손가락 禪 얻고도 일생동안 못써”

第二則: 百丈野狐 (백장과 들여우)

百丈和尚凡參次, 有一老人, 常隨眾聽法, 眾人退老人亦退, 忽一日不退, 師遂問. 面前立者復是何人. 老人云, 諾某甲非人也. 於過去迦葉佛時, 曾住此山. 因學人問,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某甲對云, 不落因果, 五百生墮野狐身. 今請和尚, 代一轉語, 貴脫野狐. 遂問,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師云, 不昧因果. 老人於言下大悟, 作禮云, 某甲已脫野狐身, 住在山後, 敢告和尚, 乞依亡僧事例. 師令維那白槌告眾, 食後送亡僧. 大眾言議, 一眾皆安, 涅槃堂又無人病, 何故如是. 食後只見師領眾, 至山後巖下, 以杖挑出一死野狐, 乃依火葬. 師至晚上堂, 舉前因緣, 黃蘗便問, 古人錯祇對一轉語, 墮五百生野狐身, 轉轉不錯, 合作箇甚麼. 師云, 近前來與伊道. 黃蘗遂近前, 與師一掌. 師拍手笑云, 將謂胡鬚赤, 更有赤鬚胡.

百丈和尙凡參次, 有一老人, 백장이 설법할 때
常隨衆聽法, 항상 대중을 따라 법문을 듣다가
衆人退老人亦退, 대중과 노인이 물러가곤 했다.
忽一日不退,師遂問. 하루는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자 백장 스님께서 물었다.
面前立者復是何人.老人云,
“당신은 도대체 뉘시오?”노인이 말했다.
諾某甲非人也.於過去迦葉佛時,
“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가섭불 시대에
曾住此山.因學人問,大修行底人
이 산서 살았는데 학인이 ‘크게 수행 한 사람도
還落因果也無.某甲對云,不昧因果.
또한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기에,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 답했기 때문에
五百生墮野狐身. 今請和尚,
5백 생을 여우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代一轉語,貴脫野狐.遂問, “제 대신 한 마디 말씀을 해줘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크게 수행한 사람곧 깨달음 사람도 또한 인과에 떨어집니까.”
師云,不昧因果. 백장스님께서 말했다.“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老人語言下大悟, 作禮云,
노인은 언하에 크게 깨닫고 절 올리고 말했다.
某甲已脫野狐身,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나
住在山後, 敢告和尚, 송구스럽지만 화상께서는
乞依亡僧事例. 다비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師令維那白搥告衆,
백장스님께서는 유나로 하여금 백추를 쳐서
食後送亡僧. 공양 후에 열반한 스님의 다비식이 있음을 알렸다.
大衆言議,一衆皆安, 모든 대중이 다 평안하고
涅槃堂又無人病,
열반당에도 또한 아픈 사람이 없는데
何故如是. 무슨 까닭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食後只見師領衆,
공양 후에 백장스님께서는 대중을 이끌고
至山後巖下, 산 뒤쪽 바위 아래에 이르러
以杖挑出一死野狐,
지팡이로 한 마리 죽은 들 여우를 끄집어내어
乃依火葬. 화장을 하였다.
師至晚上堂,
백장스님께서 저녁에 상당(上堂)하시어
擧前因然, 앞서의 인연을 이야기하자,
黃蘗便問, 황벽스님이 곧바로 물었다.
古人錯祇對一轉語,
“옛날 분이 한 마디 말씀을 잘못 대답하여
墮五百生野狐身,
오백 생을 여우 몸을 받았는데,
轉轉不錯,合作箇甚麼合. 한 마디 어긋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이 되었을까요?”
白 師云, 近前來與伊道. 백장스님께서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마”
黃蘗遂近前, 황벽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자,
與師一掌. 백장스님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겼다.
師拍手笑云,
백장스님께서는 손뼉을 치며 웃으며 말했다.
將謂胡鬚赤,
“오랑캐(달마)의 수염만 붉다고 여겼는데
更有赤鬚胡. 여기 붉은 수염 달마가 또 있구나!”

【無門曰】 不落因果, 為甚墮野狐, 不昧因果, 為甚脫野狐. 若向者裏著得一隻眼, 便知得前百丈贏得風流五百生.

無門曰 무문은 말한다.
不落因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爲甚墮野狐, 하면 어째서 들 여우 에 떨어지고,
不昧因果,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면
爲甚脫野狐, 어째서 들 여우에서 있었을까?
若向者裏著得一隻眼,
만약 여기에서 외짝 눈을 얻을 수 있다면
便知得前百丈贏得風流五百生.
그 여우 노인(前百丈)이 5백 생 동안
풍류를 즐겼다는 사실을 곧장 알리라.

【頌曰】不落不昧, 兩采一賽. 不昧不落, 千錯萬錯.
頌曰 게송으로 말한다.
不落不昧,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兩采一賽. 한 주사위의 두 가지 무늬일 뿐.
不昧不落,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千錯萬錯, 천 번 틀리고 만 번 어긋난다.

〈해설〉 백장회해(百丈懷海 : 749-814)는 당나라 때의 스님으로 조계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 마조도일의 3대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후백장으로 불리고, 한 노인은 먼 전생의 전백장으로 불린다. 크게 수행해 곧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것은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은 인과를 잘 안다는 것이다. 전백장은 인과의 부정으로 5백 생 여우 몸을 받았고, 후백장은 인과에 대한 분별을 드러낸 까닭으로 전 백장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지만 사량분별에 떨어졌다.

第三則: 俱胝竪指(구지가 손가락을 세우다)

俱胝和尚, 凡有詰問, 唯舉一指. 後有童子, 因外人問, 和尚說何法要, 童子亦豎指頭. 胝聞, 遂以刀斷其指, 童子負痛號哭而去, 胝復召之. 童子迴首, 胝卻豎起指. 童子忽然領悟. 胝將順世, 謂眾曰, 吾得天龍一指頭禪, 一生受用不盡, 言訖示滅.

俱胝和尙,凡有請問,
구지 화상은 누가 무엇을 물어올 때마다.
唯擧一指. 오직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였다.
後有童子, 나중에 구지 화상 처소의 동자에게
因外人問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물었다.
和尙設何法要, “어떤 법을 설하시느냐.”
童子亦竪指頭. 동자가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胝聞, 遂以刀斷其指, 구지스님이 이를 듣고 급기야 칼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童子負痛號哭而去, 동자가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달아나는데,
胝復召之. 童子廻首, 구지스님이 다시 그를 불렀다. 동자가 머리를 돌리자,
胝卻竪起指. 구지스님이 손가락을 보였다.
童子忽然領悟. 이에 동자는 문득 깨달았다.
胝將須世, 謂衆曰, 구지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대중에게 말했다.
吾得天龍一胝頭禪 “내가 천룡의 한 손가락 선을 얻어 일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했다.”
一生受用不盡,言訖示滅.
이렇게 말을 마치시고는 입적했다.

〈해설〉 구지는 금화구지(金華俱胝)로서 무주(撫州) 금화산(金華山)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항상 구지관음(俱胝觀音 곧 준제관음)의 주문(呪文)을 암송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천룡(天龍)은 마조도일 -대매법상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계승하였다. 항상 일지(一指)를 들어보였기 때문에 천룡일지선(天龍一指禪)이라 불렸다.

구지화상은 절강성 무주에 있는 금화산에 주석했는데, ‘나무칠구지불모대준제다라니’ 를 평생 지송해 ‘구지’ 라 칭했다. 절강성 무주에 거주하고 계실 때, 어느 날 실제니라는 비구니가 삿갓을 쓰고 찾아와서 구지 스님의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말하였다. “한 마디 하면 삿갓을 벗으리라”

구지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니, 이 비구니 스님은 소매를 뿌리치면서 떠나려 했다. 구지스님께서 말했다. “좀 쉬었다가 가시지요”

실제니 비구니스님이 말했다. “한 마디 한다면 머무르겠소.” 구지스님은 또 아무런 말도 못했다. 실제니 비구니스님이 떠난 뒤에 스스로 한탄하며 수치심을 느끼고는 산을 떠나려하였다. 그날 밤에 홀연히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곧 육신보살이 오셔서 그대를 위해 설법해 줄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천룡스님이 왔는데,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날 당한 이야기를 하니, 천룡스님이 말했다.

“나에게 물으라. 내가 대답해주겠다” 구지스님이 물었다. “바로 한 마디 한다면 머무르겠소”

천룡스님이 아무런 말도 없이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이에 구지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그 후로 항상 누가 물으면 한손가락을 세우면서 말했다.

“나는 천룡스님에게 일지두선을 받아서 평생을 쓰고도 다함이 없노라”

【無門曰】俱胝并童子悟處, 不在指頭上. 若向者裏見得, 天龍同俱胝并童子, 與自己一串穿卻.

無門曰, 무문은 말한다.
俱胝並童子悟處, 구지와 동자가 깨달은 곳은
不在指頭上. 손가락 끝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보는 놈은 어디에 있는가.
若向者裏見得, 만약 이 속뜻을 알아차리면
天龍同俱胝並童子, 천룡스님과 구지스님, 동자
與自己一串穿卻. 자신과 하나로 꿸 수 있다

【頌曰】俱胝鈍置老天龍, 利刃單提勘小童. 巨靈抬手無多子, 分破華山千萬重.

頌曰. 게송으로 말한다.
俱胝鈍置老天龍, 구지는 천룡 노스님을 얕보고
利刃單提勘小童. 칼로 동자를 점검했으니,
巨靈擡手無多子, 거령신이 손을 들어
分破華山千萬重. 화산을 천만 겹으로 쪼겠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삼보사 · 육지장사 ‘禪問答’ 특별 대법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육지장사 | 주관 : 서울포교사단, 인천경기 포교사단

<선문답>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서 출현한 선수행의 결과물입니다. 그 누구의 문답도 아닌 바로 자신이 일상에서 제기하고 점검하며 해답을 추구할 마음공부의 방편으로 대선사 초청 ‘선문답 특별 대법회’를 진행합니다.
<선문답>을 사유해 보는 선법회를 통해 국내외 일반대중들이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인격 완성의 계기로 삼길 발원합니다. 한 예로 수영이나 골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의 레슨을 받으면 실력이 향상되듯, 대선지식의 지도아래 실참(實參)하면 누구나 생각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대선사들의 선기 넘치는 <선문답> 법회에 동참하셔서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9년 ‘선문답’ 대법회 일정 (매일 오전 10시30분)

9월 22일 삼보사
무문관 제①칙 〈趙州狗子〉 해인사 **보광** 대선사

9월 29일 삼보사
무문관 제②칙 〈百丈野狐〉 통도사 **법산** 대선사

10월 6일 삼보사
무문관 제③칙 〈俱胝竪指〉 명사초청 특별 대법회

10월 13일 삼보사
무문관 제④칙 〈胡子無鬚〉 **지원** 前 조계종 포교원장

10월 20일 삼보사
무문관 제⑤칙 〈香嚴上樹〉 상원사 **의정** 대선사

10월 27일 삼보사
무문관 제⑥칙 〈世尊拈華〉 백담사 **영진** 대선사

11월 3일 육지장사
무문관 제⑦칙 〈趙州洗鉢〉 석종사 **혜국** 대선사

삼보사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99-4(육지장사 포교당) | Tel. 02)352-6406
육지장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71번길 190 | Tel. 031)871-0101
www.yukjijangsa.org

바람의 기도,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인가?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⑮ 텐징 릭돌



텐징 릭돌(1982~)

텐징 릭돌, 〈우리 땅, 우리 민족 Our Land, Our People, 2011〉. 티벳에서 공수해 온 흙을 만지는 티벳인들의 모습이 애잔하다.

텐징 릭돌, 〈나의 세계는 당신들 눈의 맹점에 있다 My world is in Your Blind-spot, 2014〉 시리즈 5 개 중 하나.

긴 머리칼을 뒤로 묶은 한 청년과 그의 동료들이 수많은 흙 포대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 그 흙은 마침내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북인도 다람살라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농구장 크기만한 네모꼴로 그 옮겨진 흙들이 정성스럽게 깔렸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승려들도 합장을 한 채 줄지어 조용히 걸어왔다. 어린 아이들은 생소한 정경을 보며 신기한 듯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는다.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깊게 패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꿇어앉아 연신 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한다. 한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 손에 그 흙을 쥐어 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한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때아닌 흙장난에 신이 난 듯 뛰어다니고, 어떤 아이는 흙으로 조그만 그릇을 빚어 보여 주기도 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티벳 난민 2세로, 평단에 널리 알려진 신진 작가 텐징 릭돌(Tenzing Rigdol, 1982~)은 작고한 선친을 위해 작업을 구상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 문화혁명이 시작되었던 1966년 12세 때 고국인 티벳을 떠나 네팔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후 두 번 다시 티벳 땅을 밟지 못했다.

2009년 암 진단을 받은 작가의 아버지는 투병 끝에 머나먼 타국 땅, 뉴욕의 어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님은 연로하신 할머니를 등에 업고 45일간 히말라야를 가로질러 네팔까지 가셨다고 해요."

텐징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다른 수많은 티벳 망명자들처럼 임종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했고, 고향 땅의 흙을 밟아보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텐징 릭돌은 티벳의 흙을 티벳 난민들에게 보여 주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하나의 설치 작업이기도 하면서, 또한 선친과 같은 티벳 난민들에 대한 '헌정'이었다. 이 가슴 먹먹한 작품이 〈우리 땅, 우리 민족 Our Land, Our People, 2011〉이다.

이 작업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고, 과정은 더 어려웠다. 현지 주민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박해 받을 것을 염려하여 '티벳 안의 어느 깊은 장소(deep inside Tibet)'라고만 지칭한 곳에서 20톤의 흙을 채취했다. 인도의 다람살라에 도달하기까지 이 여정은 트럭으로 티벳-네팔-인도 3개국의 국경을 지나며, 50개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2000km의 험난한 길이었고 총 17개월이 소요됐다. 애초부터 정상적인 출입국 절차 따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중국의 감시를 피해 엄청난 양의 흙을 반출하는 과정은 마치 티벳 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경을 탈출하는 것과도 흡사했다. 텐징 릭돌에게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자신의 아버지가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걸어온 길과도 같았다.

마침내 20톤의 흙은 다람살라에 도착했고, 3일간 진행된 전시에서 망명지의 티벳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는 다시 밟아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고향의 흙을 손으로 만지고, 그 위를 걸어 다니고, 또 기도하며, 눈물 어린 회상과 감격에 젖어 들었다.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마냥 천진하게 뛰어 놀며 흙장난을 했다.

릭돌은 "많은 난민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지요. 그래서 고향에서 온 흙을 만지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어요"라고 회상한다.

티벳 출신으로 불교적 소재를 통해 예술 세계를 펼치는 현대 예술가로는 텐징 릭돌 뿐 아니라 곤카르 갸초 등을 비롯한 몇몇 작가들이 있다. 곤카르 갸초는 티벳의 라사에서 태어나 조국을 떠난 1세대 난민 작가에 속한다면, 텐징 릭돌은 1세대인 부모가 해외로 이주한 후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 작가다.

텐징 릭돌은 1982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그 이후 북인도의 다람살라로 건너갔는데, 여기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 티벳 양탄자 만드는 일을 익혔고, 전통 불화인 '탕카'와 티벳 만다라 제작을 배웠다.

2002년 그의 가족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건너간다. 릭돌은 거기서 서양 미술을 접하게 되었지만, 먼저 자신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예술을 좀더 깊이 체득하고자, 다시 네팔 카트만두에서 정식으로 탕카 예술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2005년 콜로라도 덴버대학에서 미술사 및 순수 미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면서 드로잉, 회화, 사진, 설치 그리고 비디오 작업 등 여러 작품들을 제작하며 평단들의 이목을 끌고 차츰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진 작가들의 경우, 딱히 대표작이라 일컬을 만한 작품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꽤 알려진 신진작가라 하더라도, 화단의 평가 또한 다양하며 일치된 견해는 없다. 텐징 릭돌 역시 그러하지만, 그 중 비교적 최근 회화 작품인 〈나의 세계는 당신들 눈의 맹점에 있다 My world is in Your Blind-spot, 2014〉 시리즈는 눈길을 끈다.

연꽃문양을 비롯한 몇 가지 다양한 패턴을 바탕으로 선명한 색채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 시리즈 중 한 작품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매우 역설적인 느낌을 준다. 바리때를 왼손에 받쳐 들고 승려의 법의(法衣)를 두른 부처님의 품세 그 자체는 참으로 평정하고 고요하지만, 그 가슴과 얼굴의 흑암 속에서는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이 가득하다.

부처가 들고 있는 그릇은 빌어서 얻어먹는 걸식(乞食)과 연관된다. 릭돌은 "이 구걸하는 그릇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자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구걸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바탕은 티벳어로 깨알같이 경구를 새긴 천이다. 히말라야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르촉이나 룽따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경구가 바람에 실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온 우주법계의 무량중생들에게 전해져,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기를 염원하는 룽따의 역할처럼, 그림의 바탕은 하나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다.

티벳 난민 2세대 작가의 정체성
2002년 미국서 새 시각 선보여

부처는 평화롭고 명상적이지만, 파괴와 죽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는 티벳의 전통적 불교 이미지를 해체하여 배경과 부처의 형상을 또 다른 상징의 방식으로 대체한다. 하나의 이미지가 반드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때로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릭돌의 '해체주의적(deconstructed)' 작업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사상적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세계는 당신들 눈의 맹점에 있다 My world is in Your Blind-spot, 2014〉 시리즈에서 나타난 부처의 이미지와 그 의미는 끝없는 '차이(différance)'로 제시될 뿐이다.

어떤 평론가는 여기서 개별적 자아를 초월한 '자기희생'과 '자비'의 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억압된 티벳의 현실과 관련된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읽기도 한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2009년 2월 27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스스로 분신하여 죽어간 155명 티벳인들의 절규를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박제화되고 진부한 클리셰와 같은 오늘날의 여타 팝 아트 작품들에 비하면, 릭돌의 작품은 팝 아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보는 이들에게 보다 강렬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는 저 불길은 사라지는 티벳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의 절규이며, 타국의 압제에 대한 노여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맹점'이라는 제목은 엄연히 존재하는 파괴적 현실에 대한 세계인들의 무관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라지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슬픈 일이고,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 사라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사라진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기에, 흔히는 드러내 놓고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나 체제의 힘보다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 깊은 울림을 만들어 낸다.

'사라짐'에 대한 깊은 사유는 릭돌의 작품세계와 근원적으로 맞닿아 있다. 현대인의 공허를 꿰뚫어 본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Baudrillard)가 '자신의사라짐의기초 위에서살지않는 것은아무것도없다. 그리고 만약 사물을 정말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라짐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그보다 더 나은 분석틀은 없다' 고 말한 것처럼, 2013년 한 인터뷰에서 릭돌은 이렇게 말했다.

"예술은 진솔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솔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것과 같다. 자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석해 본다면, (나의) 자아가 티벳에서 일어난 일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당신이 그러한 자아를 지켜본다면, 그리고 분석해 본다면, 나의 부모들, 조부모들 그리고 수 천 년의 전통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릭돌의 작업은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것들과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오래도록 사색하게 만든다. 그리고 스스로가 욕망하는 세계와 실재 세계의 진면목을 바라보도록 이끈다.

난민 2세인 작가 텐징 릭돌은 흙을 가지러 자기 아버지의 땅에 들어간 기억 외에는 티벳에 들어간 적도 없고, 살아 본 기억도 없다. 망명지 다람살라의 어린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슬픔과 기쁨을 대신하여 티벳의 흙에 감사하듯, 작가 텐징 릭돌 또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수십만 명의 티벳 난민들이 울리는 소리에 공명하는 작은 소리굽쇠 인지도 모른다. 기쁨과 슬픔은 서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릭돌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 오고 가는 기쁨과 슬픔을 바라보며 오직 텅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울리는 균형의 세계에 대해 말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대의 기쁨이란 가면을 벗은 바로 그대의 슬픔,
웃음이 퍼지던 바로 그 눈가에 때론 눈물이 채워진다.
슬픔이 그대 안으로 깊이 파고 들수록 그대의 기쁨은 더욱 커지리라.
그렇지 않겠는가.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그 잔이 바로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아닌가?
칼로 후벼 파낸 그 나무가 그대의 영혼을 달래는 피리가 아닌가?

칼릴 지브란

〈미술학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기에너지체=기공)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www.dongsanbud.net

2019년 55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5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1. 대승불교 2. 정토불교 3. 화엄경 4. 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5 불교문화 6. 선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교수 정성준교수 이미령교수 정엄스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2년차	과목	7. 근본불교 (아함경 2) 8. 반야사상 9. 유식사상 10. 인도불교 11. 중국·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최봉수교수 이미령교수 묘주스님 정성준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김상영교수 차차석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8월 1일부터 ■ 문의 :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학과별 개강	• 불교다도학과 9월 3일(화)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3년과정
	• 전통범패의식반 9월 4일(수)오후2시	• 한글불교의식반 9월 7일(토) 오후 2시, 4시

대학원	불교학과 (화) : 화엄경 (2)	: 정엄스님	9월 3일(화) 오후 7시
	불교학과 (화) : 보살사상과 관세음보살	: 이미령교수	9월 3일(화) 오후 8시 20분
	불교학과 (목) : 디가니까야 (장아함경)	: 최봉수교수	9월 5일(목) 오전 11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양심이란 나를 지키는 '방패'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⑮ 바람과 깃발과 마음의 차이



그림 · 박구원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가?

얼마 전에 원고 하나를 끝냈다. 대략 6백 매쯤 되는 분량이었는데, 초고를 마무리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다. 지난 4월달쯤에 말로만 듣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수십년 동안 정리해뒀던 모든 한글 원고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당연히 준비하던 수많은 원고들이 증발했다. 백업을 해 놓은 외장하드마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함께 오유(烏有)로 돌아갔다. 파일을 망쳐 돈을 뜯어낸 뒤 복구해주는 해커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지 그런 일이 내게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무나 중요한 원고가 많아 어떡하든 복구할 방법을 찾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해커를 찾아 몇백 만 원의 현찰을 지불하면 백신을 받을 수 있다지만, 가능성은 반반이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며 포기하라는 충고만 들었다. 결국 나는 기왕의 원고는 다 날렸고, 쓰던 원고는 다시 원점에 써야 했다.

그런 일을 당하니, 날벼락이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양심(良心)의 문제가 떠올랐다. 그 해커는 그 일도 일종의 직업이라 생각하며 남의 파일을 망가뜨렸을 것이다. 피땀 흘려 배운 기술로 벌어들인 정당한 대가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배려가 없었다면-대가만 지불하면 원상복구해주니 금전적인 피해 외에 당한 사람도 별 손해는 없다고 자위했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쌓아둔 원고를 날리는 대재앙을 당했고,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해커는 일원 한 장 손에 넣지 못했다. 다시 원고를 쓰면서 글이 잘 안 나갈 때마다 내 가슴 한켠에서는 그 해커에 대한 증오심이 활활 불타올랐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해커가 살아생전에 지옥불에 떨어져 지글지글 온몸이 튀겨지라고 저주를 퍼부었다.(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다마호사(多魔好事)(?)라고 그 낭패를 당한 뒤부터는 철저하게 원고를 백업 받는 버릇이 생기긴 했다. 너무 강박적으로 백업을 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글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백업은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얘기가 한참 빗나갔는데, 내가 마무리한 원고는 고려 왕조가 망했을 때 절의(節義)를 지켜 은둔했던 한 사람의 삶을 추적하는 내용이었다. 농은(農隱) 민안부(閔安富, ?-?)라는 분인데, 그는 과거에 합격하고 고려말에 예의판서(禮儀判書)라는 관직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가 망하자 뜻을 함께 한 동지들과 함께 개성 근처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다. 모두 72사람이 동참해서 '두문동 72현(賢)' 으로 불린다.

민안부 선생은 두문동을 거쳐 원주에 있던 변혁사(變革祠)로 갔다가 다시 지리산 배록동(排祿洞)에 잠시 머문 뒤 경남 산청(당시는 산음[山陰])군에 정착해 은둔의 일생을 보냈다. 소처럼 여생을 농사만 지으면서 살았고, 보름과 그믐이면 산에 올라 개성을 바라보며 추모의 정을 되새겼다고 한다.

이 분에 관한 기록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해지는 것이 없다. 직접 쓴 글도 온전한 것은 시 한 편이 전부다. 5언절구의 아주 짧은 작품이다.

옳지 못한 부귀란, 不義之富貴
내게는 뜬구름과 같다네. 於我如浮雲
돌밭에 왕씨의 봄이 있으니 石田王春在
호미 들고 아침저녁으로 김매리라. 携鋤朝暮耘

농은 선생이 이 시를 지을 때의 심정이 글을 쓰면서 한시도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허리를 숙여 조선 왕조에 귀의했다면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후손들도 복록을 누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한때의 편안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양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헛된 명예나 푼돈 얼마에 팔기에 그에게는 양심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다. 그래서 농은 선생은 6백 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마음을 울리는 '참된 사람' 으로 기억되고 있다.

신념인가? 망상인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역설했다는데, 사람이 "양심의 인도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란다. 또 힌두교 신자들은 양심을 "우리 내부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으로 생각했단다.(다음 백과사전 '양심' 편에서 인용)

우리는 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양심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양심이 밥 먹여주냐?"는 씁쓸한 항변이 있는 것처럼 양심을 지키고 살면 사는 게 몹시 피곤해지는 게 우울한 현실이다. 당장 양심을 꺾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한다면 물질적인 부귀와 정신적인 찬사가 내 집의 곡식창고와 마음창고를 가득 채운다. 이 유혹에서 누가 완전히 자유로울까?

그러나 때로 역사를 살피노라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 양심을 위해 많은 이익을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을 발견하곤 한다. 내가 그런 현실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가정이라 해도 내가 과연 양심을 지키고 고난을 감내하기보다는 양심을 버리고 한때의 행복에 몸을 던질 듯하기에 그런 분들이 소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진다.

> **금강석 보다 든든한 파수꾼**
> **공자도 행복지름길로 일러**
> **양심의 시대 다시 회복하자**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의 네 부대가 자신을 둘러싼다 하여도 자기를 보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으로 보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과 입과 뜻이 착하면 비록 네 부대가 없어도 자기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으로 보호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으로 보호하는 것이 밖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진영 엮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43쪽, 불광출판사, 2019)

이 말씀은 〈별역잡아함경〉 제3권에 실려있다고 한다.

이 말씀에서 부처님은 자신을 위험에서 구할 진실한 무기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코끼리, 기마, 전차, 보병 부대가 나를 겹겹이 에워싸도 그것이 진정한 호신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몸을 지키는 것이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돌파력은 무소부지(無所不至)다. 천군만마가 철옹성을 쌓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은 허깨비도 되지 못한다.

부처님이 열거한 '몸과 입과 뜻' 이 착하다는 것은 바로 '착한 양심' 을 달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는 돈으로 처바른 경호원도 아니고, 괴성을 지르며 지지하는 한 줌의 무지한 군중도 아니다. 금강석보다 단단한 양심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파수꾼임을 부처님은 일깨우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난 마물(魔物)이 아닌 다음에야 양심이 울리는 준엄한 질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나 상황을 들어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기 마련이다.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의 일화에 보면 깃발과 바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두 스님이 찰간대에서 펄릭이는 깃발을 보면서 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이라 했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라면서 서로 다투었다. 이를 들은 혜능이 '흔들리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 이라고, 벼락같은 진실을 일러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양심이 흔들리거나 유혹에 굴복하고 싶을 때 흔들리는 것은 양심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양심을 잃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내 내면의 신(神)을 배신하는 모독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는 〈논어〉 술이편(述而篇)에서 이런 말을 했다.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구나. 옳지 못한 일을 하고서 부유해지거나 고귀한 자리에 오르는 일은 나에게는 하늘의 뜬구름과 같을 뿐이다.(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앞서 읽은 민안부 선생의 시가 보여준 양심의 갈파도 공자의 이 말에서 울려나온 것이다. 도의를 저버린 부귀영화보다는 양심을 지킨 가난이 더욱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뜻이 새겨진 말이다.

맹자(孟子)는 양심이라 직접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불인지심(不忍之心)이라는 말을 썼다. 인간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왕이 희생으로 쓰일 소의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차마 죽이지 못해 양으로 대신했다는 일화에서 나왔다. 소나 양이나 목숨은 다 소중한데, 바꾸었다고 무슨 차이일까? 그런 의문에 맹자는 소의 울음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불인지심이 발동했지만, 양의 울음소리는 듣지 못해 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으로 사람을 대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라 불리는 사단(四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양심에 어그러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갈파했다.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은 양심이다

자신이 어려움에 놓여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들 한다. 잘 나갈 때면 다들 그 혜택의 단물을 핥고자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단언한다. 그러나 좌절에 빠지고 위기에 허덕일 때 대개 입으로만 우정을 말하던 친구는 등을 돌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민데도 위기에 빠져 있다.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 길로 나가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뇌까리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다 못해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엄마부대 대표라는 사람과 전 서울대 교수라는 이, 그리고 광기의 발언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개신교 목사들. 자민당 정권의 아베 총리가 내짖는 단말마의 비명은 집안 대대로 양심을 팔아먹은 내력을 가졌으니 그러려니 싶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이들은, 사람으로서 양심을 내팽개쳤고, 학자로서 양심에 비수를 찔렀으며, 신앙인으로 양심을 사탄과 바꾸어버린 듯하다. 이들의 표정과 말에서 악마의 얼굴을 읽은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새삼 내 양심의 실존을 돌아보게 되는 요즘이다. 〈소설가〉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체부 공모 사업인
«2019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접수 후 사무국 통화

접수방법 이메일 : jabi3719@daum.net
전화 : 사무국 02)737-7378
팩스 : 02)737-8802

사전 공지 사항

1. 본 프로그램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방식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프로그램의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2. 꿈 알 프로그램은 야외 체험수업이지만 개별 일일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고 시 개별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집대상(인원)	운영일정	장소(지역)	진행내용
차명상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게이트 키퍼 (15명 내외)	• 8주 과정 • 2019년 9월 20일부터 • 매주 금요일 19:00 ~ 21:00	통담아카데미 (서울)	오감 차명상, 관불세심, 별처럼 듣기, 나누기, 선차무, 녹차 팩
부정적반추의 전환을 통한 자살예방 명상 프로그램	우울증 위험군 (12명 내외)	• 8회기 • 2019년 9월 2일부터 • 매주 월요일 10:00 ~ 11:30	리숨명상센터 (서울)	집중호흡, 긍정적 감각 알아차리기
오늘, 인생 1일차!	자살 유가족 및 자살의도 및 시도자, 위험군 (12명~15명)	• 8회기 • 2019년 9월 20일부터 • 매주 금요일 14:00 ~ 16:00	불교상담개발원 (서울)	호흡명상, 인생그래프 그리기, 생애사건 기억 애도하기
꿈 알	중학생 (16명 내외)	• 8회기 • 2019년 9월 4일부터 • 매주 수요일 오전 / 오후	성북구 사찰 (서울)	숲의 생명체와 교감, 알아차림 명상 예술요가 명상, 잠재의식 꿈 알 키우기 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

* 본 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화선 '無字' 화두 전한 선지식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⑮ 조주 고불 선사

닭 우는 축시(丑時)
가난한 마을인지라, 절 꼬락서니는 말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 마지 공양은 그만두고, 아침 죽 끓일 쌀알조차 없으니
창문 틈새마다 수북이 앉은 먼지나 바라볼 밖에…
반갑지 않은 참새만 짹짹대고, 친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혼자 앉아 낙엽 지는 소리를 듣는다.
누가 말했던가! 출가자는 애증(愛憎)을 끊는 거라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 손수건을 적신다.

해가 높이 뜬 사시(巳時)
머리 깎고, 이 지경에 이를 줄을 누가 알았으랴
어쩌다 청을 받아 들여, 시골구석 중이 되고 보니
굴욕과 굶주림, 처량한 신세에 죽을 지경이다.
키다리 장삼(張三)과 껌둥이 이사(李四),
그들은 눈꼽만큼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아까는,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서는
'차 꿔달라', '종이 꿔달라' 때만 쓰고 가더라.

–〈조주록〉

위의 선시는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의 '12시가(十二時歌)' 중 일부이다. 12시가는 자시부터 해시까지 12단락으로 나누어진 시구이다. 근엄한 선사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 드러나 있어 정감이 간다.

조주는 지난회의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의 제자이다. 조주는 산동성(山東省) 조주(曹州) 출신으로 어려서 조주의 호통원(扈通院)에서 출가하였다. 이후 남전의 제자가 되어 법맥을 받았다. 그는 80세까지 행각을 하다, 80세가 넘어서야 하북성(河北省) 조주현(趙州縣) 관음원에 주석했다. 조주는 이 관음원에 머물며, 세납 120세의 장수를 누린 선사다. 조주가 스승 남전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이었다.

남전선사가 양지바른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미승 조주가 찾아 왔다.

남전은 조주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서상원(瑞像院)에서 왔습니다."

"서상이라! 그럼 상서러운 모습을 보았는가?"

남전은 조주의 의중을 떠보았다. 그러자 조주가 대답했다. "아뇨, 상서로운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다만 와여래(臥如來)를 보았습니다."

남전은 '이 놈이 보통 사미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다시 물었다.

"자네는 임자가 있는가(스승이 계시는가)?"

사미 조주가 "네,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다시 남전은 "임자가 어디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조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전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아직 추운 계절인데 스승님(남전)께서 존체 만복하시니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공안, 화두에는 조주의 선문답이 많이 있다. 조주의 선문답은 간화선의 종문서인 〈무문관〉과 〈벽암록〉 등에 전한다.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보기로 하자.

한 수행자가 조주에게 물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모두 내려놓아라(放下着)."
"이미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着得去)."

–〈오가정종찬〉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관념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곧 무심의 경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무심이라는 것조차 마음에 들고 있다면 결국 집착과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를 찾아와 말했다.
"저는 방금 이 곳에 왔습니다. 큰스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죽은 먹었느냐?"
"예"
"그럼 밥그릇이나 씻어라(洗鉢盂去)"

–〈무문관〉



중국 하북성 조주현 백림선사 전경. 조주가 머물 당시에는 관음원이라고 칭했다.

남전 법맥이어 받은 조주 선사
80세에 하북성 관음원 주석하며
禪法 전파하다 120세에 열반해

'벽암록' 공안 12개가 조주 연원
대혜종고 등 '무자' 화두 중시해
조주로 인해 선사상은 풍부해져

한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스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오줌 좀 눠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도 몸소 이 늙은이가 해야 하는구나"

–〈조주록〉

하루는 성덕군(成德郡)의 절도사 조왕(趙王)이 조주를 찾아왔다. 마침 조주는 선상위에 앉아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소승이 어려서부터 일을 많이 해 노쇠해서 선상에서 내려오기 힘듭니다."

조왕은 조주에게 정중히 예를 올리고 떠났다. 다음 날 조왕은 한 장군에게 명을 내려 조주에게 소식을 전했다. 장군이 와서 조주에게 예를 올리자, 조주는 선상에서 내려와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다. 이 점을 괴이하게 여긴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어제 왕이 왔을 때는 선상에서 내려오지도 않더니 오늘 장군이 오니까 선상에서 내려와 영접하시네요."

"일등 가는 사람이 오면 선상에 앉아 맞이하고, 중등 가는 사람이 오면, 선상에서 내려와 맞이해야 한다. 하등 가는 사람이 오면 대문 밖까지 나가 맞이해야 한다."

조주가 조주에서 40여 년 관음원에 있는 동안 조왕은 몇 차례 왕부(王府)로 청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조왕은 조주에게 사찰을 지어 공양 올렸으나 이 또한 받지 않았다. 이런 조주의 덕성을 알고 있던 조왕이 소종(昭宗, 888~904 재위)에게 상소를 올려 조주는 가사와 진제대사(眞際大師) 시호를 받게 되었다.

조주가 조주성의 관음원에 머물고 있을 때, 승려가 찾아와 물었다.
"'조주', '조주'하는데 조주란 본래 어떤 겁니까?"
"조주에는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으며,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지(趙州東西南北)."

–〈벽암록〉 9칙

또한 제자들이 찾아와 법을 물으면 이 절에 처음 온 승려이든 두 번째 온 승려이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去)"

한번은 원주가 물었다. "왜 스님께서는 처음 왔든 두 번째 왔든 똑같이 '차나 마시라'고 합니까?" 그러자, 조주가 "원주"하고 불렀다. 원주가 대답을 하자, 선사가 말했다. "차나 한잔 마시게."

–〈오등회원〉

한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달마조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를 가리키며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柏樹子)."

〈무문관〉

실제로 백림선사 도량에는 잣나무 두 그루가 아름드리 서있다. 사찰 이름 '백림(柏樹)' 도 위의 공안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조주의 끽다거 공안으로 인해 백림선사는 다선일미의 대표되는 사찰이기도 하다. 백림선사는 하북성(河北省) 조주현(趙州縣)에 위치한다. 원래 이 사찰은 관음원(觀音院)으로 칭하다가 원나라 때부터 현재 이름인 '백림선사' 로 불리었다.



백림선사 도량에 모셔진 조주선사 사리탑.

또한 백림선사에서 4Km 떨어진 곳에 조주교(趙州橋)가 있다. 이 다리는 수나라 때 이응이 건설하여 안제교(安濟橋)라고 불리다 현재 '조주교' 라고 불린다. 당시 장인들의 축조술이 뛰어나 지금까지도 귀중한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 조주교와 관련된 조주의 일화가 있다.

한 학인이 와서 물었다. "조주의 돌다리 소문을 들은 지가 오래인데 막상 와서 보니 외나무다리 뿐이군요."
그러자 조주가 말했다. "그대는 외나무다리만 보았을 뿐, 돌다리는 보질 못했군."
다시 학인이 "어떤 것이 돌다리(趙州石橋)인가"라고 묻자 조주는 답했다. "나귀도 타고 말도 건너지."

–〈벽암록〉

조주는 120세로 열반에 들며,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사리를 줍거나 탑을 세우지 말라고 하여 유언이 지켜졌다. 그러다 원나라 때(1330년), '조주고불진제광조국사탑(趙州古佛眞際光祖國師之塔)' 이 건립되었다.

조주선의 선종사적 위치를 정리해보자. 첫째, 〈벽암록〉에 전하는 공안 가운데 12개가 조주의 공안이다. 또한 〈무문관〉의 1칙인 무자(無字) 화두는 화두 가운데 간화선의 가장 긴요한 핵심 화두이며, 간화선 행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화두이다.

조주의 무자화두를 처음 주목한 사람은 오조법연(?~1104)이다. 〈법연어록〉의 상당법어에 이런 내용이 전한다.

"여러분들은 평소 어떻게 참선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단지 무자만을 참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무자 하나를 투과하여 체득한다면 천하에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주의 이 무자를 어떻게 투과할 것인가? 이 무자를 투과한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나와 대답해 보라. 나는 여러분들이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없다는 대답도 바라지 않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외에도 대혜종고 · 무문혜개 · 몽산덕이 등 역대의 간화선자들도 이 화두를 중시했다.

둘째, 조주는 청빈한 삶을 자청했지만, 조주로 인해 발달한 선사상은 매우 풍족하다. 당대에 '남설봉, 북조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쪽에는 설봉 의존(822~908), 북쪽에는 조주라는 큰 선지식으로서 당대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또한 옛 부처가 다시 출현했다고 하여 선종사에서 선사를 '조주 고불(古佛)' 이라 칭한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옥천범음대학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19학년도 2학기 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학과정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과정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전형일정 2019년 8월 22일 (목) ~ 8월 29일 (목)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신입 및 수료 과정

1학년 [상주권공 I] 수요일
교수내용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교수 김태호 스님 모집인원 편입생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II] 월요일
교수내용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교수 조인각 스님 모집인원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목요일
교수내용 각배과정
교수 이기봉 스님 모집인원 편입생 약간명

4학년 [영산] 금요일
교수내용 영산과정
교수 조현성 스님 모집인원 편입생 약간명

불교의식 이론 화요일
교수내용 불교의식(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교수 심만춘 스님 모집인원 *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www.okchunbud.kr |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 Tel 02)392-3234, Fax 02)392-3239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개강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번뇌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극복해야



新 불교사자성어

㉙ 확탕노탄(鑊湯鑪炭)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체감온도 39도. 가히 화탕지옥이다. 조만간 지구를 녹여 없앨 기세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새로운 뉴스가 아닌 오래된 뉴스가 되었다.

이렇게 날씨가 찜통, 불볕더위로 시달릴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피서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문제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온 세상이 열탕,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심산유곡이나 바닷가로 가자니 교통 체증이 여간 심한 게 아니다. 게다가 바가지요금은 더위를 한껏 부채질한다. 피서가 아니고 고역이다.

'확탕노탄(鑊湯鑪炭)'은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이라는 말인데, 고통이 극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와전되어 '화탕(火湯)노탄'이라고도 한다. '확탕(鑊湯)'은 팽형(烹刑)으로서 예전에 사람을 가마에 넣어서 삶아 죽이는 형벌을 이르는 말이다. 팽형은 〈삼국지〉나 중국 고대 문헌인 〈통감〉 등에도 종종 나온다. 죄인을 뜨거운 가마솥에 넣어서 삶는 형벌인데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형벌이다.

확탕, 팽형과 관련한 유명한 '칠보시(七步詩)'가 있다. 위나라 문제(文帝) 조비(曹丕)는 동생 조식(曹植)의 재주와 시문(詩文)을 항상 시기, 질투했다. 조비는 동생 조식을 죽이고자 일곱 걸음을 걷는 사이에 시를 지으라고 했다. 만일 7보(步) 사이에 짓지 못하면 팽형에 처한다는 특별법을 발동했다. 이제 동생 조식의 운명은 형 문제의 칠보에 달린 그야말로 슬픈 운명이 되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일곱 번째 발자국이 놓이자마자 조식은 오언(五言) 시를 지었다.

煮豆燃豆萁(자두연두기), 豆在釜中泣(두재부중읍), 本是同根生(본시동근생), 相煎何太急(상전하태급).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네, 콩은 가마 안에서 우네, 본시 한 뿌리인데, 어찌 이렇게도 급하게 볶아댑니까?"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눈물 쏟아지는 고사이다.

그리고 '로탄(鑪炭)'은 화로인데 용광로를 말한다. 과거 용광로는 숱(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확탕노탄(鑊湯鑪炭)'을 흔히 '화탕노탕(火湯爐蕩)'이라고 쓰고 있으나 확탕노탄의 와전이라고 생각한다.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불화(火)'자를 사용해서 '화탕(火湯, 불 속)'으로 쓰게 된 듯하다. 끓는 가마 속이나 불 속, 그리고 용광로 같은 곳이라는 뜻으로, 지옥 또는 현실이 매우 지옥 같음을 상징한다.

지옥 가운데 화탕지옥도 있다. 화탕지옥은 '불지옥'이다. 죄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불 속에 넣는다고 한다. 죽을만하면 꺼내고 집어넣기를 반복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악행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강원의 교과서인 〈서장(書狀)〉은 대혜 선사의 편지글(서장)을 모은 책이다. 유시랑(劉侍郞)은 당시 장관급의 고급 관료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치열하게 타오르는 번뇌를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듯하다. 이에 대하여 대혜 선사는 선승다운 명답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거사님)예전에 어떤 젊은 수행승이 노(老)선승에게 이렇게 물었소.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에 가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노선승이 말씀하셨소. '확탕노탄(鑊湯鑪炭, 가마솥과 용광로 속)' 속에서 피하시오.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피한다는 것입니까?' 노선승이 말했소. '그 속에는 갖가지 고통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衆苦不能到).'"

치열하게 타오르는 번뇌 망상 극복 방법을 물었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에서 피하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고도 훌륭한 명답이다. 산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세속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런 수행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환경적인 치유일 뿐이다. 번뇌는 정념(正念, 淨念)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번뇌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극복해야 한다. 이열치열. 현실을 떠나서 번뇌를 극복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번뇌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번뇌를 괘념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괘념하면 그 즉시 번뇌에 끌려 다니게 된다. 속칭 신경을 끊는 것이다. 그러면 번뇌는 저절로 극복된다. 아니면 확탕노탄 속밖에 없다. 그 속은 500도 이상이 되어서 갖가지 고통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衆苦不能到).

〈윤창화 민족사 대표〉

도적 말 타고 도적을 쫓는 격



격절록 강설

㉙ 제10칙 서당난각 2

[評唱 2]

更云 我去彼中 偷得甚物來 乃在這裏賊贓已露. 這僧致箇問端一似如此. 却將去問西堂和尚云 "有問有答 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堂云 "怕爛却那" 古人太煞慈悲 有時孤峯頂上垂手 有時荒草裏橫身 他道 "怕爛却那" 奇特不妨親切.

다시 또 말했다. 내가 저 안에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 오면 여기에 도둑질한 물건이 드러나게 된다. 이 스님이 물은 것도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물음을 가지고 도리어 서당에게 가서 말하기를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에) 서당은 말하기를 "문드러져 없어질까 두려운가?"라고 하였던 것이다.

고인은 아주 자비로워서 어떤 때는 고봉정상에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친 풀밭에 몸을 가로 누이기도 한다. 그가 말한 "문드러져 없어질까 두려운가?"라고 한 것이야말로 기특하면서도 대단히 친절한 것이었다.

這僧却更去問長慶 慶云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 這僧分明去問 是有問有答了 更說什麼如何若何. 惹得長慶恁麼道 又且得不辜負他來問處. 雪竇拈云 "何不與本分草料" 也是騎賊馬趂賊.

이 스님이 다시 장경에게 가서 묻자, 장경이 말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관직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숲에서 언제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 스님이 분명 가서 물은 것에는 물음도 있고 답도 있었는데, 다시 (여기다가) 무슨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장경의 이런 말을 야기한 것 또한 더욱이 그가 와서 물은 것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설두가 염(拈)하기를 "어째서 본분초료를 주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역시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쫓는 격이다.

※장경의 답을 선문염송집 염송설화(제25권)에서는 당나라 강서(江西)의 절도사(使) 위단(韋丹)의 시에 동림영철(東林靈徹)이 답을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단이 영철에게 보낸 시

王事紛紛無暇日 왕의 일이 분분해서 쉴 날이 없지만 / 浮生苒苒只如雲 덧없는 인생 흐르고 흐르니 단지 구름과 같네. / 已爲平子歸休計 이제 평민(平子)이 되어 돌아가 쉴 계획이니 / 五老峰前必扣門 오로봉 앞에서 반드시 문을 두드리시오."

영철이 위단에게 답한 시

老年心閑無外事 노년에 마음이 한가롭고 바깥 일이 없으면 / 癡衣草座可容身 베옷 입고 풀방석에 앉는 것 몸이 용납할 수 있네. / 相逢盡道休官去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관직을 버리고(休官) 떠나겠다 말하지만, / 林下何曾見一人 숲에서 언제 한 사람이도 본 적이 있는가.

※선문염송집 제25권(고칙 1110)에서는 본 서당난각화에 대한 원오의 염拈.

"若問崇寧 有問有答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對他道 收得安南 又憂塞北"

"만약 숭녕(崇寧, 원오)에게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역력한데,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안남(安南)을 얻고 나니 또 새북(塞北, 북쪽 변방)을 걱정한다' 고 말하리라."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㉙ 이해의 길 9

고통과 행복의 길

〈유전연기〉 〈환멸연기〉

내가 좋아하는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는 대개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접촉 사고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기분이 상해서 친구와 술 한 잔 나누다가 옆 사람과 싸우는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급기야 폭행죄로 경찰에 연행되는 세 번째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접촉 사고의 영향력(業)에 이리 저리 흔들린 경우라 할 것이다. 이것이 중생들 삶의 모습이다.

12연기는 대상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과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명(無明)', 즉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중생살이의 근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 온갖 부산을 떨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른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무명 속에서 윤회하는 삶, 즉 무명으로부터 노사(老死)에 이르는 과정을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한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行)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識)이 있게 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유전연기는 고통의 길이며, 정신없이(mindless)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어디를 향하는지도,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리기만 했던 발걸음을 '한 템포 쉬고' 반조해보자. 그러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업의 실타래는 이때부터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을 지혜로 전환하여 괴로움을 일으키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먼저 무명을 끊고 계속해서 행, 식, 노사까지 끊어가는 것이다. '무명이 멸하므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므로 식이 멸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돌이켜 끊는 것을 환멸연기(還滅緣起)라고 한다. 유전연기가 고통의 길이라면, 환멸연기는 행복의 길이며 늘 깨어있는(mindful) 삶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즉 업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속상함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흐름을 끊고 조절할 수 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우리 자신은 깨어있기 때문에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사태를 합리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 무명이 아니라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미친 짓(Insanity)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업의 관성 때문이다. 마치 운전할 때 평소 갔던 길로만 가거나, 강의실에 들어가 같은 자리에만 앉는 것과 같다. 그 길로 운전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행위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의 행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위에서 예로든 접촉사고의 경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반복해왔던 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12연기의 목적은 업의 연결 고리를 끊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자기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업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자신을 보면서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명상이나 기도, 참회발원 등의 수행은 업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다. 이런 수행이 깊어지면 내 입에서 '아하, 그렇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럴 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

어느 불자의 고백이다. 운전할 때 차가 앞으로 끼어들면 습관적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곤 했는데, 불교를 공부한 후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배운 내가 참는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신화불사

매물안내

법당	3포 27평	3,000만원
종각	육모정 8자칸	1,200만원
사주문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	800만원
요사채	ㄱ자. 33평	3,300만원
대중간	45평	4,500만원
한옥	ㄱ자. 33평. 재부	1억 2천(신재)
사찰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35억
사찰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80억

☎ 010-3789-3327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개강일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강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6개월 과정
교육내용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수강자격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강료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010-3867-8419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2019 일연 삼국유사 학술문학제

군위 인각사, 제730주기 다례재도

군위 인각사(주지 정화)는 8월 8일 경내 국사전 앞마당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제730주기 다례재 및 일연 삼국유사 학술문학제를 개최했다.

주지 정화 스님은 "한나라, 한민족에게 있어서 문화란 국가 또는 민족이 수천 년을 지내면서 형성된 무형의 자산이며 전통"이라며 "우리 민족 문화 본류가 살아 도도히 흐르는 책속의 삼국유사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의 내용을 책 밖으로 꺼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산이며 이 시대에 나아갈 과제"라고 인사했다.

다례재는 식전공연에 이어 육법공양, 일연선사연보, 종사영반, 추모사 법어, 추모곡 순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 일연 삼국유사 학술문학제 논문발표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김은경 교수(영남대 국문학과), 이대형 조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 정성준 교수(위덕대 불교문화과),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이 상을 받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학술원 기금 1천만원 쾌척

홍윤식 명예교수, 불자대상 상금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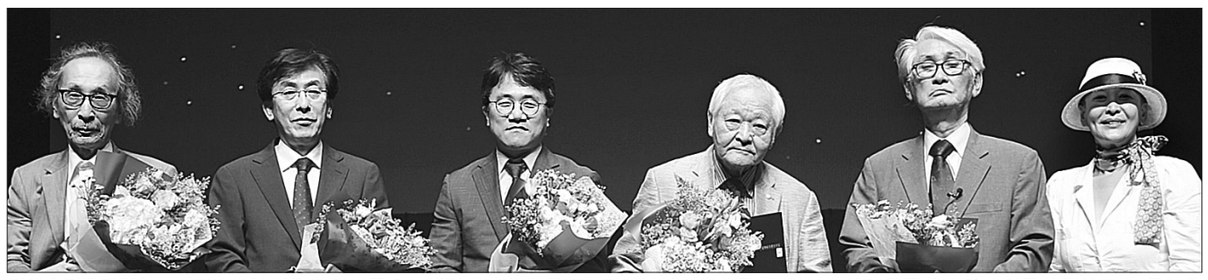
평생을 불교민속학 발전에 힘써온 원로학자가 동국대에 불교학 발전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8월 13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학술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원로학자의 기부는 지난 5월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 시 받은 상금을 동국대와 불교연구를 위해 쾌척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발전기금을 전달받은 이사장 법산 스님은 "은퇴한 학자에게는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면서 "한평생 학문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쓰고도 학교를 위해 마음을 써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부처님과 재직했던 동국대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불교학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중앙응급의료센터 정기현 원장 · 문성우 센터장, 임영웅 연극 연출가, 김우창 명예교수. 사진제공=동국대

"한일병탄 무효" 와다 교수 제23회 만해대상 평화상 수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2일 강원도 인제서 시상
"韓日 신뢰로 살아가야" 소감
중앙의료원 응급센터 실천대상
문예 임영웅 · 김우창 공동 수상

한일병탄은 무효임을 주장해 온 일본 대표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23회 만해대상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종호 · 동국대 기획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한일 간 골이 깊은 식민지배와 화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일본의 대표적 진보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선정 · 시상됐다.

올해 설연휴 윤한덕 前 센터장(1968~2019)의 갑작스런 순직으로 그 존재 가치가 조명됐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정기현 원장 · 문성우 센터장)가 만해실천대상을 받았으며, 만해문예대상에는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사는 단연 평화대상 수상자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였다. 그는 일본의 대표 진보 지식인으로,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5월 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골자로 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전쟁 후 평화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주장하며 살아왔다"며 "한일 양국은 상호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마지막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 故윤한덕 센터장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전국 의료 현장의 모든 의료진들 및 소방대원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 수상자인 임영웅 연극 연출가는 "문화예술에 몸담았던 지난날을 되돌아볼 계기가 됐으며 몸이 불편한데 소중한 격려가 됐다"면서 상금 전액을 연극인 복지재단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이어 문예대상 공동 수상자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만해 한용운 선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다.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에서 "만해 선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평생을 조국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지식"이라며 "오늘 자리는 선사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승가의 정진에 감사함 담아"

전주불교연합회 완주 위봉사서 제3회 우란분절 공승재 봉행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가 우란분절을 앞두고 '제3회 전주불교연합회 우란분절 공승재'를 봉행했다.

8월 10일 완주 위봉사(주지 법중) 위봉선원에서 열린 이번 공승재에서 전주불교연합회원들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중생의 행복을 기원해준 승가에 대한 공경과 보답이라는 우란분절의 의미를 되살려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지장전에서 봉행된 공승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공승, 법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김성규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공승재에는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을 비롯해 위봉선원 입승 선영 스님, 지객 성진 스님 등 스님들과 전주룸비니불교산악회 안준아 회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오종근 대표, 자연음식문화원 유정희 원장, 전주 우리는선우 김진철 회장 등 전주불교네트워크 소속 회원 60여 명이 동참했다.


완주 위봉사 위봉선원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전주불교연합회 회원들.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은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준비한 공양물이 헛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부처님의 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위봉 선원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법문을 듣고 20분간 입승 선영 스님의 지도아래 화두를 들고 참선했다.

입승 선영 스님은 참선에 앞서 "공양의 공덕으로 부처님 법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면 견성성불 할 것"이라며 "화두를 들고 선방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돌아보며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승재에 동참한 이정미 씨는 "오늘의 공승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는 스님들의 구도행에 대한 열정과 용맹정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선방에서 앉아 참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8월 치료비 전달

8월 7일 법인사무실서 정유희 씨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7일 법인 사무실에서 8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정유희(가명, 여, 44세) 씨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최상균 생명나눔 사무총장이 심인혜 H+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으며 "어려운 환자들을 발굴해 환자치료비 심의에 추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신나는 사찰 어린이캠프"

수원 보현선원, 제2회 어린이 새싹 여름캠프



수원 보현선원(회주 성관)은 8월 1~3일까지 '연꽃세상 로터스월드와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새싹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여름캠프는 성관스님과 함께하는 참선명상을 비롯해 발우공양 체험, 예불, 연등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 불교 ·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선원 내 야외 워터파크를 설치해 물놀이 시간을 보냈다.

신성민 기자

"법사학인 신심 · 자질 높여"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8기 하계수련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8월 3~4일 경기도 안성 영평사에서 법사학인들의 신심고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제28기 법사학인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법사대학에 재학 중인 법사과정 학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총 50명이 동참해 정진했다. 또한 학사규정과 학업과정에 따라 법사교육에 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련교육도 실시됐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7호 | A13 | 전면광고

너희는 여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경할 것이요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 ◆ ◆
1.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2.개인 비영리 법인 등록
3.종교법인 등록
◆ ◆ ◆
010-9476-9001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불광 특수 기도
이 세상이 내 손안에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 〈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010-9422-1233
경남종무원 - 창원 010-4582-3366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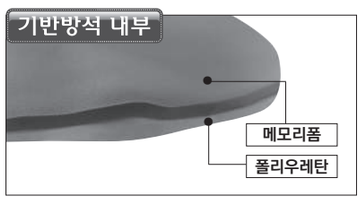
모셔드립니다
스님 입적하신 후 모실 곳이 없는 스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공주 지장사
010-5363-3755

구 인 광 고
• 기도 부전스님 구함
• 행자. 처사 구함
부산 현대불교 금정원
010-3840-4355

극락도량
극락도량에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55세 미만
010-6536-0120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주풀이(모집)
효보당 108 사주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3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통 풍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통풍에 도움주는 식품 액상차로…
1달분 30만원
충남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435 【약선 건강원】
010-9707-5512 인덕스님

5층 허공사리탑(7m)
사리부도탑(개별양도)
- 경봉스님 달마
- 불교유물 20가지
- 임환경스님 병풍10폭
- 다도 무쇠주전자 200여점
- 일타스님
- 지장보살 6m 입상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136 | www.jijangsw.com
지장암 010-8585-4908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사실 분 신심있는 비구니, 보살님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50세 이상. 보수없음
• • •
충남공주 포교당. 산 밑 아늑한 분위기
010-3008-1269

배우자 구함
저는 결혼에 실패한 41세 전문대졸 불자여성입니다. 인생 후반에 참다운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불자님 중에서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010-4327-2134

지장성모암 동참할 분
- 23평 개인암자 건축비 3천-5천만원
- 지장보살어머니 • 소불. 대불. 가족불
- 토속불교처럼 수행마을처럼
- 충북 옥천 마니산 양백봉 아래
우체국 300517-01-001518 조계종만불교종책원
043-744-999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요사채/누각
산신각/한옥별장/재실/펜션
(육송 목제 사용)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10번길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 이민과(원명)
054-636-2509
010-4300-910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7호 | A14 | 전면광고

그 성질이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면
현인이나 우인이나 모두 따르고, 탐심 많고
거칠면 사람도 짐승도 모두 멀리 떠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4 수원빌딩 2층 은혜사
● 총 평수 60평 ● 최상의 위치. 북한산 입구
● 전세 보증금 3억 / 시설비 1억 5천

연락처 010-5384-6063
신도회장 010-2763-276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특징 : 전통사찰

◎ 위치 : 충남
◎ 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5천만원 정
◎ 특징 : 산밑사찰,시내교통 편리,여건좋음,창건주 승계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 35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 12평
● 요사채, 방 3개, 목조단청 19평
● 공양간, 방 1개, 7평 목조단청
● 화장실(남,여), 목조단청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서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20평
● 건물 : 지하 1층 - 창고형 / 1층 - 공양간(큰방 2개, 대형주방, 화장실) 2층 - 방 3개. 화장실 /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옥상 : 소각장 설치. 다용도로 사용
● 답사하실 분만 연락요망(사찰연력 40여년)
● 가액 : 3억 3천 5백만원(인연있는 분 절충가능)

010-8360-8259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 3층 건물 중 2층 전체
●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급)사찰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총 2억 5천만원

010-4628-56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 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7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 2층. 40평. 방2개. 공양간. 화장실 창고. 베란다. 시설완벽함
●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할 수 있음. 금액 조정가능

010-9395-6675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 옥산면
● 대지 : 420평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부속건물 : 삼성각. 관음전
● 석가모니. 아미타불. 미륵석불
● 녹차밭 300평
● 가액 : 1억 8천

010-3906-3711

토굴안내

● 위치 : 충남(대전-세종 3~40분.IC인접)
● 대지 : 약 200평. 텃밭 200평(문중 소유). 각종 유실수 및 조경수 식재
● 법당 : 컨테이너(삼존불. 각종 탱화 조성)
● 요사 : 약 20평(현대식 올수리).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구비
● 가액 : 3천 8백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0-3977-2123

일본포교당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 스님,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토굴안내

● 위치 : 함양군
● 답 390평
● 황토방1. 부엌1. 전기수도
● 차량 진입불가
● 가액 : 3,200만원

010-4504-6565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3억 5천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4억5천은 10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보증금 5천/월 100만원. 임대후 추후 인수 가능

010-9647-0723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자락
● 친환경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 뒤 소나무. 10대 이상 주차 가능. 주차장 완비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미륵암 내 빈 독채,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텃밭. 농사 지으실 분
● 가액 : 보증금 100만 / 월세 20만

011-759-0183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6431-040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3층 건물 중 2층
● 방2칸. 33평. 칠보 삼존불(지장.아미타.관음) 신중
● 산신 칠성.영단.소불 50불. 인등. 시설 완벽함
● 아파트 단지 내 시장 5분거리 ●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집기일체 1700만원
● 보증금 1천 /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052-222-6888
010-7612-89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약 80평. 임야 15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방2. 거실. 공양간 / 2층 법당
● 부속건물 : 산신각. 조립식 건물(서재. 창고)
● 가액 : 1억 9천(대출 6천)

010-4824-7534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혐 기도터
●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편백나무 3천그루 (풍수명당 길지) ●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 가액 : 5억(대출 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 계약 시 1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2억(5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 보증금 5천/월50만원. 임대후 불사하셔서 인수 가능

010-9647-072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토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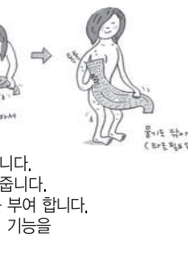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37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 대지 400평 (주차장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심야보일러
● 마당에 지장보살 입상
● 가액 : 2억

010-3671-536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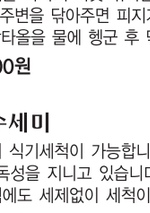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日, 24시간 무인 템플호텔 선봬

일련종 쇼덴지, 신도 감소에 사찰운영 돌파구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전국에는 7만7000개소 이상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사찰이 편의점보다 많다고 전해지지만, 그 중 30% 이상의 사찰은 신도 감소 등의 이유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한 사찰이 24시간 무인호텔을 개시해 화제다. 이 흥미로운 소식을 8월 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엑사이트재팬' 등이 보도했다.

도쿄도 미나토(港)구에 소재한 일련종 사찰 쇼덴지(正傳寺)는 지난 7월 25일 사찰경영 전문 업체 '셰어윙사'와 합작, 완전 무인화 시스템을 적용한 '템플호텔 쇼덴지'를 오픈했다. 호텔을 오픈한 쇼덴지의 주지, 타무라 사다히로 스님은 "5년 전부터 사찰의 신도가 감소하고, 사중에서 관리하던 묘지들이 차례로 무연묘가 되면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무인호텔 개업의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텔을 개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숙박업을 위한 새로운 인력고용, 시설유지비용에 대한 여유가 없었기에 AI를 사용한 무인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숙박객은 입구의 TV화면을 통해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물론, 경내의 법당이나 회의공간도 예약할 수 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만큼 사경과 염주 만들기 같은 불교 체험활동도 신청할 수 있다. TV화면엔 비구니스님의 아바타가 나타나 스태프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아바타와 AI프로그램은 템플호텔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다. 또 무인화 시스템과 맞춰 24시간 언제나 숙박객에 응대할 수 있다.

호텔 부대비용 절감 위해서
AI 도입해 숙박객 응대 나서
사찰 슈쿠보 모티프로 건립
지역대학과 프로젝트 연계도

셰어윙사는 템플호텔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찰의 숙박시설인 슈쿠보(宿坊)를 모티프로 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유치와 교육환경의 제공, 일손 부족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가능성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셰어윙사는 이곳 쇼덴지 외에도 2017년에 기후현(岐阜県)에 소재한 사찰 젠코지(善光寺)에 템플호텔을 개설한 바 있다.



도쿄에 개업한 24시간 무인호텔 템플호텔 쇼덴지. 사진출처=엑사이트재팬

한편 템플호텔 쇼덴지는 지역대학인 토요가쿠인대학(東洋学園大学)과 산학연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동 대학의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총 10개의 팀은 각자 사찰과 그 주변 환경 등을 조사, 호텔에 어울리는 체험활동과 경영방법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설법과 명상체험을 시작으로, 사찰에 모셔진 불보살을 모티프로 한 상품개발 등이 제안 됐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혼조 카요코 교수는 "사찰의 강점을 살린 젊은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수팀의 기획을 호텔에서 직접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조 교수는 "이를 통해 지금껏 없었던 사찰 산업마케팅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도 "지금까지 인연이 없었던 사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찰이라는 귀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공헌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쇼덴지와 셰어윙사는 "사찰과 사회가 함께 나아가며, 사찰과 인연이 된 모든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사찰의 원점회귀' 로서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앞으로의 운영기조를 전했다.

그림 한 점에 소송 당한 美대사관

'환경보호 미술전' 작품 중 불교모독 논란

미얀마의 불교민족주의자들이 "불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주 미얀마 미국대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기각돼 화제다. 8월 1일 미얀마의 인터넷 언론 '이라왓디'는 소송과정과 기각사유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주 미얀마 미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환경보호 미술전이다. 양곤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신진작가들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SNS를 통해 홍보됐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 가운데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이라는 그림에 논란이 일었다.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작품에
방독면 쓴 부처님 실루엣 나와

그림은 방독면을 쓴 부처님 실루엣을 뒤로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들이 묘사됐다. 작가는 "공장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삼림을 파괴해 국민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으로서 공장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림이 게시되자 미얀마 불교계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부분 "부처님과 불교를 모독하고, 주최국인 미얀마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부처님의 이미지에 방독면을 씌운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홍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인 대사관이 SNS에 이 그림을 게시한 것은 미얀마 내부에 종교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논란이 된 작품 '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미 대사관은 현재 SNS에서 해당 작품사진을 삭제했다. 사진출처=이라왓디

한편 불교민족주의자로 유명한 우 빠르마우카 스님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미얀마 불교신자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며 스콧 마르시엘 주 미얀마 미국대사와 그림을 그린 화가, SNS 홍보담당자를 제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 대사관은 SNS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다루려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재고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시의 목적은 미얀마와 미국의 우호증진이며, 미국정부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관능적 사찰벽화, 표현의 자유인가?

일본 천년고찰 코쿠죠지
사찰 관련 위인 새 벽화
문화재 훼손 도마 올라

일본 니이하마(新潟)현 츠바메(燕)시에 소재한 천년고찰 코쿠죠지(国上寺)의 본당 벽화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완성된 벽화는 사찰과 관련된 위인들을 관능적으로 미화한 일본화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시의 교육위원회는 "문화재 훼손이자 교육적으로 적합지 않다"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자이케이신문' '제이 캐스트 뉴스' 등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코쿠죠지는 709년 당시 일왕의 발원으로 창건돼 니이하마현 최고(最古)의 사찰로 법등을 이어오고 있다. 긴 역사와 함께 일본의 유명한 인물들도 사찰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쿠죠지는 이 역사인물들을 모델로 관능적인 벽화를 제작, 지난해 4월 본당 벽에 설치해 공개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본당의 벽화, 일본화가 키무라 료코의 작품이다. 사진출처=코쿠죠지 유튜브

모델이 된 인물은 미나모토노 요시츠네(源義経), 무사시보 벤케이(武蔵坊弁慶),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 료칸선사(良寛禅師)와 절의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 슈탄동자(酒呑童子)까지 5명이다. 이들 5인이 함께 노천탕에서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이 벽화는 일본화가 키무라 료코(木村了子)가 제작했다.

사찰측은 해당 벽화 조성 취지를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이 사찰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관능적인 위인들의 모습이 여성의 본능을 자극할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사찰에 없었던 독특한 세계관을 느껴주길 바란다"며 벽화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실제 벽화가 공개된 후로 평소 3배에 달하는 참배객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츠바메시 교육위원회는 "코쿠죠지의 본당은 시 문화재로 지정돼있다. 사찰측이 원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벽화를 설치했다"며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지도 공문을 교육위원회 명의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내의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적합하기에) 견학 및 교외활동으로 코쿠죠지 본당을 제외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지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여론으로는 "사찰 본래의 길을 벗어났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계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은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현상, 사찰이라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사찰의 행보에 지지를 표명했다.

코쿠죠지 측은 "원상변경 허가신청은 사찰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다. 행정지도를 받은 후 다시 허가를 받아 벽화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 당국과 대립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새로운 사찰문화를 위해서 관련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英 로열웨딩, 달라이라마 초청 계획"

해리왕자와 신부, 성공회 전통에 계획 접어

지난해 열린 영국 해리 왕자와 미국 여배우 매건 마클의 로열웨딩 초기 계획에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월 2일 티베트 관련 뉴스 전문매체인 '티베탄 저널'은 영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는 지난해 5월 영국 윈저성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로열웨딩을 치렀다. 신부인 매건 마클이 미국인임을 고려해 미국 성공회 마이클 커리 대주교의 주례로 열린 이 결혼식에, 당초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법문과 주례가 계획됐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티베탄 저널은 영국일간지 '데일리 메일'을 인용해 "영국 성공회의 총지도자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매건 마클 왕자비에게 특별한 하객을 초청할 수 있다고 전했고, 왕자비는 달라이라마를 초대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국매체 '익스프레스 UK'는 "매건 마클 왕자비는 결혼을 축복하는 법문을 달라이라마에게 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매건 마클은 명상과 요가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가 매건에게 달라이라마를 초청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달라이라마가 실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 초청이 고려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결정 단계에서 로열웨딩이 전통적으로 성공회식으로 거행됐고, 영국왕실이 성공회의 가장 큰 지지자라는 점, 달라이라마가 불교의 출가자라는 점에서 초청은 취소됐다. 조우인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황의조 호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13〉 12문–자비관

강명희

‘3독심’ 버려야 사랑 줄 수 있다



스스로 관찰, 잘못된 인식 버리고
수용하는 마음에 상대 받아들여야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 4섭사로
자비관 하면서 선근 키워 살기를

자비관의 대상과 실체

누구한테 사랑을 주려면 내 안의 단단하고 무거운 속성들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을 수용해서 자비관할 수 있어요. 먼저 5관과 몸을 관찰해서 굳어 있고 긴장된 곳을 이완하세요. 그런 다음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탐진치의 기억들을 찾아내 부정관으로 없앱니다. 그리고 탐진치 3독심과 선악, 옳고 그름 등의 관념으로 만든 나의 죄업을 참회진언과 자비진언으로 씻어 냅니다.

자비관은 너라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선 나를 관찰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너를 수용해야 하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가 수용될 때는 그야말로 고민도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져서 진리가 뜹니다. 네가 수용되면 하여튼 온갖 것이 다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관찰하면 그런 기억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나를 관찰하라. 너를 관찰하기 전에 나를 관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관찰해서 그게 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나’가 가득 들어와 있으니, 대상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좋은 것들이 많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맛을 모르지요. 대상이 들어오면 진리도 얻고 나의 행복도 구현되고 감정도 풀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자비로 기쁨도 얻고 평등도 얻고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단단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대상을 보지 않고 수행만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거든요. 수행하고 나를 녹이고 수행하고 너를 수용하고 해야지요.

다양성이 다 수용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다양성이 수용되지는 않거든요. 내가 열 개가 수용 안 되면 열 개의 단단한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악견, 잘못된 편견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수용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용 못하는 건 내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사랑, 연민, 행복, 평등이 와요. 4무량심을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 연민, 행복, 평등입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거친 것들이 나가고 해결된 상태니까 핵심적인 것들이 뭉쳐 있습니다. 단단함이라든가 무거움이라든가 질긴 형상이라든가 잡아당김이라든가 그런 걸로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 내부를 관찰하다가 의식이 파닥 외부로 뛰어나가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비관을 하다 보면 계속 대상의 속성을 관찰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기가 좋아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면 대상이 나의 객관적인 상황을 콕 찔러 줍니다. 대상을 아버지로 하고 아버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의 직접적인, 핵심적인 업이 드러나면 나를 관찰하기가 쉬워요. 객관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고 나를 관찰하면 내가 객관화가 안 됩니다. 내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요. 사실 나를 관찰하는 것은 바깥을 알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자비관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어떤 대상이든 좋아요. 내가 아는 사람을 설정해도 되고, 동물이나 환경을 설정해도 되고, 사회 구조나 역사를 해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으니, 우리나라 역사를 쫘악 펼쳐서 고통을 빼와도 됩니다. 자비관은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고, 둘째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인 사람한테 하고, 셋째는 무관심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합니다. 자비관은 보기 싫거나 외면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도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환경, 자연환경에도 사랑을 줍니다.

이번 초심수련에서는 대상을 사람, 동물, 식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고통을 빼오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고통을 빼와도 되고 사랑을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입니다. 조류독감 때, 구제역 때 닭이며 돼지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몽땅 매몰시켜 죽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위주의 교육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몰아간 것입니다. 그거 다 인간이 되돌려 받습니다. 그 깊은 원한을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자비관을 할 때는 대상을 사람으로 하든 동물로 하든 반반씩 분배해서 합니다. 시간을 분배해야지요. 대상이 너무 단단할 때는 대상을 관찰하다가 나를 관찰하세요. 대상을 관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관찰하게 돼요. 나하고 대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드러납니다. 자비관을 하다가 ‘나도 사랑 못 받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사랑을 줍니다. 의식으로 줘도 되고 마음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줘도 되고 만트라로 줘도 돼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만트라가 자비진언 ‘옴 마니 반메 훔’입니다. ‘옴 마니 반메 훔’을 나한테 계속 들려주면서 사랑을 주면 내 마음이 확장됩니다. 자, 이제 대상을 정하고 대상한테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합시다. 10분만 할게요. 바깥을 향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여기저기 무겁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바깥을 향해서 사랑을 보냅니다.

자비관 실천 방법

대표적으로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 네 가지가 있습니다. 4섭사(四攝事)라고 하지요. 화엄경에 4섭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근을 키울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6바라밀하고 4섭사거든요.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4섭사입니다. 4섭사의 섭이 포섭할 섭이지요.

첫째로, 보시는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줄 때 정성을 담아서 줍니다. 나한테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줘야 복이 됩니다. 복을 지으려면 소중한 거, 정성스러운 거,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줘야지요. 사실은 정성을 주는 게 좋아요. 대상을 잘 보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과 시간을 줘요. 보시하는 방법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법보시, 무외보시 이렇게 보시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물질을 빼오는 게 첫째 보시였어요. 인도 사람들이 돈을, 물질을 좋아했거든요.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시를 그렇게 강조했지요. 물질을 내려놓는 방법이 보시뿐이니까 재물보시를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보시입니다. 보시가 되니까 애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는 이행이 되거든요.

애어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정하는 말을 좋아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말. 정확하게는 사랑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안 내려간 상태에서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인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대상하고 싸우거든요. “왜 날 인정 안 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인정해 주는 말이 애어에 들어가요. 보시보다 어려운 것이 애어입니다. 긍정적인 말, 수용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돈 달라면 부모들이 돈은 잘 줍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주는 게 제일 쉽거든요. 아이한테 사랑을 전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자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헌신적으로 다했지만 그 한마디를 안 해줍니다. 제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모였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저마다 다르더래요. 후배는 아버지하고 속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오빠들은 엄격하지만 했지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줬다고 하더래요. 보통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것을 부모한테 못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상처입니다.

이행은 남을 돕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의식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사람은 말로 나오고, 동물은 소리로 나와요. 의식이 입으로 나오고 의식이 행위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행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자비관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 돕는 행위가 절로 나와요. 의식이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한 걸 못 봅니다. “도와줄 필요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의식이 그러니 돕는 행위가 안 나오지요. 자기 속에 갇힌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보시하고 애어하고 이행하면서 사실은 의식이 점점 넓어집니다. 입이 정화됐을 때 의식이 정화되고, 입이 정화됐을 때 행위까지 나오거든요. 신구의 3업이 불신(佛身)에서 다 구현되지요. 밀교에서 신구의 3업이 현실로 구현된 것이 밀법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로, 동사는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구분 없이 같이 일하면서 섞이지요. 평등성이 있어서 일도 같이 하고 이익도 같이 나눕니다. ‘같이’가 되지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되면 동사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맨날 사고치는 사람과 동사하겠어요? “그냥 놀고 있어. 내가 벌어다 먹여 줄게.” 이렇게 되지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야 일이 빨리 진행되고 넓게 되거든요. 걸림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 그 사람 신경 쓰느라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딴짓 하고 기껏 일을 해놓으면 허물어뜨리는 사고뭉치와는 같이 일을 안 해요. 같이 하면 다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그런데 동사는 일을 허물어뜨리더라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치더라도 같이 하지요. 사람을 다 끌고 가면서 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자비를 실천하는 데 중요합니다. 들어주고 봐주고 안아 주는 게 대상에게 하는 자비관의 실천방법입니다. 자비관을 하면서 사랑하니까 순환이 되어서 꽃이 피는 게 희심(喜心)이거든요. 남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희심입니다. 이것만 하면 불행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나에게 알려 줍니다. 내가 할 일이 새롭게 새롭게 있어요. 〈끝〉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 융합 가족세우기 상담사 2급과정 모집

가족 간의 얽힘을 풀어내고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삶은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족은 모습도 닮게 되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말, 주로 쓰는 단어, 습관, 정서, 감정, 먹는 음식까지도 닮게 되고 DNA(몸의 세포)을 통해 얽힘은 유전 상속 대물림 됩니다. 삶 속에서 습득된 모든 것들은 DNA(몸의 저장장치)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후손들에게 유전 되고 기록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고향이고 희망이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일들로써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어 얽힘을 만들고 평생 동안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융합 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얽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확인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의 상태를 조명하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형태로 내담자, 촉진자, 대리자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불가 사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운영하시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 융합 가족세우기 2급 156시간 4학기 정원 40~50명 • 집중 워크숍별도 운영 • 가을학기 : 9월 3일 화요일 • 주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동국대 접수처
• 서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3호선 동대역 하차 6번 출구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교학처
• 02)2260-3728, 3730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9번길 14호 학마을 명상선원 / 051)754-3375
• 부산 계좌 : 농협 351-1090-3369-93 예금주 : 학 마을 명상선원
• 지하철 남천역 4번, 2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남천성당 뒤 kbs후문에서 좌회전 150m

속성반 부산
• 1년 과정 월1회 3째주 토,일요일 1박 2일 집중수업
• 수강료 : 3백만원
• 부족한 시간 집중워크숍 별도운영 보충 총 170시간
• 속성반 안내 전화 : 010-8634-7851

수강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상담자로 참여해 볼 수 있으며 참여 후 자기문제가 해결돼 수강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소개 정행스님(직강)
• [내면의 고민과 행복] 저자
• 서울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가족세우기)
• 서울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 전공
• 가족세우기 촉진자 경력 10년
• 명상심리상담 경력 / 기 에너지 치료 경력 30년
• 명상심리상담 자격증 등 다수

귀 유·불·선을 초월하는 일교종단 귀

종무법인 불교법인단체 총연합회 창종

병검으로 중생구제, 삼장육제 귀의 삼보하오며, 정종과 종교와 종교근본 말법만년을 지킬 지계수복자 종교의 일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우는 종단

사부대중 입종안내

인연있는 사암 사찰, 법상자, 실무자, 공양주, 수행자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5매
• 사찰.법당 내·외 사진 ····· 각 1매

• 발급증명서
1. 승려증
2. 사찰등록증
3. 주지임명장
4. 포교사 자격증
5. 전법사 자격증
6. 각종 자격증

입종 관련 문의

Tel 032)502-6625, 010-9292-3110. Fax 032)502-6619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34

지구촌 일체 종교가 정종과 정교와 종교의 삼대요소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삼대요소의 본질 – 부처님 본뜻을 받들어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삼대요소의 지침을 그대로 대행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상낙원, 불국정토를 하는데 그 목적으로 본 종단을 창조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종무법인 | 불교법인단체 총연합회 창종 환성태일 합 장



대행 스님

물질계의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우리는 왜 태어나 고통받으며 사나

질문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편했을 텐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까지 와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요.

답변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바람이 있고 흙먼지가 있고 물이 있고 이건 스스로 자생으로서 그냥 생긴 거죠. 이건 자연의 원리면서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모아지고 모아지고 하다 보니깐 원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날까지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도 제일 나중에 됐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돼서 인간이 살다 보니깐, 진화도 되고 문리도 터지고…. 지금 보세요. 의학이나 과학이나 얼마나 많이 방대해졌나.

그러나 우리가 최초에 내가 어디서 온 거를 모른다면 모두가 아주 귀한 과학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자가 아니죠. 남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일을 모두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는 유가 많고, 아상과 아만이 많아서 돌아보질 못해요.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왜 스님은 저 말을 하시나 이러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곤충으로서부터 인간으로 올라오기까지 수만 년, 아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세월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 광년을 거쳐 왔나. 우리가 지금도 그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이 지금도 가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게 곤충이 너무 성하고 악이, 너무 독이 많으면 그냥 멸하게 하거든요. 죽게 만들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중에도 인간이 이렇게 문리가 터지고 이렇게 저거 하면 이 중세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중세계를 벗어난다 하는 건, 이 인간도 말하자면 곤충의 주머니예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 그런데 독의 곤충의 주머니냐, 선의 곤충의 주머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곤충의 주머니가 벗어지고 곤충의 주머니를 더 만들고 이러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우린 이 산하대지가 전부 새카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까만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옳죠? 허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불에서도 살고, 캄캄한 데도 살고 모두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이 공부를 어서어서 해서 이 벗어나는 데만 노력해라.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베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항상 베풀면서 자기 정신계의 자기, 자기를 꼭 붙잡고, 물질계의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이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왕지사 태어났으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있지 아, 당신이 없다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말을 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긴 말인 줄 아세요?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이 말을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고 내일까지 해도 못다 하고 모레까지 해도 못다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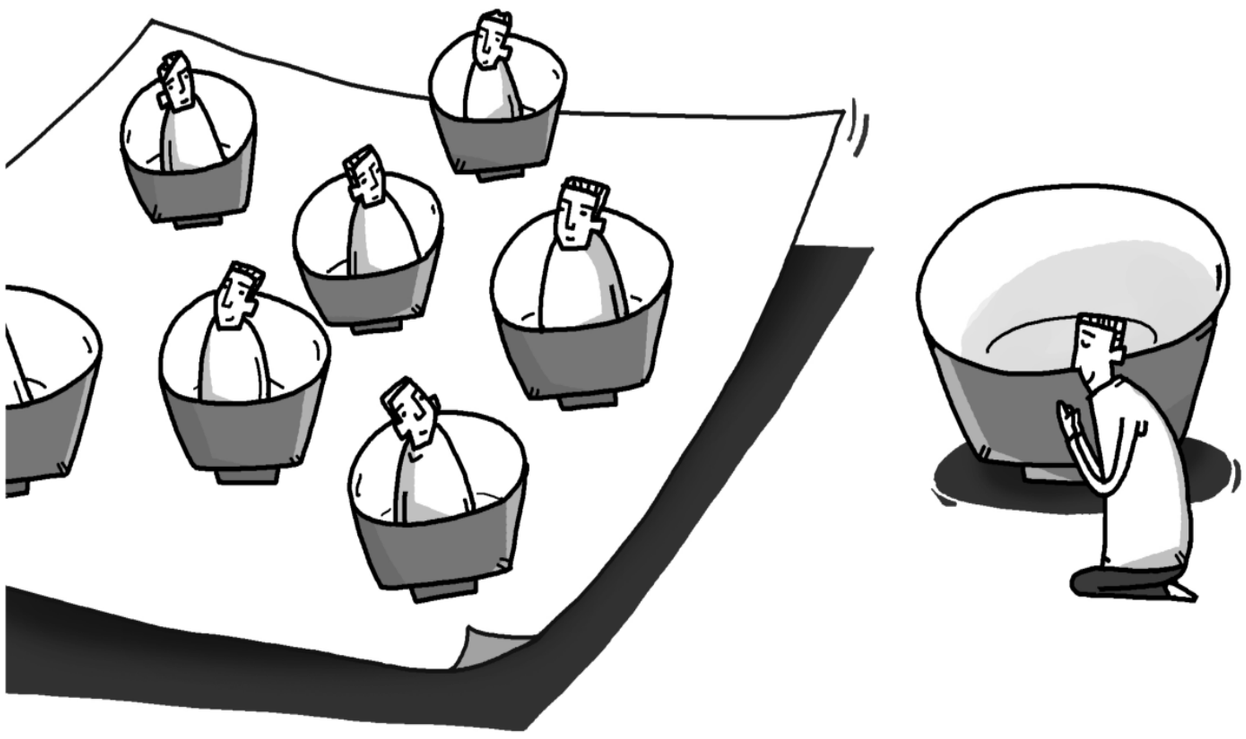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왔든 인연이 있으니깐 나왔겠죠. 나왔으니깐 나부터 알아야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깐 부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네 나무는 네 뿌릴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딴 나무에서 네 나무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뿌리에서만이 네 싹을 돕는다." 이렇게 간략하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가르치는 도의 길입니다. 말은 그럭하면서 그 뜻이 뭔지 몰라서 걱정이죠. 예를 들면 "꽃공양" 이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벌어질 때에 꽃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생기고 전부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이 생겨 가지고 자꾸자꾸 진화됐으니깐 무척 오래 있다가 인간이 나온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면 이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삐쭉…. 이거를 올릴 때는 딴 생각 없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 아들, 내 남편 뭐, 뭐 뭐 이런 게 생기지, 이 꽃공양을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거 갖다 그냥 놓으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 이게 적응이 됩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응이 되느냐고요.

이 마음도 그래요. 벌써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써, 그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습니까.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에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죠. 주머니가 그 주머니 구녁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허허. 주머니 구녁 뚫린 데로 넣는다고요. 거기서들 죄 발라서 제가끔들 모두 먹어요. 그러고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어.' 그러고선 넣어 준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니깐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린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해요. 그래 그 구녁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아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인간이 아주 적었을 때는 어디 가면, 하다못해 까마귀들이나 이런 벌들, 개미들 이게 뭐, 거꾸로 메달려서 하는 거 뭐죠? 박쥐! 허허. 난 이름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사람만 만났다 하면 금세 와 덤비죠. 그러면 금세 없어졌답니다. 그 박쥐는 박쥐대로 먹고서 그래도 뼈다귀는 남기니까, 껍데기는 남기고 그러니깐 뭐, 딴 것들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이 개미라는 거는 뼈다귀 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먹어 치워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예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에서 한번 벌어졌다 하면 정말….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 A18면으로 계속

인생 네비게이션! 제갈량의 지혜 익히고 미래 보는 눈, 慧眼(혜안) 여는 과정에 초대합니다.



원장/주임교수 爽廈(석하) 소 재 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KOFS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겸 논설위원, KAIST S+ AMP수료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충북) 자문위원
Earist University SAP학장 역임,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동방대학원 교수/ 발전위원장 역임, 미래예측포럼 고문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제9기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9월 5일 목(木) 개강 및 공개 특강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수업 매주 목(木) 18:30~21:00

풍수도 논리로 푼다. 공간(空間)의 철학 자연과학 풍수지리(風水地理), 제6기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9월 9일 월(月) 개강 및 공개 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 지도교수 노승우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 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수업 매주 월(月) 18:30~21:00

2학기 과정 (방학없이 8개월 완성, 마스터까지 무료 재수강 가능)
GFCA 사무국 www.gfca.kr 02-585-0079 교육상담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 A17면에서 계속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 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 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곤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쪽이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거 하면 이 곤충이 빨리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그렇게 해서 이게 둘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반 이상이 벌써 다 줄고, 어떤 분들은 반이 줄고, 어떤 분들은 삼분의 이가 줄고, 그냥 요만큼 남고 다 줄어 버리고 없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누가 일러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통하거든요. 감촉으로 다, 다 통해요. 악성은 악성대로 통하고 선의면 선의대로 통하는데, 악성은 악성대로 왜 선의로다가 이끄느냐. 독을 빼면 선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성을 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저거 하면 독성이 다 없어지면서 이것이 99%가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 중세계를 떠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태어나게 돼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이러니 세상대로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데 모두 딴 사람들도 다 둘이 아니겠지.’ 하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거, 이 방망이요. 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이거면 이 세상을 다 잡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으리라 했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엔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으리라 다짐했는데 갈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화나는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합니다. 어떡하면 이 마음의 힘이 단단해질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그런데 이 진짜 즉석으로 들어가는 이 공부는 줬다 안 줬다, 잘했다 안 잘했다 이런 논의가 없어요. 따귀를 맞았으면 맞은 대로. 또 줬으면 준 대로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관여를 왜 합니까. 금방 요기서 요렇게 따귀를 때렸는데 금방 돌아갔으면 그게 없어지죠. 여기서 잘못됐다고 꼬집고 착을 두고 그냥 애쓰지 말라 이겁니다. 이건 금방 또 없어져요.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느 때에 그것을 때렸다고 하며 어느 때에 내가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처라고 세울 수 있을까요? 공부를 했다고 떳떳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름해서 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묵묵히 걸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물 한 그릇 마시면 대장부 살림살이 족할 것을 말입니다. 아까도 시를 한 수 읊었듯이

“음지 양지 없는 천지
한 손 들어 삿갓 쓰고
해와 달을 석장에 걷어 메고
푸른 산 한 발 딛고 물 한 그릇 떠 마시니
대장부 이만하면 족하지 않을까.”

책을 읽어서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외로 읽고 거꾸로 읽고 이래도 이 자기의 참 생명수는 맛을 못 봐요. 책이 자길 보고 자기가 책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글자를 볼 때에 글자를 외우고 외운 채로 말을 합니다. 몸 떨어지면 글자도 말도 다 떨어질 것을.

그런데 이 선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데서 선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기를 때 얼마나, 그 자손이 만약에 물에 빠지게 됐다거나 공부를 못해서 영 낙오가 됐다거나 이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사랑하는 고 마음. 고것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세생생에 꺼지지 않는 불! 누구나가 감춰진 불이 다 있어요. 중생도 불이 있고 부처도 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중생이라고 해서 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모르니까 바로 자기 빛을 자기가 못 보는 것뿐입니다.

어느 스님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엿하게 가다가 고만 어느 뱀소굴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다시금 또 사람 사는 데로 인도를, 인도환생을 시켜 놓고 껄껄 웃으면서 “내가 지옥으로, 나는 천당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서 이렇게 건지려고 했더니 지옥도 천당도 둘이 아닐세. 삼라만상 내 마음에 다 들어 있으니 나지 않는다, 난다 개의할 게 없노라.”

그것은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산 게 아니거든요. 모습을 안 가졌어도 나 아님이 아니니 모두 내 모습이에요. 모두가 내 모습, 내 마음.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자기가 돼 볼 수 있는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분단이 생기지 않고, 의리가 깨지지 않고, 화목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슬기로워지고, 바로 이 도의 심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급하게 화가 나면 남을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한번 숨을 들이쉬면서 안으로 굴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말도 공손하게 나가고, 또 한번 저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이랬을 때 바로 화목한 것입니다.

화목을 모르고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천차만별로 돼 있는 생한 도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가질 게 없어서 나는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러면 가는 데마다 나고, 가는 데마다 내 자리고, 가는 데마다 내 아픔이고, 가는 데마다 내 웃음이고 즐거움이고 그러니 구태여 내 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또 어떻게 낙오가 될까 걱정하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앨 쓰고,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앨 쓰고, 그렇게 발광 안 해도 되지요.

그것이 깨달으려고 앨 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한데 주인공에서 나온 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 일체 다 놓을 줄을 알아야 사방이 터지지요. 이거는 문이 많은 데서 문을 찾으려니까 어렵고 문이 하나도 없는 데서 문을 찾으려니까 또 어렵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인 거예요. 우리가 앉는다고 하고 앉고, 선다고 하고 서는 그런 사람, 공부 백 날이 가도 못 합니다.

관하는 걸 기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참된 깨달음보다 늘 자기 가족의 안위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여 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좀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기복으로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기복이 아닌지요.

답변 기복이라기보다, 당신이 만약에 늙어서 죽을 때에, 죽을 때 남 걱정하게 됐소? 내가 부지런히 지금 급해서 길을 간다면 옆에서 싸운다, 옆에서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급하게 달려가지 여기서 참섭하고 그 급하게 지금 가서 일할 거를 폐지시키겠소? 그렇죠? 그럼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기가 나왔던 구녁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구녁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될 텐데…. 그게 굴려 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다 놔 놓고 자기가 생각 그 자체를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남 걱정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지금 죽은 저승엘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 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못나게 보이고 또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모든 걸. 그러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승길을 알아야, 우리 물질세계에 살아서 사는 거는 다 알았으니까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알아야, 양면을, 삼세를 둘 아니게 다 안아야 내가 누구를 건져 준다, 뭘 한다 하는 거죠. 지금 신도님들도 자꾸 그냥, 그대로 믿고 자기한테 하면서 그대로 옆의 사람, 꼭 이거는 돌봐 줄 사람, 즉 말하자면 돌봐 주지 않을 사람이나 돌봐 줄 사람이나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해 주고, 또 일러 줄 수 있는 사람은 관하라고 일러 주고, 그러지 못할 사람은 그냥 관해 주고 하는 거죠. 오다 가다가도 그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당신이 일러 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아유, 다 나았습니다.” 이러고 하고 잘됐다고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도 또 안 하죠. 그렇지만 남을 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아픈 사람이든 어떻게 극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자기 편안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네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다고 말도 할 수가 없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고요. 우리들도, “부처님은 공법이 있고 우리는 없나?” 그러지만 벌써 우리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공법이에요. 그 많은 생명들이 다 한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니까 공법입니다.

>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 그거 참견하게 생겼습니까.

집안 우환이 산소의 영향인지요

질문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겨서 조상님 산소에 문제가 있을까 하여 천도재도 지내고 그랬는데 정말 산소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

답변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때는 신도들이 와서 산소를 잊어버렸다고 할 땐 그 애로를 없애 주기 위해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 이렇게 가면 그 무너진 산소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서들 보는 거는 고 장소만 보지만 이 부처님 법으로 이 안에서 주인공 자체 자불이 보는 거는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소를 잘못 썼다 이래도 영혼만 건져 내면 되는 거죠. 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소 탓이라고 생각질 마세요. 산소 탓은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관할 줄 알면은, 관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대로, 관할 때도 ‘내가 이러지 않게 이끌어 가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나를 지켜 주는 것도 너 아냐?’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모든 거,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것도, 남한테 그 찌끄럭지로 취급받게 하지 않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먹고살게 하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귀인이 되게 허는 것도 너고.’ 이렇게만 관한다면 산이 문젭니까?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 현불 논단 |

가짜뉴스,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정부 '가짜뉴스 경계론' 제기
엄정 대처 · 법적 규제 필요성 거론
가짜뉴스, '통제' 발상은 타당한가

민주주의, 자유로운 공론 통해 발전
법적 규제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
가짜뉴스, 미디어 변화 따른 부산물
허위정보 차단 중요… 기준 마련해야

법적 규제 보다 성숙한 시민 양성을
'미디어 리터리시' 정책 중심에 서야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가짜뉴스 경계론을 제기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엄정 대처를 선언한 데 이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제이슈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가짜뉴스 대책 마련 지침에 이견이 있었던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추측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며,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소위 뉴스의 홍수시대에 충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인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론이 통제와 처벌로 현실화 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혹 제기를 허용하는 공론장의 존재와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후 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전규제의 의미를 갖게 될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론장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 제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이다. 신문과 방송 매체로 국한되었던 뉴스 미디어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뉴스 채널과 뉴스의 총량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 언론사의 전유물이었던 뉴스 생산이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개인으로까지 가능해졌고, 뉴스 유통은 포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적이고 무제한적인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뉴스와 비뉴스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정보 공급의 홍수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저하까지 이어져 뉴스 수용자들은 인터넷미디어와 같은 대안 뉴스미디어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의미한다. 허위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허위정보를 가리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 권력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법적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하다. 법적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는 성급하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 대안 모색에 정부 정책수립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확증편향과 집단적 배타의식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 여론 양극화로 증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먼저 진지하게 진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행동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반드시 정책 수립의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 대결 양상의 사회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정부 · 언론 · 사회적 기구에 대한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가짜뉴스 규제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언론 재갈 물리기나 다른 의견에 대한 제약이라는 의구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될 것이다.

社 說

일본에 '진정한 참회' 요구한다

한일 관계는 유례없는 갈등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에서는 연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의 혐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다.

불교계도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형성된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사찰에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종단 차원에서는 강경 대응보다는 교류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월 13일 발표한 교시를 통해 종단에 한중일 3국 불교협의회를 통한 교류를, 정치인들에게는 중도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와 더불어 전국 사찰에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현수막 게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갈등 상황은 아베정부가 야기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배상 문제이다. 강제 징용자 개인과 기업의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는 역대 일본 정부들도 인지 ·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런 보편적 상식이 뒤집힌 것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징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였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본지 인터뷰에서 "일본은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 반성했는가"라고 반문한다. 한 세기에 달하는 한일 양국의 갈등은 가해 국가의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탄자니아 넘어 세계에 韓불교 알리자

조계종이 첫 아프리카 포교 차원에서 건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9월 6일 57명의 학생들이 3년간의 원예 농업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계종의 농업대학 설립은 첫 시도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농업국가이면서 변변치 않은 농업기술로 빈민계층이 많은 탄자니아에 부처님의 자비를 펼친다는 의미와 실질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탄자니아 주민들을 불자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2017년 10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했고, 탄자니아 학교 내에서도 연등만들기, 만다라 전시전 관람 등 다양한 불교문화 수업으로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세계화에 집중해 왔지만 사실 미주포교, 유럽포교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범주는 어디에서든 가능하다는 자신감이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경우 이슬람국가, 혹은 불교국가에서도 선교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불교는 포교 전법에 있어 기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 사례를 계기로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 탄자니아 외 아프리카에서, 또 불교 볼모지였던 남미, 북유럽 등지로 시각을 넓혀나가자. 부처님께서는 전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다.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제 한국불교가 탄자니아를 넘어 세계 속에 한국불교, 그리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때가 왔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착한 미생물 EM과 함께 해요

얼마 전, 초등 5학년인 아들은 압력솥으로 밥 짓기에 도전했다.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해가며 뜸을 들이는 밥 짓는 과정에서 우리 집의 경우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쌀뜨물을 받아 EM발효액을 만드는 것이다. 쌀을 씻을 때 첫 물과 두 번째 쌀뜨물을 패트병 두 개에 나눠 받은 후 EM 원액을 넣고 설탕과 소금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액이 완성되면 청소, 화초 가꾸기, 과일, 야채 씻기, 도마, 행주 살균,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구 냄새 제거 등의 용도로 널리 쓰인다.

아들의 첫 밥하기는 매우 성공적이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슬고슬한 밥을 해냈다. EM발효액도 잘 만들어져 평소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각별한 아들에게 밥 짓기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쌀뜨물로 EM발효액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쌀뜨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과영양화를 일으켜 하천 오염을 일으킨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였다. 오염의 주원인이었던 쌀뜨물이 EM 발효액을 만들어지면 오히려 오염된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EM 발효액 만들기는 우리 집 환경 실천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단어의 첫머리 글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이다. EM 속에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약 80여 종의 미생물들이 들어 있다. EM은 농업에 주로 사용되어 저장성 향상, 생산성 증대, 토양의 질적 개선 등에서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점차로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그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하수구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다양한 EM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나는 세수 비누, 주방용 세제, 치약, 빨래 비누 등을 모두 EM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EM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범위가 무한해 보인다. 애완용 동물 냄새 제거는 물론 아토피 피부염 완화, 무좀 치료를 비롯해 악취 제거와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파트 한 동에서 세 가구만 EM을 사용해도 하수구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더 이상 EM 발효액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며칠 전, 아들은 베란다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다.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예덕나무 잎사귀에 하얗게 생긴 벌레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EM 발효액에 물을 더한 희석액을 뿌려주고 희석액으로 잎을 닦아주느라 분주했다. 나무들로 가득한 우리 집 베란다에 생기는 병충해의 경우 독한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EM 발효액을 사용해 대부분 해결해 왔다. 흙을 살아나게 한다는 EM액 덕인지 베란다에서 심심찮게 지렁이도 보인다. 우리집 베란다에서 입증되고 있는 EM 발효액의 효능을 실감하며 '착한 미생물 EM'과 함께 하면 나도 지구에 착하고 유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 본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앰프 다루기 1초의 아주 간편한 견본으로!

불시에 사찰을 방문하면 대부분 스님들은 아! 우리 법당소리 아직 쓸만해요! 거절! … 그래도 스님! 여기까지 왔으니 소리 구경이라도 … 하며 법당에서 소리비교를 하면 장난감 수준의 차이 앞에 스님은 귀를 의심하며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하며 난감해 하실 때 스님! 시설비는 장기할부… 아니면 초파일 지나서 하며… 가장 많은 시설을 합니다.

▣ 비싼 시설 마시고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일천이 이천시설 소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 사찰 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부터 ~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명품소리훈련원 원장)

육임 수강생 모집

지금까지의 육임과 다른
새로운 육임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생 모집
교재 e-book
문의 02)3668-9890, 9871
수강료 50만원
www.dongbang.ac.kr

특별 이벤트
공념학당 6개월 수강 + e-book (30만원) + 동방대학 수강
일백만원 (대할인 수강생 모집 중)

공념학당 | Tel 02-793-7333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IT PLUS + ONE
ELSWIVER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TEL : 070-4060-7460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

“불교는 ‘信解行證’… 군포교가 곧 수행”

〈신해행증〉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은… 1970년 조계사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고 1973년 중앙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대불련 활동에 매진했다. 2010년부터 대불련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활동을 펼쳤으며 2011년 군포교지원단 2대단장으로 취임했다. 2013년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회장, 2016년 대불련총동문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불련총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유선재 단장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각지의 군법당에서 신심 하나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장병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다.

물심양면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싹틔우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아낌없이 정진하는 우리시대 부루나 존자들이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같다. 성별도 연령도 계층도 다르지만 군장병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무사히 제대해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군장병들을 보살피는 부루나 존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가 있다. 바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산하 군포교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유선재 단장이다.

유 단장이 이끄는 군포교지원단은 7월 20일 창립10주년을 맞았다. 30여 포교사가 20여개 부대서 연간 500여 회 법회를 이끌 만큼 이들은 아직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유 단장이 있었다.

교복 맞추러 왔다 조계사서 맺은 불연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이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0년 서울 화신백화점에 교복을 구입하러 오면서 부터였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유 단장은 인근 조계사에 우연히 들렀고, 그때 법문을 처음 듣게 됐다.

“옛날에 친구 따라서 창신동 교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건 내 옷 아니다’ 는 생각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당시 조계사에서 머뭇머뭇 둘러보고 있었는데 조계사 중고등학생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학생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업, 인과, 인연, 중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정신의 옷에 딱 맞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법문을 통해 불연을 맺은 유 단장은 교회의 설교에서 느끼지 못한 인생의 가르침임을 직감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중앙대에 입학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게 됐다.

“당시 불교는 산중불교였고, 치마불교였습니다. 대학생 불자들 사이에서는 지성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지금과 달리 대학진학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산중불교를 도시불교, 치마불교를 대중불교로 바꾸는 것이 지성불자의 사명이란 생각이 대불련 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유 단장은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불련 중앙본부 조직위원장과 대학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했다. 당시 전국 대불련 학생들을 화랑대회에 모집하는 등 전국을 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대불련 총동문회서 군포교 원력 발현

유 단장은 대기업에 취직해 곧바로 해외지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한동안 불교 활동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귀국 후 평소의 원력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으면서 대불련 총동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이 활동 중 젊은 불자 육성, 특히 군장병 포교에 매진하게 됐다.

유 단장이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세월이 지나며 대학생 불자수가 감소하고 대학 불교학생회에 입회를 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미래불교 양성과 청년포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청년포교의 열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학생 포교냐 군장병 포교냐 였어요. 대학생 포교는 당시 많은 분들이 나선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불련 동문들 사이에서 군포교는 이른바 황무지와 같았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단 생각에 ‘남들이 하지 않는 군장병 포교에 열의를 갖고 힘써 봐야겠다’ 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됐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2009년 7월 19일 이렇게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이 출범했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등 원력이 모였다. 초대 단장은 충북대 68학번인 박호석 법사가 맡았으며 2011년부터 2대 단장으로 유 단장이 맡아 이끌었다.

“군장병 포교를 통해 대학생 포교 활성화도 이끌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7곳 법당에 20명의 포교사를 보내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단원이었지요.”

유 단장은 율곡대대 법당서 법사로 군포교 첫발을 디뎠다. 군포교지원단은 그동안 17곳 군법당에서 법사 38명이 월 37회의 법회를 지원하면서 약 2000여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포교를 불자사명으로
2009년 대불련 총동문회서
군포교지원단 발족에 기여
2011년부터 단장으로 이끌어

38명 법사, 17곳 법당 활약
법당불사, 장병상담도 진행
“군포교 네트워크 구성 과제”

군포교지원단 소속 지도법사들은 통상적인 일요법회에서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장병들의 신상 및 고충상담도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한 간식도 지원했다. 특별법회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비롯해 문화법회, 호국영령 천도법회 등 다양한 군포교 활동을 펼쳤다. 제대 장병중 복학생을 대상으로 대불련을 소개하고 복학 후 활동을 권장하는 역할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문제는 포교에 나선 어떤 법당은 물이 차고 부처님 불상이 관리도 안 되는 이른바 깡통법당이었습니다. 기자 분들이 오셔서 울기도 했어요. 법회를 시작했지만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법당 불사도 시작했습니다.”

군포교지원단 법사들은 대불련 동문들과 후원자 등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 11보급대대 안국사 신축, 1사단 12연대 운천대대의 석불사 중창, 9사단 백마수색대대의 영축사 신축, 5포병여단 105대대 비룡호국사 중창, 2기갑여단의 충성사 중창, 933포대의 중창 불사 등을 이뤄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지도법사들이 지원 없이 사실상 원력 하나에 의존해 군포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 빠옥 총림에서 생활 〈5〉
B5 문화 — 장명확 ‘돌 · 부처를 만나다’ 展
B6 학술 — 만해 · 무산, 계보학으로 살피다

‘청년포교’ 일념으로 전국 군법당 순례


유선재 단장이 제대하는 군종병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10주년 행사는 그동안 전국각지에서 활동했던 지원단 법사들의 원력을 모아 다시 새로운 발원을 하는 계기가 됐다.



부부법회 회원들과 군포교에 나선 유단장 부부.



군포교지원단 10주년 행사서 법사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3년 호국충성사 낙성식 모습.

‘유선재 단장’

B1면에서 계속

이런 와중에도 군포교지원단은 법당의 영상 및 음향시설, 냉난방 기구, 방석, 법구, 탱화 장엄 등 비품을 지원하며 군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건립불사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사단법인 대불에 장학금이 답지, 1년에 3명의 불자 대학생에게 장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 단장은 “올해 봉축행사 제등행렬 때 한 건장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며 “가만히 보니 법회를 나가는 부대 출신 청년이었다. 반갑게 와서 당시에 법문을 듣고 제대 후에도 사찰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하며 웃었다.

유 단장은 “조계사에서 우연히 들은 법문 한 구절이 저를 포교의 길로 이끌었듯, 군법당에서 군장병들에게 하는 법문도 이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백명의 장병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불자로서 수행정진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그런 의미에서 군포교지원단에서는 군종병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때로는 법사들을 대신해 법회 집전을 보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제대시에 조금이나마 불교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들에게 주는 이른바 축원지갑 등은 유 단장이 협찬을 받아 지급한다.

유 단장은 이어 그만큼 보람찬 일이기에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불교의 희망이 사그라드는 작금의 현실에서 군포교와 대학포교만이 불교의 미래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처님 불사가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군장병들이 건강하게 전역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대학생 청년 포교를 위한 범불교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재양성 불사 등 세 가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불교 절실한 과제 ‘군포교’

“군장병 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불교에 절실한 과제이고 젊은 불자 육성에 씨앗이 되는 활동이니 종단 범불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 단장은 군포교 현장에서 탈종교 현상과 청년층의 불교에 대한 무관심 현상에서 청년 불교의 육성은 중요함을 역설했다.

“좀 더 군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몇까지 제언이 있습니다. 먼저 사부대중들의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계서 선교의 16개 단체가 있듯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포교 단체에 대한 지원 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청년 대학생에 대한 인재불사가 필요합니다.”

유 단장은 먼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중심으로 군포교지원단체 협의회를 재가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3년 간 열리지 않고 있다.

지성 · 대중 · 도시불교로

1970년 조계사 학생회서 감화
중앙대 대불련 이어 동문활동
신해행증의 수행차원서 포교

27년 부부법회, 군포교 원동력
기수 모임 이끌고 군법회도
“수처작주로 군포교에 최선을”

매년 군종병 공로패 전달
전역 후 찾아와 인사도
“군 법문이 불심 발현 영향”

유 단장은 협의회를 통해 가동이 되는 법당과 가동되지 않는 법당, 법사들의 법회 현황 등을 서로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활동에 어려운 점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다. 유 단장은 “대부분의 법사들이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아직도 법사가 없어 법회를 열지 못하는 군법당이 많이 있다”며 “시설과 비품을 위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력과 열정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부부법회 불심, 군포교 이어져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유 단장이 10년 넘게 군포교 활동을 해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유 단장은 가정에서의 든든한 지원을 들었다. 유 단장은 서울 목동 법안정사서 부부불자회 창립멤버로 2013년 부부불자회장을 맡는 등 27년간 꾸준히 정진해오고 있다.

“제 삶의 모토는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됨의 자세로 일관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과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 낼 때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신해행증의 체계대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유 단장은 “지성불교로서 대중불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속에 부부가 함께 사찰에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며 “그때 가정 속에 불교신행을 가져왔고, 이것이 포교의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초청법사를 모시고 부부법회를 하고 있다. 월 1회 산행법회 등으로 꾸준히 모임을 가진 부부법회의 도반들은 군포교에서의 도반이 되기도 했다.

“가정을 순례하면서 법회를 열며 불교는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도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포교까지 함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군법당에 가면 오히려 신심이 더 난다고 하십니다. 군포교는 군장병들에게 불자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지만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불자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유 단장은 13년째 개인사업인 건설업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모든 일이 상대를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고 참회진언을 외웁니다. 신심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그 다음은 군포교가 수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나섭니다. 결국 우리들 삶은 신해행증입니다.”

열악한 군포교 현장에서 묵묵히 전법의 길을 걸어온 군포교지원단, 그리고 유선재 단장. 이들이 간절히 발원한 것은 끝까지도 전법포교의 활성화였다. 열정 하나로 십 수 년간 전방 오지에서 포교활동을 이어온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야생 들개에게 공부를 시험받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⑮ 빠옥 총림에서 생활 〈5〉

선방 대청소로 좌선을 멈추고 일찍 내려오다 한국 스님들과 만났다. 같이 석양을 보러 산등성이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랐다. 정상에 이르니 이미 미얀마 스님들이 몇 명이 나와서 쉬고 있었다. 전경이 드넓게 펼쳐진 정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선원 공양물에 관한 화제로도 이어졌다. 그런데 공양물 가운데 칼집 낸 사과와 과일에 대해서는 계율 상의 이유가 아닌 먹기 좋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재가자들이 사탕수수즙을 보시한 것에 모두 감동의 이야기를 나눴다. 중간 휴식 때 근처 마을의 사람들이 사탕수수를 즙을 내서 패트병에 담아 모든 요기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 푸른 사탕수수 즙이 굉장히 달콤하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 주변의 일반인들까지 지원하는 것에 그저 감동할 뿐이다.

정상에 오르며 살펴보니 산자락마다 수많은 개인 수행처가 산재해있다. 나무로 짓는 개인 처소의 비용도 알게 되었다. 나도 하나 지어놓고 가끔 이곳에 와서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율장에 수닷타 장자가 하룻밤에 꾸띠를 60개나 건립해 보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사로 번역하여 하룻밤 사이 60개 정사(精舍) 건립으로 종종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열대지방의 목재 등을 이용한 가건물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각국의 불교권 문화에 관한 인류학적 차원의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니 꾸띠도 정사로 잘못 이해하기도 했다.

오늘로 미얀마 빠옥총림의 다섯 째 날(2012년 1월 26일)이 됐다. 지난 선방 옆 보리수나무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나에게 향을 보시한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임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다. 요기는 아침마다 식사 전에 합장한 채 공양게를 낭송하는데 그 의미를 일본인에게 묻는 것을 어느새 들었던지, 그 호주인은 〈데일리 찬트(Daily Chant)s〉라는 책을 총림에서 구하면 알 수 있다고 알려준다. 후에 자신이 직접 구해 와서 나에게 전해준다. 책의 내용은 빠옥 총림의 조석 예불문과 중요 독송 경전 등으로 편집되어 있다.

공양 전의 공양게는 스님이나 요기들이 탁발 전이나 공양 전에 낭송을 한다. 우리의 오관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음식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포함하여 수행생활을 하는데 의식주와 약에 관한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한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경구이다. 옷과 거처의 경우 추위와 더위를 막고, 벌레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음식도 몸을 지탱하고 수행하기 위함이지 즐기기 위함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약품도 병을 고치는 데에 목적이 있지 보양 차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양게이다.



빠옥총림 주변에 사는 야생 들개들. 허리춤까지 닿을 정도다. 이 들개들에게 공부를 시험 당했다.



사탕수수를 착즙해서 선원 수행자들에게 보시한다.

호주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곳에 온지 약 3개월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머리를 삭발하고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덕담으로 자비심이 많은 것 같다고 칭찬해주었더니 겸연쩍어한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스님들이 도량 청소와 도량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젊은 수행자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선원이나 선방에서는 요기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말한다. 이전의 인도의 고엔까 선원이나 마하시에서는 독서를 금기시 했지만, 이곳은 조금 다르다. 도서관이 잘 되어있고 선방의 좌선 방석 위에 책들이 있는 경우도 많다. 중간 중간 휴식 시간이나 경행 시간에도 책을 보는 스님들이 있다. 또한 선원에서는 예불 의식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다함께 예불한다. 어찌 보면 이곳 선원은 선(禪)과 교(敎)를 겸수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과 교도 배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동아시아 중국 선종 전통처럼 선과 교를 배타적으로 보려는 분위기와는 다르다.

선실에 앉아있노라면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번갈아가며 끊임없이 들려온다. 집중이 잘되는 선정에 이르면 소리부터 들리지 않는다. 즉 초선은 이미 외부의 소리로부터 떠난 경지로 경전에서 설명한다. 그렇게 볼 때 아직 초선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짜 집중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것도 못보고, 다 들었다는 소리도 또한 자신만은 듣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는 꼭 참선할 때 삼매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사에서도 비슷하게 체험된다.

간밤 좌선 마치고 걷는 밤길서
들개들에 포위… 종아리 물려
차분히 마음 다잡고 빠져나와

빠옥은 독서 · 글쓰기 자유로워
예불도 철저… 선교겸수 강조

선방을 오르내리다보면 여기서도 청솔모를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외래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괜히 생긴 것부터 잔인하게 느껴져 얄밉다. 같은 생각은 한국서 청솔모가 양서류는 물론 귀여운 다람쥐까지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갖게 됐다. 청솔모를 얄밉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청솔모에게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이 방을 쓰는 스페인 요기가 요즘 자비심을 닦는다고 밤에 잘 때도 〈자비경〉을 되새기며 잔다고 하니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동물에 대한 자비를 다시 생각해본다.

간밤에 좌선을 마치고 선방에서 나오니 밤하늘이 유독 청명하다. 바로 잠자기가 아쉽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홀로 나와 천천히 걸어 본다. 길가의 큰 나무들 사이로 이어진 긴 길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 새 중간 절 가까이 발전소까지 이르렀다. 아무도 없는 한 밤중에 큰 나무 사이사이가 그림자로 어둑어둑하다.

숲속에는 거의 야생 들개들이 여기저기에 살고 있음을 대낮에 보아왔다. 그러한 개들이 어느새 나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는지 멀리서 한 마리가 짖어 댄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계의 짖음이다. 그래도 무시하고 걸으니 순식간에 허리춤까지 닿는 예닐곱 마리의 큼직한 개들이 모여들어 삽시간에 나를 포위한다. 순간 아찔하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국 스님이 밤길을 가다가 이쯤에서 개에게 물렸다는 이야기도 생각났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개떼에 낭패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후회가 일었다. 개떼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을 빙빙 돌며 으르렁거리며 짖어댄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동요하는 기색을 감추고 마음을 다잡아 안정시키면서 더욱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가는 것을 멈췄다. 돌아서 가능한 빨리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다. 슬며시 아주 천천히 돌아설 때 뒤에서 개 한 마리가 내 종아리 윗부분을 문다. 순간 물렸다는 서릿발같은 싸늘한 느낌이 전신을 타고 흐른다. 그저 아찔한 생각에 사로잡혀 혼미해지려 한다.

온 몸이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는 생각이 일어난다. 겁을 먹고 위축되거나 도망가면 오히려 개떼가 사나워져 만신창이로 물어뜯길 수 있다. 조금이라도 겁먹은 기색을 보이면 개떼들의 공격성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마음 속으로 '동요하지 않고 최대한 무심하게 걷자, 무심하게 걷자' 를 되뇌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었다.

개떼들이 계속해서 앞뒤로 돌면서 으르렁거리고 짖어댄다. 한참이 지났는가! 점점 멀어지니 개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짖어만 댄다. 내심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때부터 드는 생각은 개에게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동물로부터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잇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근처에 암캐가 6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한다. 인도 유학 시 밤늦게 홀로 다닐 때도 몰려다니는 거리의 개떼를 늘 보아왔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여기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개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로부터 1년 뒤 인도에서 같이 공부했던 미얀마 스님의 지방 사찰을 찾았다. 도량에 마찬가지로 개들이 있어 체험담을 전했더니 스님은 나를 바라보며 빙긋 웃으면서 "개들이 너의 공부를 시험했다"고 하였다. 지금도 개떼에 대한 두려움과 모욕감을 느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하다. 이러할진대 청설모나 개에게 자비관이 가능한가! 아직도 주저해진다.

오늘 새벽은 3시 30분 전에 일어나 선방에 올랐다. 선방에서 잤던 스님들을 제외하는 첫 번째 입실이다. 어둠 뒤 해골바가지를 똫어지게 쳐다본다. 약 1시간 45분을 앉았으나 캄캄한 조명이어서 그런지 호흡관이 선명하지 않다. 아침을 든 후 오전 9시까지의 수행 또한 순일하지 않다. 가끔 순간 잠에 꾸뻑 떨어지기도 하고 명료한 의식상태로 나아가질 않는다. 정신 차리고 보면 많은 스님과 재가 요기들은 모두 조용히 수행할 뿐이다.

인터뷰를 위해 바로 내려왔다. 같이 방 쓰는 스페인 친구가 벌써 내려와 있다. 스페인 요기는 오개(五蓋)와 관련한 자신의 상태를 질문하고 다음은 나의 차례가 되었다. 먼저 새벽과 밤인지 명료한 의식 상태가 진행되기보다는 약간의 혼침 상태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는 '불을 꺼서 캄캄해서라기보다는 이전의 습관이지 않겠는가' 라는 답변을 해준다. 캄캄한 곳에서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좌선을 해왔지만 이곳처럼 완전히 소등하고 캄캄한 곳은 처음이다. 물론 선방이 아닌 내 처소에서 할 때도 어두운 경우는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났는데, 전번 인터뷰 때 빠옥 총림에서 제시하는 것은 〈청정도론〉의 수행법으로 출입식염 시에 코와 인중 주변의 한 점에 집중하라고 한다.

혹시 이러한 행법이 경장(Pañca Nikāya)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스님은 바로 "경전에서는 분명히 제시해줄 수 없고, 〈청정도론〉과 같은 주석서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한다. 스님은 나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서 "만약 이러한 주석서를 준거로 삼지 않는다면 각자 개인적인 이해에 따를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반드시 주석서를 경장 이해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상좌불교 전통의 공부 태도와 수행 자세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현장이었다. 경장만 가지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긍하고 삼배를 드리고 물러 나왔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4~8/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2	천태소지관	천태대사/운현로	운주사	7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3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8	노장으로 읽는 선어록	이은윤	민족사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마음공부 길잡이(원불교 입문서)	김일상	원불교출판사
5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김용옥	통나무	10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원행스님/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무릇 천하에는 불교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벽산 원행, 자현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2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스님〈오른쪽 사진〉의 첫 저술이다. 여러 권의 불교 교양서를 집필한 대표적 학승 자현 스님과 공저했다. 백곡 스님의 숭고한 실천을 널리 알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귀감으로 삼고자 원행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저본으로, 그 위에 백곡의 생애와 우리말로 번역한 〈간폐석교소〉 원문을 덧붙여 펴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일대 전환기 속에서 한국불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의식과 선공후사 멸사봉공의 자세이며 그것이 실천종교로서 불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저자들의 메시지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잊혀서는 안 되는 시대의 불꽃, 백곡 처능

백곡 처능(1617~1680) 스님은 광해군 8년인 1616년 인도 스님에게 구슬 2개를 받아 삼키는 태몽 속에 잉태돼, 이듬해인 5월 3일 아버지 전씨와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탄생했다. 이후 12세에 벽암 각성의 제자인 의현에게 출가하고, 17세부터 20세까지는 선조의 부마인 신익성에게 승려의 신분으로 유학과 시문을 수학한다. 이는 백곡이 유학과 역사 및 시문에 능한 배경이 되는데, 이로 인해 문장가로서의 명성을 크게 떨친다.

이후 20여 년간 사법 스승인 벽암 각성을 모시며, 전란 과정서 파괴된 사찰과 민중을 추스르는 실천행을 펼친다. 그러다 45세가 되던 1661년 현종과 유교 대신들이 불교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목숨을 내놓고 불교 탄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문인 〈간폐석교소〉를 올린다. 이로 인해 폐사의 위기에 직면한 봉은사와 봉선사가 존치될 수 있게 된다. 50세에 백곡은 정부로부터 남한산성 승통(僧統)에 제수되며, 54세에는 남한산성 도총섭에 오른다. 그러나 중생구제를 더 중시한 백곡은 오래지 않아 사임하고, 교화와 수행에 매진한다. 1680년 64세의 고령으로 모악산 금산사에서 5일간의 대법회를 주관하고, 6월 20일 가벼운 병증이 나타나 7월 1일 금산사에서 평온한 입적에 든다.

왕조 국가에서 국왕은 절대점에 위치한다. 이런 국왕을 상대로 비판의 칼날을 겨누며 조선 불교를 지켜낸 승병장인 벽암 각성의 사법제자가 바로 백곡 처능 스님이다. 백곡의 의기는 한국 불교사에 일대 획을 긋는 사건임에도 어찌 된 일인지 우리들 기억에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조선 중기를 가르는 왜란과 호란은 방만한 유교 사회에 불어닥친 외부적 충격이자 희대의 비극이었다. 전란의 상황에서 국왕과 유생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도망칠 때, 스님들은 승병을 조직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산화하는 의기를 떨쳤다. 그럼에도 조선은 혼란이 수습되자, 스님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불교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을 정면으로 비판한 8,150자의 상소〈간폐석교소〉가 현종에게 올라간다. 왕조 국가에서 국왕에 대한 비판은 유래가 없는 일이며, 그것도 숭유억불의 조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온몸으로 불교를 지켜낸 숭고한 이가 바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 백곡 처능 스님이다.

백곡은 백성과 함께 아파하고 시대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진정한 수행자였다. 또 그가 쓴 〈간폐석교소〉서 확인된, 불교를 넘어서는 방대한 지식의 스펙트럼은 학인들의 지남철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백곡은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와 한국 불교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조선 중기 가혹한 척불의 시대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냉철한 논리로 척불의 시정을 촉구한 백곡 처능의 〈간폐석교소〉는 조선조 500년간에 걸친 배불 정책하의 불교사에서, 단 한 편의 반박 상소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높다.

가혹한 불교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다

조선 초인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교 탄압 정책은 조선 중기로 오면서 더욱 심해진다. 세조의 돈독한 신심과 불교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세조의 죽음 이후 불교를 탄압하려는 시도는 더욱 격렬해졌다. 당시 유생들의 상소에 실려 있는 표현 그대로 불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 온갖 행태가 자행된다. 그 결과 연산군 · 중종 대에 이르면 그나마 남아 있던 선종과 교종 두 종파마저 모두 없어지고, 조선 초기 이래로 실시한 승과고시제마저 철폐된다. 이로써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은 차단되고, 승려의 신분을 인정하는 제도마저 모두 폐지되는 등 노골적인 폐불 정책이 시행된다. 당시 이미 조선의 승려들은 도성 출입을 금지당하는 등 심한 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더 이상 불교의 소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었다.



한국불교사 바꾼 단 한번의 상소문
〈간폐석교소〉올린 백곡 처능 일대기
백성과 함께 아파한 진정한 수행자

다행히 문정왕후가 등장하면서 새 국면이 펼쳐진다. 문정왕후는 선종과 교종을 부활하고 승과와 도첩제를 실시해 선종과 교종 양쪽에 각각 30명의 승려를 뽑고, 전국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하는 등 과감한 불교 중흥 정책을 전개한다. 또한 양주 회암사에 있던 승려 보우를 맞아들여 봉은사 주지로 임명했으며, 훗날 중종과 함께 묻힐 마음으로 서삼릉에 있던 중종의 능을 봉은사 인근인 정릉으로 이장한다. 문정왕후의 노력 덕분에 불교 교단은 활기를 띠었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실시한 승과를 통해 대두한 인물들이 청허당 휴정과 사명당 유정, 뇌묵당 처영 등이다.

그러나 당시 유생들은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 노력에 격렬히 반발한다. 각지서 보우를 타도하라는 상소와 승과를 폐지하라는 상소가 빗발친다. 보우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못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는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정왕후 덕분에 잠시나마 부흥의 빛을 보인 불교계 고승들은 유생들의 탄압에 다시금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얼마 뒤 발생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 이들은 승병이 되어 나라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하는 데에 앞장선 덕분에 임진왜란 이후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는 다소 나아졌지만, 위정자 및 유생들의 부당한 핍박과 시달림은 계속되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비롯한 주요 산성을 쌓고 지키는 일은 모두 승려에게 맡겼고, 관가와 유생들에게 종이와 기름, 신발 등을 만들어 바치게 했으며, 그 밖에 잡역도 부가되었다. 특히 현종은 즉위(1659년)와 동시에 양민이 출가해 비구나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했고, 이미 비구나 비구니가 된 사람들도 환속할 것을 명령했다. 또 서울의 비구니 사찰인 자수원과 인수원을 철폐하고, 거기에 모신 여러 선왕의 위패를 땅에 묻어버렸으며, 사찰 소속의 노비와 밭은 모두 몰수했다.

이와 같은 가혹한 불교 탄압 속에서 정면으로 자신의 뜻을 밝힌 승려가 바로 백곡 처능이다. 백곡은 현종이 불교를 탄압하자 그에 항의하는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조선왕조 척불 정책과 배불 사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 탄원 형식의 상소문이 바로 〈간폐석교소〉이다. 〈간폐석교소〉는 조선시대 모든 상소문 중 가장 분량이 많은 것으로 현종의 불교 박해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곡이 〈간폐석교소〉를 집필한 동기

백곡 처능은 조선시대 가혹했던 배불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를 촉구한 유일한 승려로 기록되지만,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의 유문집인 〈대각등계집〉과 〈백곡선사탑명〉, 이 탑명을 쓴 최석정의 〈명곡집〉 등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의 행장을 일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적 재능이 무척 뛰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걸출한 선배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칭찬을 받았음은 물론, 효종 역시 세자로 있을 때 백곡의 글재주가 높은 경지에 있음을 극찬할 정도로 시에 대한 재주가 탁월했다.

백곡은 많은 사례와 경전 등을 근거 장문의 〈간폐석교소〉를 지어 당시 가혹했던 배불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간청했다. 백곡은 이 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는 근거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다고 조목조목 대응했다. 그러면 백곡이 이와 같은 장문의 〈간폐석교소〉를 제출한 동기는 무엇일까?

"삼가 승정원서 반포한 의결 사항을 보고 엎드려 성지를 받잡건대, 승려를 모두 말살하기 위해 비구니는 환속시키고 비구도 역시 없애기로 의논이 되었다 하옵니다. 신은 실로 우둔하여 전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엿보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붓을 들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 계기가 있다. 우선 현종이 즉위하자 양민이 출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비구나 비구니가 된 자는 모두 환속시켜 그것을 어기는 자는 벌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듬해 정월에는 부제학 유계(兪棨)가 상소를 올려 이단을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현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 도성 안에 있던 자수원과 인수원의 혁파를 명령했다는 것도 직접 계기가 되었다.

〈현종실록〉에 따르면 자수원에 봉안된 여러 성인의 위패를 땅에 묻도록 했다는 사실과 선교 양종의 수사찰이던 봉은사와 봉선사까지도 철폐해 승려들을 환속시키고 불교를 무너뜨리려 했던 정황도 백곡을 자극했다. 이와 같은 당시 불교계의 절박한 현실 문제가 상소의 직접 동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첩제와 승과제의 폐지 등 가혹한 척불시책에 대한 부당함이 백곡으로 하여금 〈간폐석교소〉를 쓰게 하였다.

〈간폐석교소〉, 그 후

백곡이 상소를 올린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 후 몇 가지 조치와 추이 과정을 통해 짐작해볼 뿐이다. 서울의 비구니 사찰인 자수원과 인수원의 양원은 이미 철폐되었지만, 봉은사와 봉선사는 끝까지 존속되었다. 또 현종이 만년에 봉국사(奉國寺)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믿은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현종 15년에 백곡이 남한산성도총섭에 임명되었다는 점 등은 백곡 처능의 상소가 어느 정도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벽산 원행 스님은?

스님은 1973년 태공 월주 큰스님을 은사로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서 출가했다. 그 뒤 해인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서 수학했다. 2008년 한양대학교서 석사학위를, 2013년에는 한양대 대학원서 〈조선 초기 관료들의 성리학적 정치 이념과 함허 선사의 현정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스님은 나눔의 집 원장,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 및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7교구 금산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중앙승가대 총장,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그리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직을 맡고 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우수학술도서
자현/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39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양장/536쪽/27,000원

40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양장/312쪽/17,000원

41 불교교육론
이송곤/양장/528쪽/27,000원

42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양장/328쪽/18,000원

43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양장/384쪽/20,000원

44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양장/824쪽/3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진으로 다시 새긴 천년 마애불상군

장명확 '마애불상군(群) 돌 · 부처를 만나다' 展
서울 나우갤러리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마애불상군을 테마로 한 사진전이 열린다. 10년 넘게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마애불상군을 카메라에 담아온 장명확 사진가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나우갤러리에서 개인전 '마애불상군 돌 · 부처를 만나다'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 탑곡 삼존불을 비롯한 마애불상군 흑백사진 20여 점이 전시된다.

"마애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마애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돌에 새긴 그림(불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천 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것으로 선조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마애불 앞에 서서 그 오랜 염원과 시간을 카메라로 발라내려고 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석불 앞에 서면 우리들의 선조들이 마애불 앞에 서서 많은 기원을 했다는 사실과 천 년이란 긴 시간이 불보살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흥은 더욱 커진다."

마애불은 순수하게 불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조성된 것도 있지만 많은 마애불에는 불교적인 신앙과 함께 바위신앙, 자연신앙, 민속신앙 등 여러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함께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의 여러 신앙적 요소가 함께 하면서 민중들의 간절한 기원이 깃든 신행의 공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의식이 깃들어 있어 종교와 예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늘날의 자연미술이나 환경미술적 시각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진가의 카메라가 담아낼 만한 소재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애불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마애불상군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알리려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 작가가 마애불 중에서도 군을 이루고 있는 마애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마애불상군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형식미와 좀 더 많은 대중에게 마애불상군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다. 마애불상군에는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물론 사천왕과 공양자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바위라는 자연적 소재에 그려진 불보살의 모습은 신앙의 표출이면서 예술적으로 들여다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서방정토를 바라보는 듯한 먼 시선의 칠불암 석불, 흘러가는 구름을 이고 산인 듯 나무인 듯 서있는 경주 탑곡 삼존불, 거대한 바위 속에 나란히 앉은 따뜻한 두 부처, 한 편의 탱화 같은 부처님과 사천왕들…. 사진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마애불이다. 색깔을 버리고 흑과 백만으로 새겨낸 형식적 변환에서도 또 다른 마애불을 볼 수 있다. 장명확이 다시 새겨낸 마애불이다. 장 작가는 숲 속에서 만난 마애불에서 천년을 보려 했고, 그 천년 속을 지나간 우리의 지난날을 보려한다.

"지금도 마애불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마애불에 천년 만년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마애불이 나의 시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닌 여러 불보살이서 조형적으로도 사진적 구도에 부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간직하고 있는 마애불상군이 이제 내 카메라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려 한다."

장명확 사진가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1988년 주간스포츠 사진부에서 사진기자로 일했다. 보도, 출판,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불교 관련 사진을 찍어왔으며 G20 정상 증정을 위해 문화부에서 간행한 화보집에서 불교 분야의 사진을 담당했다.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을 마치고 원광대학교, 동방불교대학교, 중국 연변대학교 등에서 사진학을 강의했다. 〈붓다의 제자 비구니〉, 〈깨달음이 있는 산사〉, 〈길 위에서 삶을 묻다〉 등 40여 권의 도서에서 사진 작업을 했다. 특히 월간 〈불교와 문화〉, 진각종, 원불교, 백양사, 불교 방송 등과 함께 불교 관련 촬영에 힘쓰고 있다. 월간 〈불교와 문화〉의 사진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사찰을 찍고 있다. 12017년 8월에는 첫 사진전인 〈달빛 아리랑〉을 개최했다. 전국을 돌며 마애불상군(群) 사진도 오랫동안 찍어왔다. (02)725-2930.

내면의 소리로 그리는 힐링 만다라


내 소리 만다라 작품5.

'내 소리 만다라치유' 출판 · 전시
출판기념회 8월 20일
전시 8월 20~22일

현대인의 심신은 고단하다. 그 고단함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책이 출간됐다. 김민찬 박사의 〈내 소리 만다라치유〉다. 저자는 8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책 속에 소개된 그림들을 전시한다.

〈내 소리 만다라치유〉는 내 소리 심신치유법 중 하나로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림명상 치유법을 소개한다. 내 소리 만다라는 그림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그릴 수 있으며,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됨으로써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다. 김민찬 박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변화와 경험을 보며,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내 소리 만다라치유' 를 알리기 위해 출간했다.

현재,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인 저자 김민찬 박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세상' 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문화와 예술로서 치유되지 않은 수많은 고민과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이 건강해지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내 소리 심신치유법을 학문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사용된 '만다라' 는 치유를 위한 그림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브 융(Jung)에 의해 심리치유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미술 갤러리처럼 내소리심신치유연구회 연구원들과 정기 강좌에 참여한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그리고 만다라를 그리면서 느꼈던 소감을 일부 발췌해 기록했다.

△2부는 내 소리 만다라치유의 정의, 효과와 치유의 원리, 그리고 만다라의 기원과 상징 등 '내 소리 만다라치유' 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3부는 연구사례다. 21명의 참여자들은 5개월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총 20회기에 걸쳐 만다라를 그렸고, 각 회기별 소감과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체험 소감을 기록했다.

김 박사는 내 소리 심신치유법을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내 소리 심신치유가 성인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 과 '내 소리 만다라치유가 중년기 불안 및 우울과 위기감 극복에 미치는 효과' 등 3편의 학위논문을 저술했다. 이번 책은 위의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070-4189-7771(내소리심신치유연구회).

박재완 기자

國博 불교회화실 교체

8월 6일부터…'깨달음 향한 여정'
마곡사 괘불 등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이 새로운 성보문화재로 관람객을 맞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8월 6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해 선보인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 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가르침이 오가는 설법(說法)의 자리에 함께 했던 부처와 보살 · 신중의 이야기, 깨달음에 정진했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불교회화와 조각, 사경(寫經) 등이 공개된다.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의 공간에는 모란꽃을 든 아미타불의 귀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천왕을 비롯해 제자, 보살, 천자(天子)와 그들이 이끄는 무리가 모여 있다.

꽃을 든 부처의 모습은 '공주 마곡사 괘불' 처럼 연꽃을 들어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석가모니불한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꽃을 든 아미타불은 보기 드문 독특한 도상이다.

이와 더불어 석가모니불의 설법에 담겨 있는 심오한 교리와 가르침을 정성스레 옮겨 적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고려시대 '법화경 변상도(사경)' 도 함께 전시된다. 변상도 속에서 석가모니불의 설법 모습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불(成佛)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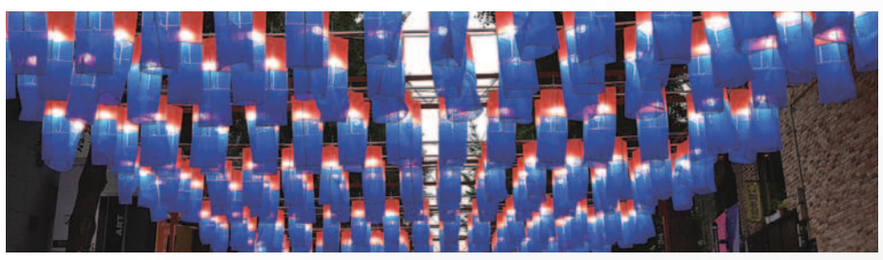
이밖에도 중생 구원을 위해 또 다른 깨달음의 길을 걷는 보살을 그린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는 지장보살과 시왕' , 중국에 선종의 가르침을 전한 '달마대사 진영' , 인도 승려로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가르침을 전한 '지공화상(指空和尙) 진영' , 지공의 선법(禪法)을 이어받은 '무학대사 진영' 등 관련된 21점이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깨달음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떠났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문화재를 통해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은 8월 6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 교체 전시를 진행한다. 사진은 전시되는 공주 마곡사 괘불.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만해 · 무산, 계보학으로 살피다

고영섭 교수, 8월 11일 만해학회 학술세미나서

두 선지식 생애 · 사상 비교
승려 · 문인이란 공통점 지녀
주요 시어들 지향점 같아

만해-화엄선, 무산-임제선
각 佛說 · 祖設 상이함 존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한국 독립운동사와 문학사는 물론 근대불교 운동에도 큰 족적을 남긴 선지식이다. 만해 스님의 문학 혼과 사상을 선양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친 설악 무산 스님(1932~2018)은 수행자이자 시조시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다. 근대와 현대를 관통한 두 선지식의 연속 · 불연속성을 계보학으로 살펴본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8월 11일 인제 만해마을 만해학교 세미나실에서 '만해와 설악 조오현'을 주제로 열린 만해학회 제19회 학술세미나서 '만해 봉안과 설악 오현의 연속과 불연속'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연결 지점을 고찰했다.

고영섭 교수는 그간 논의돼 온 만해의 계보학은 "철학 · 사상 · 지성 · 문중의 계보학"이 중첩돼 있음을 전제했다. '만해와 그의 제자들'로 거론된 무호, 범산, 춘성, 무산 등은 대일항쟁기 불교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구심이었던 만당의 당수 만해를 중심으로 활동했거나 더러는 그의 입적 이후 그의 정신을 계승해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중 무산 스님은 앞선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지점에 서 있다. 무산 스님은 직접 교류보다 만해의 거처였던 백담사에 주석하면서 선승과 시승으로



만해 스님(1879~1944)



무산 스님(1932~2018)

서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해서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시맥과 선맥에서 두 선지식의 연속 · 불연속성을 찾았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 스님이 "의지와 지조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애국지사'라는 스님을 표상하는 수식어는 "시인과 선승을 통섭하는 꼭지점이 된다"고 봤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의 선맥은 임제선맥을 이어받은 청허계의 5대손인 환성 지안의 12세손이자 청허의 16세손"이라며 "그의 살림살이는 교법의 집대성이자 붓다의 연화장 장엄세계를 향상일로로 그려온 '화엄선풍'"이라고 분석했다.

시맥에 대해서도 "〈유심〉에 실린 '심'과 '님의 침묵'에서 보이는 '님'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라며 "그가 보여준 부드러움의 시학과 강렬함의 미학은 만해 시의 특징"이라고 평했다.

무산 스님은 선맥에 있어서는 만해와 차이점을 보인다. 고영섭 교수는 "무산 스님은 선교겸수의 살림살이를 보여준다"면서 "그의 선맥은 임제선맥을 이어받은 청허계의 5세손이 되는 환성 지안으로부터 법맥을 이어 받은 용성(진종)의 4세손이자 청허의 9세손이 된다. 그가 추구한 선지는 살불살조의 살림살이로 그려온 임제선의 가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해 스님의 주요 시어인 '님'과 '달인', 무산 스님의 '어린 양'과 '유랑승' 등은 상통한다는 게 고영섭 교수의 주장이다.

고영섭 교수는 "만해와 무산 스님은 승려이자 문인으로 이들은 '님'과 '달인', '어린 양'과 '유랑승' 등의 시적 자아가 상통한다"고 주장하면서 "만해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님'은 무산이 높게 실현해 온 '달인'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구현해 온 '님'과 '달인'은 만날 뿐만 아니라 통했다. 그것은 출가 초기에 비구 걸사가 갖는 겸허한 마음에서 통섭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선지식이 추구한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없지 않다"면서도 "이들의 시적 자아가 상통 · 상이하는 지점에서 승려와 시인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며 해탈의 삶을 추구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만해학회 학술세미나는 만해학회의 '만해의 계보학' 주제 5번째 기획으로 △조오현의 〈백암록〉(1997), 〈무문관〉(2007)의 가르침과 즐김의 뜻(한명환 · 순천향대) △조오현의 선시 연구(윤재웅 · 동국대) △무산 십현시에 나타난 무애와 역설의 시학(이지엽 · 경기대) △조오현의 일반시론(이동재 · 대진대) 등이 함께 발표됐다.

통계 데이터로 분석한 초기경전

주목! 학술서- 일아 스님의 〈빠알리 니까야 통계분석 연구〉

흔히 부처님의 설법을 팔만 4천 법문이라고 한다. 그 방대한 법문 안에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 무수한 사람들과 주석처들이 등장한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가져봤을 의문. 부처님은 어느 사찰에 가장 많이 머무셨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까. 초기불교 전문가인 일아 스님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서를 내놨다.

일아 스님의 〈부처님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빠알리 니까야 통계분석 연구〉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획기적인 초기경전 통계 분석 연구서로 맛지마 · 디가 · 상윳따 · 앙굿따라니까야, 5434개의 초기경전 연구를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책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로 어디에 머물렀으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법을 설했는지를 매우 촘촘하게 분석하고 있다.

통계에 따라 도표를 그려서 비교하였고, 자료마다 특성을 고려해 높은 빈도수를 표시했으며, 승원과 각 장소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 장소들을 다시 인도 지도에 표기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주석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파악하게 했다. 또한, 빈도에 따라 경전에 등장하는 중요인물 6명의 존자와 2명의 비구니, 대화상대자로 나오는 재가자 6명을 선별해 그 면모를 살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초기경전 통계 연구서인 〈빠알리 니까야 통계분석 연구〉는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은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각각의 경전에 나타난 △장소 △중요인물 △대화상대자 △설법형태를 빈도수에 따라 통계표를 작성했다.

제2편은 니까야 각각에 나타난 설법 장소에 관한 설명이다. 설법 장소로 가장 중요한 기원정사를 자세하게 다뤘으며, 그 외의 승원과 각 니까야에 나오는 장소들도 모두 설명했다.

또한, 경전 자료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안내판 자료나 그 외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하여 폭넓게 조망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경전에 언급된 내용에서부터 바르후뜨 탑과 산찌 탑의 각문 자료, 각 주석서에 언급된 자료, 알렉산더 커닝햄의 고고학적 발굴 자료, 법현의 불국기와 현장의 대당서역기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빠알리 니까야의 특성을 도출한 점이 눈길을 끈다.



4부 니까야 5,434개 경전 연구
설법처 · 대화인물 등 통계 분석
도표 · 지도 시각화… 파악 용이

제3편은 니까야에서 파악된 각각의 통계 자료에 따라 지도에 설법 장소를 표기했다. 이는 얼마나 다른 장소에서 부처님이 머무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저자에 따르면 제1편과 2편에서 살펴본 통계를 바탕으로 상윳따니까야에는 총 77곳의 장소가, 맛지마니까야에는 46곳, 디가니까야에는 24곳, 앙굿따라니까야에는 60곳의 장소가 기록됐다.

마지막 제4편은 니까야에서 검토한 '중요인물 빈도수 도표'에 의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존자 6명과 중요한 비구니 2명을 선별해 그들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스님이 통계를 통해 밝힌 중요 존자는 사리뿟따 존자, 아난다 존자, 마하목갈라나 존자, 마하깟짜나 존자, 마하깟사빠 존자, 아누룻다 존자이며, 중요 비구니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 케마 비구니이다.

중요 재가자로는 아나타삔디까 장자, 위사카 재가녀, 빠세나디 왕, 빔비사라 왕, 찟다 장자, 지와까 꼬마라밧짜가 이름을 올렸다.

연구서에 대해 일아 스님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인 '니까야의 도표와 그림표'를 좀더 보충해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완벽을 도모하다보니 방대해졌다"면서 "이 연구서가 부처님의 설법 배경에 관련한 자료로서 좀 더 유용하고 명확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월산 대종사 삶 · 사상 조명 '본격화'

월산문도회 · 대각사상硏 9월 1일 학술세미나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성림당(聖林堂) 월산(月山) 대종사(1913~1997, 사진)의 삶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국사 월산문도회(대표 성타)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금오문중의 위상부터 월산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월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월산 스님의 선사상(1)'을 통해 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월산 스님의 수행 정신을 살필 예정이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을,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월산 스님과 불국사 선원'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 동국대 경



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불국사 월산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은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 사상, 수행과 포교에 담긴 업적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조계종 발전과 불국사 중창을 통한 불교문화 진흥 공헌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13년 함경남도 신흥서 태어난 월산 대종사는 194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신흥사 · 동화사 · 법주사 · 불국사 주지를 거쳐 총무원장 · 원로회의 의장등 종단의 주요 종무직을 역임했다. 월산 대종사는 경허-만공-금오로 이어지는 임제선사의 법맥을 계승한 선지식으로 한국 선종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⑮ 입추(立秋)
석이찹쌀전병 · 능이두부선 · 버섯들깨찜

산들바람에 흐르는 버섯향

가을 문턱이 성큼 다가온 입추는 백중보다 빠른 날짜 탓에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올해는 유독 늦더위가 심해서일까….

잠시 〈열양세시기〉를 살펴보니 7월 보름을 백중절(百種節)이라고 하고, 8월 보름을 가배일(嘉排日)이라고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라와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하여 우란분(盂蘭盆) 때 공양하는 옛 풍속을 모방, 7월 15일 중원일에 백종(百種), 즉 온갖 꽃과 과일을 갖추어 공양하고 복을 빌었으므로 백종절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온 국민이 백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조상의 천도를 위해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기록에 남아 있다.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은 간소해지지만 원력과 발원은 계속되기를 염원해 본다.

각설하고 가을이 시작되면 산에서는 송이가 모습을 보인다. 가을철 해인사는 송이가 많이 나서 노스님께서는 새벽 일찍 소쿠리 하나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가 소쿠리 가득 송이를 따가지고 오시며 "대문 걸어라" 말씀하셨다.

송이가 무언지 모르는 청춘일 때라 노스님이 시키는 대로 거동만 살핀다. 텃밭에 나가 호박하나 따오고, 튼실한 송이는 몇 입씩 맛을 본 후 애호박편수를 만들어서 여남은 개씩 맛을 보고 산중 어른스님에게 배달을 시키신다. 온 산중의 스님들이 송이 따러 바쁜 걸음을 하니 서로서로 쉬


석이버섯찹쌀전병


능이두부선


버섯들깨찜

쉬하며 대중끼리 입을 덜게 하셨다.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은 송이향은 해마다 기억의 편린 속에 머물러 있다. 노스님의 발자취를 매번 놓치고 홀로 희랑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도 혼자서 송이를 따보자는 심산으로 산을 헤맸다. 송이가 나는 자리는 역시 다르구나. 한두 개가 아니다 열댓 개를 한번에 따서 누가 볼 새라 재빠른 걸음걸이로 도량에 들어서니 노스님께서 그새 와 계신다.

"대안이 네 송이 땄나? 어데서 땄노? 네 신통허다."

칭찬 덕분에 산을 향한 발걸음이 잦아졌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길상암 건너 산까지 내려가서 겨우 돌아온 후 호되게 혼이 났다.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비 오는데 산에 갔노."

고무신에 온몸은 흙투성이 꼴이 되어 나타나니 꾸중 들을 일이었다. 몇 해가 지난 후 노스님이 부르시더니 "대안아 내 송이밭 네게 가르쳐주마"라고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짚고 이산 저산 오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송이는 간장장아찌를 담가두고 특별한 날이 되어야 맛을 볼 수 있다. 염도를 낮추어 적당히 짠맛을 갖춘 송이장은 간장까지 다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 장물이 남으면 늦가을 무말랭이를 만들어 송이장에 박아두면 이듬해 봄철 밑반찬으로도 쓸모가 있다.

그 귀한 송이도 저장이 어려워서 세 번째 버섯으로 내려앉고, 일능이 이표고 삼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능이도 귀하지만 나는 나름 석이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석이버섯은 바위에 종균이 퍼지는 기간만도 족히 30년은 걸린다. 석이를 채취하러 지리산 백무동을 수없이 갔었고 해인사 매화산을 여러 차례 다녔다. 손쉽게 딸 수 있는 버섯도 아니고 운이 좋아야 남의 손 안 탄 석이를 만날 수 있다. 배낭 가득 담아 부서지지 않게 돌아오는 길은 걸음도 무척 가벼웠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곳을 찾아갔지만 석이는 아직도 종균을 퍼트리느라 흔적만 키우고 있었다. 지나치는 산길마다 잡버섯들이 고개를 내민다. 한꺼번에 많은 버섯을 먹을 수 있는 버섯들깨찜 역시 기호식품이기도 하다.

석이버섯찹쌀전병

재료: 석이 50g, 찹쌀가루 2컵, 집간장 2T, 참기름 1T, 콩기름 약간

1. 석이는 끓는 물에 데쳐서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2. 석이를 맑은 물로 여러 번 헹군 다음 바위에 붙은 부분인 배꼽을 떼어낸다.
3. 물기를 짜내고 참기름과 집간장을 무친다.
4. 찹쌀가루를 석이에 묻힌다.
5. 불 위에 팬을 올리고 중불로 달군 다음 석이를 누르면서 익힌다. 불이 세면 석이가 모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조절이 중요하다.

능이두부선

재료: 두부 1모, 능이버섯 1개(20g), 집간장 1T. 참기름 1T, 부침유 1T(들기름+식용유)

1. 능이는 물에 불린 후 건져 다진 다음 집간장과 참기름에 버무려 마른 팬에 덖는다.(능이 국물은 버리지 않고 찔 때 사용한다.)
2. 두부는 직각으로 자른 다음 엑스자로 칼집을 내고 팬에 지진다.
3. 구운 두부 칼집사이에 다진 능이버섯을 넣는다.
4. 냄비에 두부를 담고 능이국물을 두부에 끼얹고 1분간 끓인다. 접시에 담아낸다.

버섯들깨찜

재료: 표고버섯 2~3개, 느타리버섯 60g, 만가닥버섯 60g, 불린 목이버섯 50g, 당근 20g, 삼색파프리카 ¼개씩, 집간장 1T, 들기름 1T, 들깨가루 2T, 소금 약간, 쌀가루 2T, 마른표고버섯(중) 3개, 다시마5×5㎝ 4장

1. 마른표고와 다시마는 물 2컵을 넣고 5분간 끓여 채수물을 낸 후 집간장을 넣고 맛국물을 준비한다.
2. 목이버섯은 물에 불려 손질한 후 물기를 짠다. 들깨가루와 쌀가루는 채수물 4큰술에 개어놓는다.
3. 표고버섯은 도톰하게 어슷썰고, 느타리버섯과 만가닥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양송이버섯도 굵게 채썬다.
4. 당근과 파프리카도 채썬다.
5. 냄비에 들기름과 맛국물 2큰술을 넣고 표고버섯, 목이버섯, 만가닥버섯, 당근을 넣고 덖는다.
6. 불을 세게 해서 소리가 나게 덖다가 맛국물과 파프리카, 쌀가루와 들깨가루 푼 물을 넣고 한소끔 더 끓여 불을 끈다.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한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① 돌연사 예방

돌연사, 반드시 예방할 수 있어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권력을 위해서, 재산과 재물을 위해서, 또는 외모나 신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맞이하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하며 마음수행을 했던 현상 중에 죽음과 질병이 고뇌하게 된 가장 큰 주제였고 결국 인간 세상 모든 것은 죽음이 있기에 영원한 공(空)이 되며 모든 것은 공에서 와서 공으로 돌아간다. 즉 차별도 없고 귀천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법은 평등하다"라고 설법하셨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허무한 죽음을 많이 보게 된다. 지난 20여 년 간 중환자실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봐왔다. 그때마다 모든 죽음은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굳이 죽음을 앞당겨서 맞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필요는 없다.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경우와 예방 가능한 돌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병원 외 돌연사의 경우 소생률은 충격적으로 2~3% 미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 현실에 따른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현장처리 및 이송, 응급의료기관 경유 집중치료실 입원까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크게 보면 돌연(심장)사 또는 심폐정지 환자에 대한 대처는 첫 번째 응급치료 시간 지연 최소화, 둘째로 일반인 소생술 교육, 세 번째 응급의료센터 및 집중(중증)치료실 확보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돌연(심장)사의 주된 원인은 관동맥(심장혈관) 질환에 의한 심장 부정맥이다. 특히 본인 및 가족에게 현재와 과거력에 관동맥질환, 심근경색, 심근증, 부정맥증(long QT, Brugada 증후군) 등이 있으면 위험도가 증가하고 그 외 남성인 경우 관동맥질환 가족력,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hol) 증가, 고혈압, 당뇨병, 흡연자 등도 위험률이 증가하며 이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와 동일하다. 더 확대하면 심실내전도장애(부정맥), 폐활량감소, 심박수 변화, 식이 인자, 지나친 고강도 운동, 과도한 음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다. 이 모든 원인에 대한 위험도 진단 및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는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하다. 치료의 경우 우선 원인에 대한 진단 예방과 약물치료, 삽입형 심실제세동기, 동맥우회수술 등이 있으며 약물은 여러 연구를 통한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ARB 제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제제 등이다.

다시 요약하면 돌연사 즉 돌연심장정지에 의한 사망의 주원인은 첫 번째가 관동맥질환(동맥경화증)이고, 두 번째가 심근증(좌심실 기능부전)이며, 상기 원인 질환을 예방 · 치료 · 관리하는 것이 돌연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동맥경화 · 심근증이 주원인
원인 예방 · 치료 · 관리 중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권력이든, 재정적 경제력이든, 건강 외모 체력 체격이든, 자연환경이든 모두가 그렇다. 결코 변치 않고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우리가 예방 가능한 돌연사에 대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예방 · 치료 · 관리를 하면 반드시 예방 가능하며 정말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금연 - 흡연에서 발생하는 혈소판 응집, 카테콜아민 분비, 심실세동 역치의 감소, 심박수 상승, 혈압 상승, 관동맥 연축, 산소운반능 저하 등의 생리적 변화는 돌연심장사를 유발하기 쉽다.

2. 적절한 식이 섭취 -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며 오메가-3와 단일불포화지방을 섭취한다. 염분의 섭취는 줄이고 야채의 섭취를 늘린다. 생선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으며 생선기름 캡슐을 매일 섭취한다.

3. 규칙적인 운동 - 운동은 돌연심장사에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심한 운동을 한 후 30분간 급사의 위험이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같은 시간에 비해 17배 증가한다. 규칙적(지속적)운동을 하는 경우 돌연심장사의 위험도가 85% 감소한다. 또한 정원 일이나 걷기 등의 적당한 운동에도 급사의 위험이 73% 감소한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등 운동량이 적절할수록 좋다.

4. 콜레스테롤의 개선 -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30g/dL 이하로 유지하며,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100 mg/dL 이하로 유지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60-70mg/dL 까지 낮출 것을 권고한다.

5. 당뇨병과 고혈압의 적절한 조절 - 혈압은 140/90mmHg 이하를 목표로 하고,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25/80mmHg 이하로 유지한다.

6. 체중 조절 -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하가 되도록 조절한다.

7. 적절한 음주 - 다량의 알코올(하루 다섯 잔 이상)을 복용하는 사람은 심실부정맥과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주 2~6잔 정도의 복용은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그 위험이 덜하다. 하지만 몸에 맞거나 절제가 가능한 사람만 시행한다.

8. 스트레스 해소 - 스트레스(특히 심리적)는 심장돌연사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많다. 삽입형 심실제세동기를 이식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화를 낼 때 제세동기 작동률이 상승됨이 보고되었다.

끝으로 스티브 잡스는 매일 질문했다고 한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죽음에 대해 항상 마음 깊숙이 생각한다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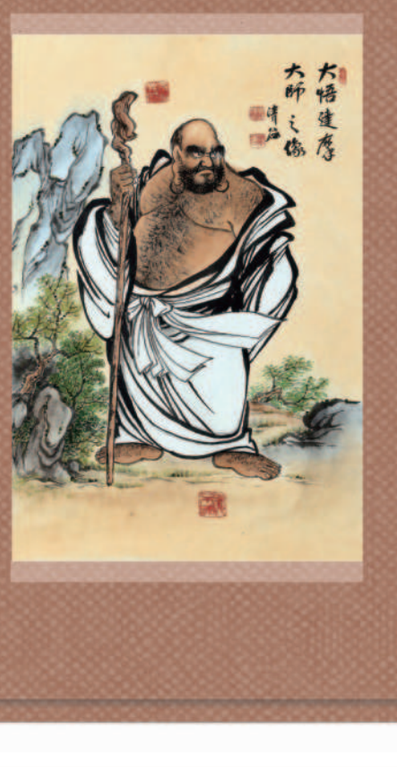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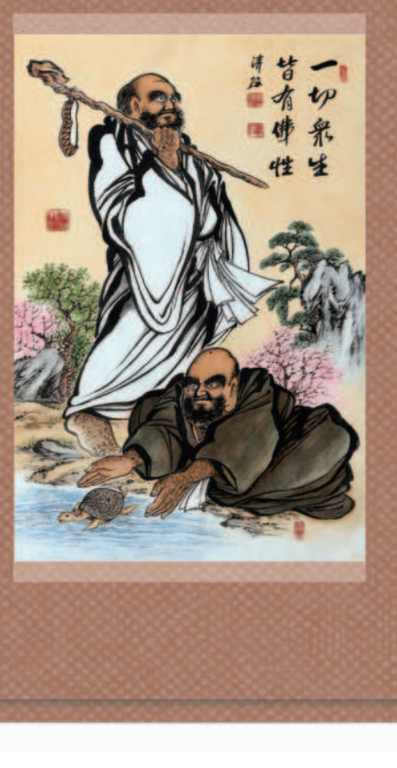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